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및 국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국제교류는 국익 도모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새로운 세기에 적합한 청소년의 자질함양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정책적 비전 하에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추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문화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등에 의해 산발적, 일회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연계성과 지속성이 없어 교류 효과의 집적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의 대다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일회성 행사와 견학·탐방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류내용의 선정, 교류자 선발 및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교류의 성과가 누적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나 개념 없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담당공무원은 관행에 의거, 교류사업의 성공적 시행에 일차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사업기획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청소년이 유학이나 관광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 또한 왕성하

게 증가하여 국가 간 교류, 청소년단체 간 교류라는 종래의 교류사업만으로는 새롭게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개발 역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유기적 협조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기초하여 국제교류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업선정 및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평가 없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주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발전 및 사업개선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기능과 역할에 기초한 평가기준의 제안을 통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먼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개념 및 사례, 평가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담당자들이 청소년국제교류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만 국제교류사업이 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다. 그런 다음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국제교류사업 사례를 비교한다. 각 국은 자국의 사회시스템에 부합하는 고유한 국제교류사업과 추진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외국의 주요 사례와 국제교류사업 추진체계를 유형화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인 국제교류사업 평가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국가수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수준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체계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수행된 국제교류사업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런 후 이 중 의미 있다고 판단된 국제교류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거쳐 국가수준에서 요청되는 국제교류 사업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행정통계자료 및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요청되는 국제교류사업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기구, 법, 정책, 조직 및 국제교류실태, 국제교류사업 사례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정부보고서나 관련부처 내부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교류분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교류실태를 조사하고 이것을 기초로 현 단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교류수준을 가늠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평가기준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었다.

설문조사는 2000.7.31~8.31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우편설문조사방법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52.4%로 총 248개 자치단체 중 130개 자치단체가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2개 문항은 서술식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I-1>과 같다.

<표 I-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조사 설문문항

자치단체별	세부 문항
공통 문항	-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여부 - 향후 청소년교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국제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	- 교류활동분야 - 청소년교류계기 - 교류참여집단 - 주된 프로그램 - 숙박 - 교류회수 - 교류추진주체 - 경비부담 - 교류추진 시 애로사항 - 청소년교류사업 개요 서술
현재 국제교류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	- 장래 교류 의향 - 장래 교류를 희망하는 상대국 - 희망하는 교류분야 - 청소년 교류 시 희망하는 교류내용 - 교류 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셋째, 전문가 자문 및 면접이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평가의 방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국제교류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이루어 졌으며 정부부처 국제교류사업 담당자에 대한 면접이 실시되었다.

II.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개념 및 유형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개념
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국제적 비교 및 유형화
3.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평가의 의미

II.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개념 및 유형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개념

1) 청소년국제교류와 국제교류사업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란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의 직·간접적인 국제교류를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국제교류가 무엇인 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국제교류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각각의 분야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틀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가령 교육분야에서는 주로 학생, 교사, 교수 교환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의 개최 및 대표자의 파견을, 그리고 관광분야에서는 피로 회복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지방문화에 대한 지식과 그 고장 문물의 참 뜻을 음미하는 데 목적을 둔 문화활동, 운동에의 참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 각종 협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회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 방문, 청소년 현장활동 견학, 청소년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경험의 교환, 각 국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교류는 주로 국제친선, 청소년 파견, 연수, 회의 참석,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의 지적,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관광분야에서는 교류프로그램을 ‘청소년 지도자에 의해 사전 준비된 비상업적인, 그리고 주로 비슷한 연령과 교육적 배경을 갖고 여행하는 청소년의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김경준, 1995 : 12-13에서 재인용). 국제교류를 관광과의 관련 하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즉 청소년 국제교류를 주로 청소년 씨클,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나 국가 등의 대표로 외국에 파견되거나 청소년 개개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펜팔, 국제통신, 개별 여행 등의 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국제교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란 청소년의 지적,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청소년 개인, 청소년 대표, 또는 청소년 씨클, 청소년 단체나 사회단체 등 청소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국과의 인적, 물적, 문화적, 사상적인 교류활동’으로 정의된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란 이상과 같은 의미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업의 주체를 고려할 때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개념은 보다 확장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국제교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개념을 넘어서 청소년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자원조성, 재원조성, 단체육성, 시설 및 기구설치, 정보망 구축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란 청소년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청소년 개인, 청소년 대표, 또는 청소년 씨클, 청소년 단체나 사회단체 등 청소년집단의 외국과의 인적, 물적, 문화적, 사상적인 교류활동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및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여건 조성사업을 의미한다.

2)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수행주체와 청소년교류분담실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수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은 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며 민간부문은 비영리단체·기관과 영리단체·기관으로 나뉘어진다.

현재까지 파악된 청소년국제교류의 실태에는 여행사 등 영리기관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영리기관의 국제교류실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 관광 형태로 영리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수행주체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청소년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수행주체의 효율적·유기적 연계 하에 상호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이 효율적이며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부정적 영향 및 문제점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한정된 재원으로 청소년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이의 보완 및 균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매년 집계하는 국제교류 통계자료를 통해 청소년국제교류의 분담실태를 살펴보겠다. 이 통계자료는 문화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일정한 형태로 몇 년에 걸친 조사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은 매우 높은 편이며, 한국의 청소년국제교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주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관련이 있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 민간단체 및 청소년단체였기 때문에, 학생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의

현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로 비영리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나 법인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실태 및 영리기관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1996-99)

청소년 국제교류를 일반교류, 연수, 회의, 행사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알아본다.

일반교류는 정부, 단체, 기구간의 정기교류, 친선교류 등 일반적인 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연수는 특정한 분야나 주제를 가지고 시행되는 교류 형태이고, 국제회의는 말 그대로 국가, 지역 간 혹은 세계적인 회의형태이며, 국제행사는 캠프, 대회, 축제 등의 행사를 의미한다.

<표 II-1>에 의하면,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총 1,061건에 31,113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를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계속적으로 교류횟수와 인원이 증가해왔으며, 1997년 11,56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98년도에는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97년도의 11,560명에서 1998년에는 3,756명으로 줄어들어 무려 67.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9년에 전체

<표 II-1> 연도별 청소년 교류인원

단위 : 명

	1996	1997	1998	1999	계
교류	2,368	4,014	2,434	3,432	12,248(39.37%)
연수	4,013	5,714	203	2,532	12,462(40.05%)
국제회의	59	81	102	254	496(1.59%)
국제행사	1,673	1,751	1,017	1,466	5,907(18.99%)
계	8,113	11,560	3,756	7,684	31,113

7,684명이 참가하여 교류의 횟수나 인원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행주체별 교류현황

<표II-2>는 정부기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교류에 대한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민간단체가 교류인원에서 보면, 파견의 91.12%, 초청의 89.68%를 담당하고 있어 국제 교류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II-2> 주관단체별 청소년 교류인원

단위 : 명

	1996		1997		1998		1999		계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정부기관	258	120	205	107	202	93	253	136	918 (4.52%)	456 (4.23%)
자치단체	275	228	332	6	161	397	118	26	886 (4.36%)	657 (6.09%)
민간단체	4,141	3,091	8,572	2,338	960	1,943	4,851	2,300	18,524 (91.12%)	9,672 (89.68%)
계	4,674	3,439	9,109	2,451	1,323	2,433	5,222	2,462	20,328	10,785

전체 국제 교류에서 정부의 경우 파견에서 4.52%, 초청에서는 4.23%를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파견에서 4.36%, 초청에서는 6.09%를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교류인원은 큰 변화가 없이 꾸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간의 협정에 의한 교류가 많으며, 국가정책추진에 따라 교류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교류인원은 연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또한 파견과 초청인원수에서도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직 자치단체의 경우 지속적이고

꾸준한 국제교류 사업이 정착되어 있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1998년 경제위기에 따른 교류인원 감소가 1999년에 들어서는 파견인원의 숫자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의 교류가 전체의 약 90%(파견 91.12%, 초청 89.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몇몇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교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청소년단체의 교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60개 회원단체가 국제교류의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교류는 총 805회 28,196명이 참가하였으며, 정부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의 경우에도 파견이 초청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파견의 경우 1998년도의 통계를 보면 회수에 있어서는 1997년도의 절반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나 인원에는 있어서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였으나, 경제난으로 인원이 대폭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1999년에 파견인원은 다시 늘어나서 1997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했다. 초청의 경우에는 회수는 3년 간 계속 증가했으나 인원 면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1999년에 다시 조금 증가하였다.

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국제적 비교 및 유형화

1) 유럽형 : 국가 주도형 복지 및 투자 모델

(1) 사업의 개요 : 유형, 특징, 목적, 내용, 방법

현재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유럽 연합의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공동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국가간(동유럽 포함) 및 유럽 이외지역과의 국가 차원의 협약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류 프로그램이다. 두 유형의 사업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운영되기도 하고 전혀 별개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모두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서 관여하는 관계로 서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이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간에 유사성이 있는 프로그램들과 사업들은 어느 순간 통합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첫째, 유럽 연합(EU) 협의체 주도에 의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다. 이는 유럽 연합 협의체가 주도하는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제1기 사업으로 1995년 초부터 1999년 말까지 5개년간 진행된 『소크라테스(SOKRATES I) 프로그램』과 『레오나르도(LEONARDO)』 프로그램, 1988년부터 시작된 『유럽 청소년 I, II』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PETRA, TEMPUS, LINGUA의 일부 등 다른 프로그램들을 흡수 통합하여 1997년부터 1999년 말까지 3년 간 지속된 『유럽 청소년 III(Jugend fuer Europa III)』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모두는 199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데, 2000년 1월 1일부로 1차 사업의 평가기간 및 지원 예산 조정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이미 2000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평가가 일부 마무리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우선 35,000만 유로화(Euro)로 예산 지원이 확정된 소크라테스 제2기 사업(『SOKRATES II』)을, 『유럽 청소년 III』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기간의 2차 사업을 시작하였다.

둘째, 개별 국가간 또는 개별 지방단체 차원의 교류사업이다. 이는 주로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 체결 및 협약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과 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특히 서유럽과 동유럽지역간의 교류사업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보다 활성화된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양 진영간에 오래 동안 지속된 냉전 체제 이념 대립의 상황 하에서도 양 지역 간의 청소년 교류사업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똑같은 사업이라

도 사업의 영역 및 내용 그리고 방법 면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로 차이도 있었고 동서 각 국의 사정에 따른 교류사업의 취지 및 목적의 상이성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청소년교류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한계점과 제약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친영간의 청소년교류사업은 어떻게든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물론 양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교류사업은 보다 능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냉전시대가 마감되면서부터이다.

전반적으로 유럽형 청소년교류사업의 특징은, 첫째, 유럽지역 청소년들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의 기초로서 청소년교류사업을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공동의 교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각 국가와 정부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맹에서 주도하고, 이에 각 국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시 내용, 방법 등에 합의하여 실시하는 쌍방향 복지 및 투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셋째, 유럽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 주체로 선정된 곳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맡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은 유럽 연합의 협의체(EU commission)가 주관하고, 각 국의 관할 하에 관련 청소년교류정책 담당 부처 및 행정 부서로부터 시작하여 최하위 단위인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청소년복지 단체로까지 긴밀하게 연계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한마디로, 유럽형 청소년교류사업은 미래를 위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는 국가 투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운영 방법 및 수단으로 본다면 사회 안전 망 또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사업 모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와 전통이 강한 유럽지역의 경우, 청소년국제

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복지 사업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간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영역은 직업기술교류 및 직업기술교육 사업의 영역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학교청소년 대상의 교류 사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 층인 직업청소년 및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며 투자로 시작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유럽지역간 국제교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유럽의 사회복지 국가에서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과 똑같은 수준의 사회복지계층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유럽지역간 청소년국제교류를 위한 국가 지원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지원의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원 예산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일 예로, 독일의 경우 1995-1999년까지 5년의 기간동안 진행된 유럽연합 협의체 주도의 『소크라테스(SOKRATES)』 프로그램에 약 1조원의 비용을 투자 지원했다.

물론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유럽지역간의 역사와 전통에서도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성숙과 함께 필연적으로 부수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사회계층의 불균등 해소를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의 청소년교류는 오래 전부터 개별 국가들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도 촉진되어 왔다. 이는 유럽지역의 사회안정화 전략과도 크게 부합된다. 즉 국가와 국가간 민족과 민족간 아니면 종교와 종교간의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깊은 유럽 대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웃 사회 및 문화와의 교제를 통하여 각 국의 민족과 국민과 친해지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성숙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 및 위화감을 해소하여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는 역사의 교훈에서 얻은 것처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간의 상호 불신과 오해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 폭동 및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청소년들간의 만남을 꾸준히 주선하여 이들간에 있을 수 있는 상호 오해 및 불신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상호 이해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유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상호 문화교류이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이다. 따라서 문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문화교류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고도로 발달하는 국제산업사회의 성숙과 유럽 대륙 간을 오고 가는 엄청난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교류 사업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들간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는 미래 유럽지역의 화해와 상호 발전을 약속한다. 특히 80년대 중반과 독일 통일을 계기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유럽통합의 과제는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유럽 통합의 핵심전략사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오늘날 엄청난 예산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청소년교류사업을 국정 차원에서 저마다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근거는, 첫째, 이미 유럽지역의 통합기구로 자리를 잡은 유럽 연합(EU)에서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교류사업을 미래 유럽 통합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 여기고 있으며, 둘째, 최근 국제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편으로는 유럽청소년들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연합 또는 아시아 연합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역화를 통하여 지역블록화를 강화하려는 추세 속에서 미래의 주역인 유럽 청소년들을 하나로 결집하여 한편으로는 유럽 이외 다른 지역의 사회적 블록화를 경계하며 동시에 유럽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청소년교류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 예로, 이러한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미래의 투자로 간주하여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정책화하여 이 사업 영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 왔던 독일의 경우 실제로 유럽 통합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에 대한 성과는 유럽형 청소년교류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에 비교적 충실한 결과에서 연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보기로서 삼고 있다.

이러한 유럽형 사업의 특성은 유럽 연합 협의체 주도의 유럽 공동 프로그램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지역(동유럽과의 교류 포함) 개별 국가간 사업 역시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 국가간 전략이 유럽 연합의 전략과 상충할 수 없으며, 유럽 연합의 전략은 바로 회원 국가들의 정책 및 전략으로 대부분 흡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위스에서는 스페인과의 협정 하에 매년 스페인에서 열리는 다주(多周) 동안의 청소년 관련 워크숍에 자국의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교류사업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붕괴 후 매년 국제자원봉사활동에 참가 학생들을 선발하여 러시아에 1년 동안 파견하는 것을 연간 정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와 국가간 연합 협의체 성격의 공신력 있는 스위스의 INTERMUNDO라는 국제청소년교류단체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http://www.oneworld-jobs.org>). 여기서 운영하는 학생교환 프로그램과 사회자원봉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며, 워크숍과 단기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들의 만남과 여름 캠프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스위스와 스페인간에는 양 국가가 특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교류 프로그램으로서 Au-Pair(상호협력 품앗이)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양 국가간의 상호 품앗이 프로그램으로서 국가 재난 및 위급 상황 또는 국가간 협조해야 할 국제적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상호 품앗이 형태로 서로 도와주는 상호 협조를 위한 국가간 협약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스위스 정부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가하는 학생들 그리고 국제 자원 봉사원으로 러시아에 체류하는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스페인과 러시아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들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민족간 문화간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스위스-스페인간 학점인정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관계로 참가 학생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 파견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직업기술교육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도제 및 기능 청소년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로 지원하는 장학생 및 실습생의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역시 유럽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 하위 목표들과 방법들을 체계화시켜 왔다. 이를테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하위 목표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의 영역이다. 의무교육제도가 유럽지역에 확산되고 보편화된 이래로 오늘날 유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직업 청소년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에는 늘 교육과 훈련의 과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학교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교류를 통한 문화교류 또는 문화체험과 함께 수행되는 교육교류가 중요하고 학교 외(外) 직업청소년들에게는 직업기술훈련을 통한 문화교류 또는 문화체험과 함께 수행되는 직업기술 교류가 중요하다. 또한 이들 유럽인들은 청소년계층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청소년교류사업은 목적 달성에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즉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제체험교육, 국제이해교육 그리고 국제지식기술교류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각종 국가간의 교육 및 훈련 목적의 파견 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사업은 보다 완속해진다.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교육과 훈련”은 이러한 청소년

년교류사업의 대명제 즉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SOKRATES 및 LEONARDO). 물론 교육과 훈련의 범위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순수 문화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중요한 영역이다(유럽청소년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기는 가장 교육적 욕구가 강한 시기로 본다면 교육적 효과가 부수되고 교육적 방법이 활용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의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은 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용성 있고 가치 있는 이웃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의 시작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웃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웃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해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고, 더 나아가 각 국간의 지식 및 기술 교류를 통한 교육 및 훈련 사업에의 기여 그리고 이웃 외국으로부터의 문화접변 및 문화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타문화의 경험과 이해의 통로를 터 준다. 청소년교류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바람직한 유럽 공동체에서의 각 개개인의 삶의 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폭넓은 인식 및 이해 그리고 새로운 조건 및 환경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물론 교류 사업에 대한 성과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국제 문화 학습 능력과 문화 체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차원 아니면 유럽 연합 개별회원국의 차원에서 볼 때,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럽 지역에 속하는 개별 국가와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고유한 문화영역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하고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유럽 통합을 계획하는 유럽 사회는 각 개인들간의 만남을 보다 개방하여 이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유럽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지역 주민들간의 공영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럽지역간의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의 추진 방법은, 유럽 연합 협의체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가칭)유럽지역의 연합체가 기획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유럽지역 각국 정부에 제안하고, 각 국가는 여기에서 제안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협의체의 회원국이 되며 회원국별로 예산 지원에서부터 행정적 협조까지 할당된 과제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유럽연합의 공동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주도하는 유럽지역간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들은 주로 자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된다.

유럽지역의 개별국가간의 교류 사업일 경우에도 국가간의 협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도시간의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별 또는 사업시행의 단위별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사업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2) 유럽연합 협의체가 주도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전통적인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소년국제교류 공동 프로그램은, 첫째, 학교청소년 교류프로그램(SOKRATES), 둘째, 학교 및 학교 외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교류 프로그램(LEONARDO), 셋째, 일반 청소년들간의 교류 프로그램(유럽 청소년 III)으로 구분된다. 부수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학교 및 학교 외 청소년 모두를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적 처리 및 학점 취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 즉 상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득한 학점과 평점

은 본국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유럽의 청소년들은 이웃 국가의 체류를 통하여 우선 외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전공에서도 향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타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국가와 그들의 문화를 익힘으로써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습속과 관습 그리고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심을 높일 수 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 청소년이 학교 학생이든 아니면 학교 외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업 도제든 아니면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선발된 대학생이든 모든 청소년들이 교류 프로그램에의 참여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취지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이웃 2개국 이상과 교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청 국가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① 『SOKRATES』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학생(초·중·고) 및 대학생의 교류를 통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국제교류 교육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첫 번째 사업영역으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ERASMUS 프로그램, 두 번째 사업영역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OMENIUS 프로그램, 마지막 사업 영역으로서 학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외국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LINGUA 프로그램이 있다. 이밖에도 아직은 유럽 지역간에서 그 실시 범위와 내용이 크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교류 사업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업들 즉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개방학습과 원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지식 정보와 경험들의 교환을 지원하는 EURYDICE 및 ARION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다(<http://europa.eu.int/en/comm/dg22/socrates.html>).

· ERASMUS :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된다. 이들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나 구 유럽공동체 지역(Island, Liechtenstein, Norwegen)의 인스티튜트에 소속으로 등록되며 교류 연수기간 동안 학비는 없다. 교류 청소년의 선발 및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기타 체류 경비에 대한 책임은 참가 각국에서 맡는다. 이러한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 등의 조건은 각국에 따라 차이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3000-5000 OS를 지불하며, 체류 기간 중 1회의 여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여행경비로 1인당 목적 지점에 따라 1000-6000 OS 정도를 지불한다. 1992/93학년도부터 가입하여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Linz의 Kepler 대학교는 1996-1997년 학년도까지 모두 395명의 학생을 참가 졸업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일차적 목표는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간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학생 교류를 위한 전제 조건은 유럽 대학간의 기존 파트너십의 유지이다.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의 참가를 통하여 대학생들은 유럽 지역의 이웃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국의 대학에서 교환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최근 들어 이 교류 프로그램은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사이프론, 에스트란드, 리타운, 레트란트의 대학과의 교류로 그 범위를 동유럽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 COMENIUS : 학생(초·중·고) 교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참가 범위는 초·중등학교 과정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럽 지역간의 학교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라나는 학교 청소년들에게 유럽지역간의 문화적 이질성과 독특성을 이해시키고, 둘째, 유럽의 다른 지역에 파견되어 일을 해야 하는 소위 손님 근로자(Gastarbeiter)들의 자녀들에게 유럽의

다른 지역과 자국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고 상호간의 문화적 이질성에서 나타나는 문화 충격을 극복하여 유럽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외국어 습득, 다양한 유럽지역 문화 익히기, 환경 보호 프로젝트, 역사 이해 프로젝트, 정치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는 최장 3년이며,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는 총 비용의 50%까지 지원된다. 물론 이 액수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 연합 협의회에서 계획하는 연간 프로그램들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는 매년 5,500DM까지 지원하며, 개별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학교에는 매년 3,800DM까지 지원한다.

· LINGUA : 일반 청소년들의 외국어 습득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서로 언어가 다른 유럽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외국 언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파트너 그룹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셋째, 청소년들의 국제적 만남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종료 시에는 이들이 서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된 공동 프로젝트를 얼마나 완수하였으며, 이들의 국제적 만남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가 자체 평가된다. 예를 들어 공동 프로젝트란 각국의 학생들이 함께 작업한 폴라쥬 또는 공동의 폴레카드 제작, 공동의 페스티벌 계획, 모의 기업 창업 및 경영, 자국어로 청소년교류에 대하여 캠페인 하기, 어휘 만들기 같이 주로 타국인들간에 간단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쉽게 이룰 수 있는 협동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자국에서 학교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외국어 습득의 기회(외국어 교육 시간)를 갖게 되는 근로 청소년 및 현재 직업교육훈련과 계속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폭 열려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하여 국가별로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나 목적 그

리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목적은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LINGUA-E라는 약간의 변형된 외국어 습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LINGUA-E 프로그램은 원래 LINGUA 프로그램의 취지인 외국어 수업 참가를 전면에는 놓지 않고 오히려 미래 국가간 지역간의 공동협력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이념과 국경을 넘는 민족간의 상호 교제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둔다. LINGUA-E 프로그램은 이러한 교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물론 이때 언어는 상대방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테마를 공동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계약체결회의에서 6개의 북부오스트리아 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탈리아와 영국에 파견했다.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총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한다. 물론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7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매년 일반 프로그램은 6월과 3월에 시작되는데, 참여 신청 기한은 시작 3개월 전이다. 그러나 외국 언어 습득만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매년 4월 15일, 8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② 『LEONARDO』 프로그램

이 사업은 유럽 지역간 직업교육훈련 활동 영역 프로그램들을 모두 포괄한다. 즉 이는 지금까지 유럽 연합의 프로그램 즉 PETRA의 청소년 직업교육 영역, COMET의 산학협력교육 영역, FOPCE의 직업계속교육 영역, LENFGUA(외국어 연수 교육)의 일부, IRIS의 여성직업양성교육의 네트워 구축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이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이다(이상오, 2000: 45). 따라서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다. 일 예로 오스트리아가 LEONARDO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하고 있는 “도전 유럽(Challenge Europe - Herausforderung Europa)” 프로젝트의 수행자는 상공업지역인 북오스트리아 주정부, 노동자회의소, 주교육위원회 그리고 북오스트리아 직업촉진 인스티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부서와 단체가 거의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이 프로그램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 기능인 후계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기회를 창출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할 만큼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 이 사업은 초 유럽적 차원을 떠나 개별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http://www.bbj.de/potsdam/news3.htm>).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사업의 목적에 따라 분명하게 영역이 세분화된 바, 첫째, 유럽 지역 공동 기준에 맞는 개별 국가들간의 직업교육훈련의 시스템과 기준 척도를 만들고, 둘째, 유럽 지역의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을 포함한 각국의 기업체와 고용주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기준 척도를 만들고, 셋째,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외국어 습득을 통한 기술수준 교환을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목표 설정을 보다 구체화·전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보다 유럽 연합의 공동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특수 영역이 되었다. 즉 유럽 연합은 유럽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의 향상과 직업기술교류를 통한 유럽적 직업기술수준의 표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크게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국가간 연계 종합 프로젝트와 초국가적 알선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유럽 각국들은 유럽 통합형 직업교육학교, 직업계속교육단체 그리고 기업체들에게 초지역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직업양성 및 향상-계속 교육훈련의 단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해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최소한 유럽 3개

국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화시키고 있다.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에게는 모든 경비의 75%까지 지원되는데, 이는 대략 1년에 약 100,000ECU(180,000DM)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자와 직업훈련생들에게 해외에서의 실습과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참가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1회 참가를 기준으로 일인당 5,200ECU(8,000DM)가 일시불로 지불된다.

③ 『유럽 청소년 III』 프로그램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실시된 제1기 『유럽 청소년 III』 활동 프로그램은 특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의 만남이나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88년부터 15-25세 사이의 청소년 5,000여 만 명에게 유럽의 유대감과 연대 의식을 결집시켜 주기 위하여 시작된 유럽 청소년 프로그램은 연간 80,000명 정도를 교류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유럽 청소년들간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동유럽 및 중유럽의 제3세계 청소년들과 유럽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유럽 청소년들이 유럽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사업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첫째, 청소년교류, 이동 그리고 청소년 이니셔티브의 유럽 공동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만남의 장』 프로그램 사업, 둘째,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유학하거나 세미나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셋째, 유럽 연합 회원국들간에서 인가된 체제간의 협동사업, 넷째, 주로 동유럽 및 중유럽지역으로 분류되는 제3세계 청소년과의 교류 사업,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청소년 영역의 연구 사업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이러한 5가지 사업 영역은 애초의

의도와는 조금 달리 대부분 『청소년 만남의 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평가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실지로 『유럽 청소년 III』 프로그램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럽의 현실을 지시하고 스스로 체험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더 아나가 이는 학교 체제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프로젝트의 테두리 속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청소년 만남의 장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부상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유럽 청소년 III 프로그램』의 핵심인 『청소년 만남의 장』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 창안 활동”을 위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이의 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주의와 배타주의를 타파하는 운동, 민족 상호 이해와 반 인종차별주의 문화활동에의 참여, 청소년 권리와 같은 테마를 위한 정보, 기회 균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역정보의 확산, 환경보호, 마약, 알코올, 건강, 범죄 같은 테마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참가자 선발의 내용이며 기준이다. 즉 참가자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른 프로젝트 기획을 통하여 유럽 지역의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마나 이슈들이 청소년 자신들에 의해 창안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 각자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프로그램의 종료까지 아이디어 창안자에 의해 자치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이나 직업기술교육과도 무관하다. 즉 일반적인 학교수업의 연장이나 직업훈련에 따른 프로젝트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 연수 방문, 학생들의 여

가활동, 학교 축제, 학교 운영단간 교류 프로그램 등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관련 프로젝트는 『청소년 만남의 장』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오로지 사회 문화적 이슈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남을 기획하는 것이다. 일단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지만 서로간에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유럽 지역간의 현안과 이슈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참가의 지원 조건은 15-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며, 참가 기간은 1주일부터 최대 3주까지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여행 또는 체류 비용으로 총 경비의 50%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최고 75%까지 지원된다.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테마별 이슈별로 만나는 개별 국가간의 청소년 만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독일간의 유대인 문제 이해 프로그램, 스페인-이태리-독일간의 유럽 주변국의 다양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 영국-독일간의 극우적 민족주의 장벽 제거 프로그램, 스웨덴-독일간의 양국간의 강점 탐구 프로그램, 체코-오스트리아-독일간의 국경 문제 프로그램 등이 그것들이다.

(3) 기타 개별 국가간 교류사업

이는 유럽 연합의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외의 사업으로서, 첫째, 서유럽지역 국가간의 교류, 둘째, 서유럽과 동유럽지역 국가간의 교류, 셋째, 동유럽과 동유럽 지역간의 교류, 넷째, 유럽지역 국가와 북미, 남미, 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협정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유형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특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실시되다가 시간이 가면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근거로 결국은 통합 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이나 협조는 각 국별로 할당되고 쌍방의 책임과 역할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들은 개별

국가간의 사업들로서 공히 통합적 운영의 틀을 견지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

· 독일-이스라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지역에서 시작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2차 대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유대인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독일과 이스라엘이라는 당사자가 직접 풀어가야 할 이슈로 인식되면서 양국은 1950년부터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년 대략 3500명의 독일 청소년들과 2000여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전쟁의 책임을 지고 유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미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청소년부가 모두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연간 지원 경비는 약 300만 DM(20억원)이다. 그런데 독일연방공화국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1-2년 안에 200만DM를 추가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독일-폴란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1993년부터 양국 민족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의 협의회는 폴란드의 단치히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되는 양국의 청소년의 숫자는 연인원 10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양국 청소년 연맹의 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복지사업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사업, 청소년 언론활동, 우크라이나와의 독일-폴란드간의 이웃 우방관계, 우익 및 좌익 청소년 폭력 문제, 그리고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이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양국간에는 「독일-폴란

드 청소년협회(Deutsch-Polnischen Jugendwerk: DPJW)」가 결성되었다. 물론 이 협회의 상부 감독 기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청소년청이 된다. 예산 지원은 1999년도 1100만DM가 편성되는데, 독일에서 700만DM를 부담하고, 폴란드 정부에서 400만DM를 부담한다. 2000년도 예산은 각 정부에서 100만DM씩을 증액하여 총1,300만DM인데, 이는 1993년 사업 초기 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2배 증액된 수치이다.

이밖에도 독일-폴란드 청소년 협회는 독일과 동유럽 및 중유럽에 있는 소위 제3세계와의 교류 사업의 교두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폴란드 주변국가인 리타운과 우크라이나와의 교류 사업이 이 협회에서 중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체코와의 청소년 교류 역시 독일-폴란드 협회가 탄뎀 교류 형식으로 매개하고 있다.

·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독일과 프랑스간의 청소년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963년부터 프랑스의 가울레(Gaule) 장관과 독일의 아데나워(Adenauer) 수상간에 독일-프랑스 협회(DFJW)의 창설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회는 학교청소년, 직업청소년, 그리고 학교 이외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류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발전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체로 발전하였다.

DFJW의 운영 방식은 양국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장관급이 관리자로서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협회의 장은 독일에서는 가정-노인-여성부 장관이,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체육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아울러 그 아래 실지로 업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양국에서 각각 1인씩 임명된다.

2000년도 예산 규모는 각 정부 당 3,900만DM 정도이다. 또한 연간 참가 청소년의 수는 대략 140,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는 7,000건 정도이다. 사업이 시작된 1963년 이래로 1999년까지 총 참가

연인원은 600만명 정도이며, 이를 위해 실시된 프로그램은 약 200,000건이었다.

1992년부터 독일-프랑스 협회는 양국 공동으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 유럽의 제3세계와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이태리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의 청소년교류 사업에서도 공동 보조를 맞추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테마는 대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을 위한 테마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는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민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민주주의와 삶” 등이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로 선택된다.

DFJW 사업의 주 원칙은 유럽인으로서의 우정 및 연대감 형성이며, 목적은 간문화적 학습과 협력능력 배양인데, 방법은 단순한 만남을 주선하는 일로 시작하여 기관 차원의 세미나 학습,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직업 영역에서도 목표하는 바가 크다. 즉 직업관련 학교간의 교류, 청소년 수공업자 교류, 청소년 농부 후계자 실습, 청소년 실업자 프로그램, 직업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실습, 청소년예술가 교류 및 실습, 청소년 행정가 교류 등이 그것들이다. 이밖에도 교환학생(초, 중, 고, 대) 프로그램이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학교 외 청소년을 위한 계속프로그램의 영역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 독일-체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1997년부터 레겐스부르크와 필젠에 설치된 조정센터에서는 양국간의 청소년 및 학생 교류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탄뎀(Tandem)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탄뎀 방식이란 한번 방문하면 그 다음에 답방 형식으로 방문을 하는데, 내용, 방법, 지원 등을 그때 그때 사안별로 별도로 협상된다.

· 독일-러시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소년들의 만남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독일-프랑스 간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러시아 양국 정부의 청소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동서 만남 재단과의 협력 사업을 통하여 러시아의 어린이-청소년 연합에서 지원된다.

· 독일-미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독일 의회는 1983년 미국 이민 300주년 기념으로 미국 의회와 의회 대부-대모 사업 프로그램(Parlamentarisches Patenschaftsprogramm: PPP)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간에는 독일-미국 인스티튜트가 여러 도시에 설치되었다. 주로 16-17세 사이의 일반 학교 청소년들, 16-19세 사이의 직업학교 학생들 그리고 16-21세 사이의 군로 청소년들이 미국과 독일에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 것인데, 1997년까지 약 10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독일-미국 파트너십 프로그램(German American Partnership Program: GAPP)은 이해를 위한 청소년(Youth for Understanding: YFU)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GAPP는 학교파트너십을 매개하고 특히 상호 이해를 위해 외국 학교에서의 독일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인 학교 파트너십을 촉진한다.

· 독일-몽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1992년 본-올란바토르 사이의 연락을 위해 「본 아동 및 청소년 울타리(Der Kinder- und Jugendring Bonn e.V.: KJRJB)」가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독일과 몽고간의 청소년지원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NGO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위탁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단체이기도 하다.

1985년 7월 12일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문화, 학술, 교육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교류 사업 협정을 맺었으며, 1995년 9월 19일 양국 정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정책의 영역에서 협력 공동 사업을 수행할 것에 조인했다. 당시 협정된 프로그램 실시의 기본 원칙은, 첫째, 진행 기간은 양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 8일부터 최고 30일간이고, 둘째,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일체의 경비는 파견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경비에는 체류비, 교통비, 여행비, 프로그램 참여 경비 이외에도 사고나 의료문제를 대비한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까지 포함되며, 셋째, 참가자들을 위한 용돈은 양국에서 공동 부담하며, 넷째, 특별한 의견의 일치가 없는 한 통역관은 파견국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북미형 : 비영리단체 주도형

(1) 개요 : 내용, 방법, 목적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은 유럽의 경우와는 내용, 방법, 범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북미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국가에서 또는 국가 연합 차원에서 주도하고 개별 국가가 이를 준수하는 유럽형과 달리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NGO)의 속성을 지닌 비영리 단체가 주도한다. 이러한 사업 유형의 차이는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이 서로 상이한 국가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역시 양진영간의 정치-경제-사회 정책의 차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 면에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은 공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 방법, 목표 면에서는 매우 판이하다.

즉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의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 및 개인자유 경쟁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요소와 절충된 소위 사회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준수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업 중심 주의로 일면 대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견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복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지역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역시 유럽 지역처럼 국가 또는 연합국가가 주도하지 않는다. 이는 북미 지역이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국가와 정부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계속 지원하여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 이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에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부는 처음부터 이에 개입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즉 국민 세금을 잘 버는 계층과 못 버는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걷어 들여서 이 총액을 국가와 정부가 정하는 정의와 평등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에 재분배 환원시킨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즉 북미형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민간차원의 비영리단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기업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며(예: 미국 USIA의 IAP-66, J-1 비자 문제 협조), 기업과 사업가들 그리고 출연이 가능한 독지가들에게 주로 세금 정산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적 사회환원의 규정을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북미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은, 첫째,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세계 국가 질서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 지구촌의 강자로 떠오른 북미 문화권에 세계의 청소년들을 초

대하여 이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주변문화 대신 중심으로 떠오르는 북미 문화를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실제로 제3세계 문화권으로부터 항상 “문화적 식민주의 논쟁”에 휘말리는 목적 영역으로 지적되지만, 이러한 목적 영역은 한번도 포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만큼 자신들을 지구촌의 중심무대로 즉 강대국으로의 위상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을 노리는 것을 극히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제3세계와의 논쟁에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제3세계에서 비토를 내는 예민한 사안들에 대하여 이들은 문제를 가능한 한 지상에 노출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정책 역시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하여간 청소년교류사업을 통하여 인류 이해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에는 누구 하나를 제외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3세계의 문화권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미형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목적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날로 발전하는 추세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캐나다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은 30년 전부터 외국의 청소년들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국제적 교육의 기회와 일터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즉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고 지역사회와 국제 발전의 이슈를 개척하고 실제적 현장 경험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매년 약 20여 개국 출신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캐나다 세계 청소년』의 사명은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서로 파트너십 속에서 함께 일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다양하고 다양한 문화 인식, 세계 시민과 지역사회 개입 그리고 세계 이해와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비영리 단체의 사업이다. 이는 캐나다의 국제 개발 에이전시, 다른 정부와 비정부단체(NGO) 설립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 기부자들에 의해 지원된다.

1971년에 설립된 사업 기구인 「캐나다 세계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혁신적 국제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주도 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60개국 출신 24,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캐나다 세계 청소년」이 제공하는 삶의 혁신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참가 지원 자격은 30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의 참가 자격은 17-20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Youth Exchange Programs)

이 프로그램은 6-7개월 가량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삶과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반을 보낸다. 그리고 다른 반은 아프리카, 아시아, 캐리비안 국가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낸다.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의 국가와 다른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제 작업 현장의 경험을 획득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발달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다.

· 중부 유럽 및 동유럽 프로그램

(Central and Eastern Europe Programs)

이 프로그램 역시 6-7개월 가량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반을 캐나다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보내고, 프로그램의 반은 중부 유럽 또는 동유럽에서 보낸다. 단일한 경제-정치적 맥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은 민주화, 환경, 시민의식, 시장 경제 그리고 소규모 사업 개발 같은 공통 이슈에 관여하게 된다.

· 소비자 프로그램(Customized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환경, 지역사회 개발, 기업주 훈련 또는 특별 그룹(여성, 원주민 등)을 위한 이슈들에 근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형태에서건 기한에서건 매우 다양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참가자들이 홈스테이 형식으로 호스트 가정에 머물면서 함께 살면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머물 수도 있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작업 파트너 프로그램(Work Partner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에게 해외에서 실제 작업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3-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작업 경험을 하게 된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홈스테이로 거주하면서 호스트 가정과 함께 살고 건강 관리, 환경, 새로운 정보 기술공학 그리고 지역 발전 같은 분야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업한다.

· 연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Joint Initiatives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 청소년들과 단기적으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그룹들에 의해 주도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국제자원봉사활동, 이국 가정 체험, 그 나라 언어의 교육 훈련, 관광 그리고 학교 외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2) 『이해를 위한 청소년(YFU)』 프로그램들

YFU(Youth for Understanding)는 1951년 설립된 미국의 민간 청소년 국제 교류 단체이다. 또한 YFU는 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가 공인한 교류 프로그램의 후원자이며 동시에 장학재단이기도

한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10,000여명의 청소년 국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여름 방학기간 동안 아니면 학기 중 1년 동안 내지 한 학기 동안 타 문화권에 살면서 세계 각국의 여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youthforunderstanding.org/index.htm>). 특히 YFU는 자라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국제 이해의 능력과 국제 감각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9년 6월 현재 세계 각국의 학생 185,000명이 교류했다.

YFU는 미시간 출신의 교육자이며 동시에 사회사업가인 Rachel Andressen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그는 미시간 주에 거주하는 독일 청소년 75명에게 문화 이해 및 건강 치료를 위해 매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렇게 설립된 단체는 오늘날 전세계에 50여개 국의 회원 단체를 갖게 되었다.

YFU의 주요 특징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국제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홈스테이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서 호스트 패밀리를 선발, 교육, 운영, 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재 YFU의 호스트 패밀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가정 수는 약 2,500 가정이 등록되어 있으며 항상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단체에는 상시 고용인으로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 걸쳐서 10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다.

YFU 재단은 내일의 리더를 육성하는 일을 자임하면서 이들에게 세계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 및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물론 후원자개발과 모금사업도 이 단체가 하는 일이다. 또한 YFU는 다른 연합체와 결연하여 미국 지역사회와 청소년 후계자 또는 중소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YFU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소위 지역 언어들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즉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 가서 직접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교환학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YFU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은 역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재단의 지원과 각종 기부금 또는 후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게스트 학생들과 호스트 가정을 모집하기도 하며, 전문 스텝진의 위임을 받아 이들을 관리하고 리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에게 국제화 교육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자료교환 및 정보 교환을 주도한다. 물론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일도 이들의 주요 역할에 해당된다.

YFU가 주도하는 청소년국제교류의 중요한 목표 중에는 세계화 교육이 들어 있다.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들은 모두 세계화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구호 하에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세계화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도 역시 세계화 교육을 원한다. 결국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바라는 것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부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YFU의 참가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5세-18세, 대학생의 경우는 18세-24세로 제한하고 있다. 대개 프로그램은 몇 주부터 1년까지 진행되며 그 기간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체의 목표와 호스트 국가 및 파견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YFU가 매년 주관하는 일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1년 정규 학년 프로그램」, 「1학기 프로그램」, 「여름 방학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대학 프로그램」 등이 그것들인데, 이러한 사업은 거의 고정

적이라고 볼 수 있다.

「1년 정규 학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략 11개월 간 지속되는데, 이는 일반 학교에서 정규 1학년 과정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8월에 본국을 떠나 다음 해 7월에 돌아온다. 물론 호스트 국가의 사정에 따라 1월에 떠나 12월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은 1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점 인정의 문제 때문에 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1학기 프로그램」은 5-6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 프로그램은 반년 코스로 일반적으로 8월 또는 1월에 본국을 떠나 1월 또는 7월에 돌아온다. 「여름 방학 프로그램」은 호스트 국가의 사정에 따라 방학이 있는 기간을 택하여 4-5주 또는 6-7주정도 소요된다. 여름 방학이 비교적 긴 유럽의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대학 프로그램」은 한 학기 또는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가 지원자는 우선 장학금 혜택의 가능성, 소정의 신청서에 참가 가능한 프로그램, 참가 가능한 국가, 필수 외국어, 비용, 기간 등을 각국의 사무소나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서가 YFU 본부에 도착되면 YFU의 자원봉사자나 스텝 전에 의해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서 개별 면담으로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신청은 각 학교,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YFU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보다 일반들에게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YFU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호응을 얻게 되어 외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 운영할 정도가 되었다. 일 예로 「독일 YFU」의 경우에는 1957년 7월 28일 DYFU 설립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법적인 재단 등록은 1965년에 이루어져 활동 중이다.

설립 이전에 독일 정부는 미국의 YFU와 공동으로 “1955/56년 교류의 해”를 맞아 독일의 과거 미국점령지역 내에 살고 있는 미국 청소년 10대들과 독일 청소년들간의 도시-도시간 교류 및 지방-도시간의 교류사업으

로 청소년교류를 한 적이 있다. 이는 이듬해에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교류활동이 바로 「독일 YFU」 재단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프로그램의 연계와 협조를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는 일은 없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등 역시 미국 YFU와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이밖에도 YFU 사업의 영역은 불특단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유럽 YFU, 라틴아메리카 YFU 그리고 태평양 YFU로 활동 반경을 구획하는 추세도 일고 있다.

독일 YFU의 경우에는 16-17세 청소년들에게 주로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유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바, 1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을 할 경우 독일 학생(대학생 포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1981년까지는 오로지 미국 유학으로 제한했지만, 1982년부터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학도 허용되었으며, 1984년부터는 호주, 1986년부터는 뉴질랜드, 1987년부터는 남미 지역, 1991년부터는 동유럽이 개방됨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일본, 1992년부터는 러시아, 1994년부터는 캐나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남아프리카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반대로 1년 동안 외국인 학생들(대학생 포함)이 독일에 유학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미국 학생들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1977년부터는 남미 출신 학생들에게, 1982년부터는 유럽의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1983년부터는 호주 출신 학생들에게, 1987년 말부터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1989년부터는 일본 학생들에게, 1990년부터는 동유럽 출신 학생들에게, 1994년부터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1995년부터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학생들에게 개방했다.

또한 미국 학생들(대학생 제외)을 위한 독일의 여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학생들은 독일에서 2개월 정도를 체류할 수 있다.

함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의 YFU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총장(현재 Nikolaus Pelka) 이하 14명의 정규 직원과 5명의 시간제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명예 이사 5명과 운영이사 16명 그리고 고문 19-23명으로 이루어지며 이사장은 1957년 이래로 Ulrich Zahlten가 맡고 있으며 3,500명의 운영이사회 회원을 두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YFU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의 총 수는 약 135,000명인데, 독일 YFU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는 3,500명에 이를 정도로 독일 YFU의 활동 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넓고 보다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CSIET(Council 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Travel)』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은 1982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세계 각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진작시키면서 살아 있는 체험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의도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국제학생교류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무 부서로서 미국의 외무부 국제 정보 에이전시(USIA)에 교환학생처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정부의 공인 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적으로 명백한 협조를 받게 된 셈이다. 즉 외무부 국제 정보 에이전시의 교환학생처는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로서 많은 지역 학교와 지역사회를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가 회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을 민간 비정부기구에 위임하기로 결정, 1984년 국제교육여행기준 위원회(Council 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Travel: CSIET)를 탄생시켰다. 이 위원회는 추진회의에 의해 운영되는데, 추진회의의 위원은 각급 회원 학교장, 공공 사업 재단, 학부모 연대, 지역사회 기관장 그리고 기타 민간 경제인으로서의 후원자 또는 기부자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서 매년 새롭게 운영할 프로그램

의 범위와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결정된다.

또한 이 위원회의 사업 영역으로 중요한 것은 세계 각국에 회원국을 확보하는 일이다. 일 예로, 독일의 DHF(직업고등학교 연합)은 미국 CSIET의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이자 회원단체이다. 따라서 CSIET은 DHF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면서 사업의 방법, 내용, 목표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미국 CSIET가 이렇게 외국의 단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외국에서 사업 단체와 기구 확장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의 DHF는 독일에서 미국과 교환학생활동을 원하는 많은 단체와 학교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독일 DHF의 회원들은 미국 CSIET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나 관리를 받지 않는다. DHF의 교문단은 미국과의 학생교류에서 장기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교육학적 또는 심리학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4) 『CHI』 프로그램들

1980년 설립된 CHI(Cultural Homestay International)은 비영리 공익 단체로서 홈스테이를 통하여 세계 청소년들간의 국제 문화 이해 및 서로간의 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이 단체에서는 본부에 정규직 사원이 55명, 비정규직 사원이 720명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지에 총 28개의 국제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간의 편견을 제거하고 국제 질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직접적으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국제간의 문화, 언어, 습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의 초점은 참가 학생의 교육, 자원봉사 호스트 패밀리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이웃간에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교류에 의한 지역사회의 교육에 주어진다.

CHI는 비자 발급 등 입국 서류 절차를 미연방 국제 정보처(USIA)로

부터 위임을 받아서 각종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CHI는 국제교육여행 기준위원회(CSIET: Council 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Travel)의 회원이며, 국제 청소년 교류연맹(FIYTO: Federation of International Youth Travel Organizations)의 일원으로서 1980년 사업 개시 이래로 1999년 6월 현재까지 약 1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왔다. 매년 10개국 이상에서 온 7,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중 약 30개국의 학생 1,000명이 참가하는 「북미 학술의 해」 프로그램은 한 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홈스테이로 진행된다. 이때 최소 200여명의 호스트 패밀리가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2,000여명의 학생과 성인 자원봉사자가 미국 이외의 외국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 15년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CHI의 주요 사업은, 첫째, 유학생 알선 프로그램과, 둘째, 인턴실습생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 유학생 알선 프로그램¹⁾

이 프로그램은 미 외무성이 미 국내로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10대 청소년 교류 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활성화된 사업으로 1999년 현재 전세계 34개 회원국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격은 회원국의 예비고등학생(중3학년)과 고등학교 재학생(만 15-17세)이며, 자격요건은 학교성적 평균 B 학점 이상으로 TOEFL 400-475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TOEFL 성적이 없는 학생은 CHI의 별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신청마감은 매년 4월말로 미국의 가을 학기 즉 1학기에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참가기간은 매년 9월부터 익년 6월까지(매년 8월 출국 익년 7월 입국)이며, 비자종류는 J-1비자로서 미국

1) 이 내용은 <http://chi.co.kr/homeindex.htm>에서 본 글의 취지에 따라서 요약 편집하였음.

의 공립고등학교(하와이,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전지역)에 입학할 수 있다.

신청비용은 1년 체류를 기준으로 US 8,500\$인데, 여기에는 유학 시간 중의 학비 및 호스트 패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왕복항공료, 유학기간중의 보험료, 개인 비용은 제외된 액수로서 학생측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 유학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출 경비로서 미 정부에서 법률로 정한 비영리단체의 비용 산출 기준에 의한 것이다. 참가 학생들은 CHI 본사가 선정한 미국인 가정에 입주하여 홈스테이로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1년(2학기)동안 미국의 고등학생과 똑같은 학교생활을 한다. 체류형태를 홈스테이로 정한 것은 체류 경비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실생활에서 영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때문이다. 반대로 호스트와 그 가족들은 손님을 통하여 손님 국의 문화와 예절을 경험하는데 이는 이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CHI 본사는 학생담당 책임자를 두고 유학기간 중의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하여, 매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유학생의 학습발달 및 현지적응에 대한 평가서를 본국의 지사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직접 보낸다. 손님 국의 지사(예: CHI 한국지사)는 유학기간 중 학부형과 항시 연락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자녀들의 귀국 후에도 이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유학생의 탈선과 방탕 생활을 감시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미국의 CHI 본사는 유학생들에 대한 호스트 패밀리 책임 보호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방문 면접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인턴실습 프로그램²⁾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학 연수 이상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의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무 능력과 실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또한 일과 후에는 북미 가정에서 홈스테이 활동을 통하여 현지 가정의 실생활을 체험함과 동시에 그 문화와 생활양식, 실생활에 통용되는 살아있는 영어를 함께 터득함으로써 국제적 실무감각과 삶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실습을 위해서도 개방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향상프로그램(Short Term Enrichment Program: STEP)과 강화인턴십프로그램(Intensive Internship Program: IIP)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STEP의 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서 현지 적응을 위한 인턴 기본 실기 훈련에 해당하고, IIP의 참가 기간은 6-10개월로 STEP 참가 경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된다. IIP는 보다 세분화된 직업연수 과정으로서 호스트 회사는 인턴이 자신의 영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일 예로 업무연수와 다양한 부서에서의 순환 근무, 세미나, 연구 등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일본형 : 국가 주도 관-민 협동형

(1) 개요 : 유형, 목표, 내용, 방법

일본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가 주도형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 방법적 차원에서 민간과 협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그 방법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 예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2) 이 내용은 <http://chi.co.kr/exchinde.htm>에서 본 글의 취지에 따라서 요약 편집하였음.

일본 정부의 정책적 고유성을 가미한 홈스테이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성과를 얻고 난 후부터는 관-민 협동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첫째, 자치성에서 지방 행정 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둘째, 자치성의 위임으로 일본지자체국제화 협회(The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주관하는 경우, 셋째, 문부성에서 직접 주도하는 경우, 넷째, 총무청의 청소년대책 본부와 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로서 주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유형들은 오늘날 점차 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관-민 협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는 국제적으로 오명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관(官)의 차원에서 수많은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를 만회하고자 국제사회에서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투자한 만큼 결과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만회 정책을 민간 차원의 외교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민 협동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치단체 단위로 이들이 민간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의 자치성에서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과(課) 단위에 국제실을 두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市 이상의 자치단체에도 국제교류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윤철경, 1999: 41). 또한 지방 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시도군현을 단위로 자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관 협력의 국제교류협회 또는 국제교류센터가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가와현의 경우는 여성청소년과와 국제교류협회(민간재

단법인)에서 연계하여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한다. 특히 민간단체인 국제교류협회의 운영비는 현으로부터 일부 지원 받고 있으며 사업비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자체국제화협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윤철경, 1999: 45). 카가와현 국제교류협회의 주요사업 내용은, 첫째, 국제교류행사로서 외국인 일본어 웅변대회, 외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버스 타기, 일본 우등 및 부채 만들기 체험, 외국인과 일본인이 5Km 걷기 행사, 포장마차 경영하기, 각국 음식 판매하기, 일본의 전통 춤 배우기, 패션 쇼를 진행하고, 둘째, 공민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민족 이해를 위한 국제 강연회와 중고생 영어 세미나 등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한다.

카가와현 여성 청소년과(또는 청소년여성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크게 청소년 해외 파견 사업과 외국 청소년 초청사업 그리고 기타 교류 사업을 들 수 있다. 청소년 해외 파견은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 기금으로 운영하는 「국제 청년의 배(船)」 파견 사업, 「카가와현 청년의 날개」 파견 사업, 총무청 주최에 의한 재외국 파견사업을 들 수 있다. 물론 청소년 해외 파견 사업은 국제교류과(카가와현 총무과 국제교류과 담당), 농업개량과 그리고 카가와현 교육위원회 의무교육과에서 담당하기도 하는데, 카가와현 청소년 스포츠 교류단 파견 사업(국제교류과), 일-독 스포츠 소년단 동시 교류사업(국제교류과), 농촌 청년 해외 파견단 사업(국제교류과, 농업개량과) 그리고 만남의 날개 사업(교육위원회 교육과)이 그것들이다.

또한 나고야현(縣)의 국제 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나고야국제센터는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해외 유학, 파견자, 귀국자를 위한 상담 및 훈련, 교류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국제자원봉사 활동의 조직 등을 하고 있다(윤철경, 1999: 42). 여기에서는 관내자원봉사세력을 조직하여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요한 자원봉사의 영역으로는, 첫째, 가정 접대 봉사활동, 둘째, 언어봉사활동, 셋째, 사업보조봉사활동으로서 정

보안내 데스크에서 정보수집, 도서관 봉사, 외국인 신문 편집, 행사보조, 넷째, 국제 협력 봉사활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2) 『JICA 청소년국제교류』 지원 사업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74년 설립된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구이다. 1950년대 들어 전후 패전국 일본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연합국 측에서는 마셜 플랜을 추진했다. 연합국의 지원과 세계 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패전국 일본에 설립된 일본공공개발협회(Japan Official Development Association: ODA)는 일본의 경제 및 사회 재건을 위하여 설치된 국제공공기구였다. 그러나 이 기구에서 지원하던 일본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오히려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세계 은행은 이 기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동남아권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오히려 일본이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할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일본은 ODA의 사업을 떠맡아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JICA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립된 JICA는 일차적으로 주변의 개발도상국에게 선진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갔다. 이를 기화로 일본은 이웃국가들과의 화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정책적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많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청소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따라서 오늘날 JICA가 지원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다.

JICA가 지원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크게 외국 『외국 청소년 초청사업』과 『일본 청소년 파견 사업』 그리고 기타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① 『외국 청소년 초청 사업』 프로그램³⁾

외국 청소년 초청 사업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즉 이 프로그램은 이웃 외국의 청소년들을 일본에 초대하여 일본에서 특히 교육, 농업, 사회개발 분야에서 선진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궁극적으로 일본은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이웃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일본을 이해하도록 하여 상호간의 우정어린 파트너십을 쌓도록 하는 데에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다. 2차 대전의 전범이자 패전국으로서 특히 아시아 모든 국가로부터 강한 불신과 배척을 받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아들과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한 인식의 전환인 셈이다.

이 프로그램에 초대되는 청소년들은 일본에서 한달 가량 원하는 전문 영역에서 학습과 연구를 위해 배치된다. 사업 초기에는 초청 기간이 4-10일 정도였지만, 몇 년 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하에 점차 그 기간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전문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일본 청소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세미나에 참가하고 주로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선하는 홈스테이로 머물게 된다. 또한 이들은 상호간의 문화 이해를 위한 지방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상호 신뢰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 ASEAN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점차 일본을 방문하려는 청소년의 수와 단체가 늘어가면서 이들 이웃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발전되었다. 범위는 점차 확대되

3) 이 글은 <http://www.jica.go.jp/english/activities/schemes/02you.html>에서 본 글의 취지에 따라 요약 편집하였음.

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평양 소국을 포함하는 동남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되었다.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100 여개의 회원국에서 약 1,600명 정도가 일본을 방문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1999년 현재까지 일본을 방문한 청소년의 숫자는 약 18,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은 JICA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활동 범위는 전국적으로 특히 동경과 오사카 같은 국제도시에서는 전문 영역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양호하다. 일본어 습득, 함께 거주하면서 받는 세미나에 일본 청소년들과의 의견 교환 시간, 그리로 지역 프로그램들은 대개 일본의 주관적 운영이고 일본풍 일색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다른 나라 전통 이벤트, 축제, 시민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자들의 이해와 시각에 대하여도 토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외국의 청소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의 청소년들에게도 서로 외국의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익히게 하며 상호간의 문화와 다양한 민족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적 공감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은 18-35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층이며,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은 28일 소요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동창 모임을 발전하며 특히 ASEAN 회원 6개 국가 출신의 청소년들은 일본에서 벌이는 특별 국제사회사업활동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이들의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우정의 밤 등의 행사로 이들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아프터케어(Aftercare)』라고 한다.

JICA는 아프터케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매학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즉 JICA는 자신들의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 청소년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그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일본의 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중재하고 이를 매개로 양국간의 또는 양 자치단체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또한 초청 받은 청소년들이 자국에 돌아가면 일본 체류시 머물렀던 호스트 가정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중재한다. 물론 호스트 가정과 긴급한 경우 프로그램 진행시 보다도 훨씬 우위가 돈독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JICA가 주선한다. 일 예로, 파프아 뉴우기니아에 지진이 터졌을 당시 JICA는 파프아 뉴우기니아 출신의 청소년이 일본에 초청되어서 거주했던 호스트 가정으로 하여금 파프아 뉴우기니아의 지진 구조 활동을 위한 모금을 하도록 중재하였다. 따라서 JICA의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자체 만으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그 외에 이러한 애프터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잠재력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이처럼 외국청소년 및 대학생 초청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외국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일본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인 일본, 친절한 일본인의 이미지를 세계 각국의 손님들에 알려 과거 일본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서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한 몫을 해 내는 외국 청소년 초청 사업은 그만큼 투가 가치가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외국 청소년 초청 사업에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어차피 많은 일본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유학 보내서 어학 연수를 시키기 위해 유출하는 외화와 인력자원 차원에서의 국력 낭비 등을 따져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일본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려는 용기를 심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대변할 수 있는 우방인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청소년 초청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카가와현에서 추진하는 외국 청소년 초청 사업이 있다. 카가와현의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업을 위해 청소년 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외국 청소년들과 일본 청소년들간의 국제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의 국제교류과에서 주도하는 해외기술 연수원 수용 사업도 외국 청소년 초청 사업에 해당된다. 또한 여성·청소년과, 의무교육과 그리고 고교교육과에서 연계하여 협력 운영하는 어학 연수 및 지도 프로그램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현에서 자신의 행정력을 활용하여 직접 주관하는 사업에 해당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관장하는 경향이 관-민 협동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즉 1998년부터 현의 프로그램들은 차츰 민간 재단인 카가와현의 「국제교류협회」에서 맡아 운영하는 관-민 협력 체제로 바꾸어 가고 있으며, 현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② 『일본 청소년 파견사업』 프로그램⁴⁾

일본 청소년 외국 파견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 파견(The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JOCV)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원칙적으로 JOCV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개발 도상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2년을 보내게 된다. 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은 7가지 영역으로서 농업, 임업, 어업, 계몽, 공공 건강 보호, 교육과 문화, 스포츠 영역으로 약 160가지의 직업 영역이다.

4) 이 글은 <http://www.jica.go.jp/english/activities/schemes/01tec.html>에서 본 글의 취지에 따라 요약 편집하였음.

JOCV 프로그램들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의 수는 26명으로 라오스에 5명, 캄보디아에 4명, 필리핀에 12명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5명이 파견되었다. 1998년에는 파견국이 카자흐스탄, 버마나, 파소,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등으로 확대되면서 1999년 3월말까지 파견국은 총 71개국으로 늘었다. 2000년도에는 중동의 터키, 극동의 벨리제(Belize)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의 성 빈센트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1998년 1,12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되었으며, 1999년 3월말에는 2,288명의 자원봉사자가 59개국의 166개 영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18,853명이 파견되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현지에서 일을 경험하고 문화를 체험했다.

파견자들은 일반자원봉사자, 숙련자원봉사자, 단기임시자원봉사자 그리고 비상근 업무조종자로 구성된다. 최근에 여성 봉사자들의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1999년 3월말 통계에 의하면 JOCV의 49%가 여성이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비하면 약 33%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일반적으로 2년간을 현지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이는 1년 동안의 체류 기간동안 뚜렷한 봉사 실적과 의지가 보일 경우에 한한다. 실제로 난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만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1999년부터는 1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1999년 현재 단기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15명이 12개국에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숙련자원봉사자들은 이전에 JOVC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서 JOCV의 테스트에 의하여 경험과 숙련성을 공인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다시 한번 이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상대 국가에서 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같이 노련한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은 UN의 자원봉사대원으로 파견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희망자는 일본 전역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단체/기관의 협조 하에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선발된다. 선발 과정은 일차와 이차로 나뉘어지는데, 일차 선발 기준은 영어 쓰기 테스트, 전문 기술 수준, 적성 테스트 그리고 의료 건강 진단이며, 이차 선발 기준은 전문 기술 능력에 대한 인터뷰, 개인 인터뷰 그리고 건강 진단이다.

참가자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파견 전에 80일간의 사전 훈련 일정을 거치게 된다. 사전 훈련의 목표는 적응 능력의 배양이며, 아울러 이들이 배치되는 현장에서 협동 활동과 삶을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다.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의 학습 코스로 구성된다.

첫째, JOCV의 활동을 강조하는 아이디어와 외국 문화를 다루는 학습 코스

둘째, 파견국의 정치적, 경제적, 삶의 조건에 대한 학습 코스

셋째, 건강, 위생 그리고 청결에 대한 학습 코스

넷째, 안전에 대한 학습 코스

다섯째, 육체 훈련 코스

여섯째, 언어 습득 코스(약 20개국어의 코스가 마련됨)

훈련은 세 지역 즉 동경의 시부야에 있는 히루 JOCV 훈련센터, 후쿠시마 니혼마츠 JOVC 훈련센터 그리고 나고야에 있는 고마카네 JOVC 훈련 센터에서 1년에 세 차례 이루어진다.

훈련 시스템은 보충적인 기술 훈련인데, 이는 실제의 기술 수준과 테크닉을 요구하는 협동 활동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초청국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1998년에는 총 528명의 선발자가 훈련을 이수했으며, 훈련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몇 일부터 9개월까지 다양하다.

특히 전문 직업 영역의 자원활동 분야에서의 훈련은 초청국에서 특별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가적이고 세부적인 영역에서 훈련의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히 숙련자원봉사자들과 전문 영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또한 실제 기술 영역에서의 훈련은 기초 기술 지식 수준 테스트에 합격한 자들에게 해당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 훈련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와 조건을 더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개별지원 사업이 그것인데 이는 파견 전 사전 훈련 시부터 파견 후까지 지속되는 업무로서, 첫째, 기술적 자문 시스템, 둘째, 자원봉사자의 건강 돌보기, 셋째, 손실 보상 시스템, 복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 및 진로 자문 시스템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술적 자문 시스템은 특별 영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지 자문단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자원봉사 파견자들에게 현지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대하여 계속 자문한다. 또한 건강 돌보기 지원을 위해서는 파견 전 사전 훈련의 기간부터 파견 후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파견자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체크한다. 만약 몸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즉시 일본 정부와 상의하여 귀국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손실보상 시스템은 의술 치료와 이송 같은 업무를 말하는데,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즉각 일본으로 귀환시키거나 해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진로 자문 시스템은 자원봉사활동이 종료된 이후 이들이 귀국하여 원래의 생업으로 복귀할 때 아니면 직업을 바꿀 때 직업 진로 상담에 대한 지원은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미래 진로 지도 및 교육은 문부성과 협조하여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공 단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수행된다.

1997년 일본으로 복귀한 1,118명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1998년 말까지 864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는데, 원래의 직장으

로 돌아간 사람이 242명이었고, 459명은 다른 직장에 취업되었으며 145명은 자신의 학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진로 선택을 했다. 특히 해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일본 복귀 후 자신의 원래 직업을 도의시하는 경향이 높다. 왜냐하면 복귀자들은 활동 후 자신의 복직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JICA는 이들이 원래 자신의 직업으로 복귀하는 것을 본인에게도 권장하고 원래 직장에도 중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귀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JICA는 이들에게 새로운 진로 지도 및 직업 알선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일 예로, 1998년 203명의 구직자들 중 4명은 민간 서비스 요원으로, 106명은 지방 정부 공무원으로, 1명은 정부 에이전시에 그리고 92명은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이밖에도 JOCY는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일을 수행한다. 다음 활동들은 JICA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의 이해를 부추이기 위해 수행되는데,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것을 바라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프로젝트와 다른 간행물의 준비, 둘째, 교육 기자재의 개발과 편집 계획, 셋째, 월간 정기 간행물 "Crossroads"의 발행, 넷째, 격월간인 "JOCV New"라는 뉴스레터의 발행, 다섯째, 매스컴과 미디어 영역과의 연계를 위한 자료 배포, 방학을 활용한 고등학생들의 JOCV 파견 계획 등의 업무가 그것들이다. 특히 고등학생 파견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30명의 학생이 오키나와, 네팔, 후쿠시마, 필리핀, 이바라키, 말레이시아에 파견되어 활동했다. 1999년 JOCV 활동을 위한 ODA 예산은 195억엔인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4.6%가 증가한 액수이다. 이는 JOCV 정규 자원봉사자 1,350명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이다. 해외 파견도 100명은 허가된 셈이다.

오늘날 JOCV는 특별한 전문기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 국제자원봉사자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봉사활동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또

한 WHO 같은 유엔 조직이나 국제 기구들과 협조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파견 희망자들을 모으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0년은 JOCY의 창립 35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1년은 UN이 정한 국제 자원봉사의 해이다. 따라서 JOCY는 보다 분주한 시기를 맞이하여 활동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

(3) 기타 교류 프로그램

① 한국과의 청소년교류 사업 : 자매결연 자치단체(市) 간의 교류

대부분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국과의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서울시와 동경도(1989년), 울산광역시와 야마구찌현 하기시(1968년), 충남 공주시와 야마구찌현 야무구찌시(1993년), 경남 남해시와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1992년), 경북 포항시와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1976년), 경기도 부천시와 카나카와현 카와사키시(1991년), 강원도 동해시와 후쿠이현 츠루가시(1976년), 강원도 속초시와 툇리리현 요나고시(1994년), 경기도 광명시와 카나카오현 사가미하라시(1996년)가 자매결연을 맺고 양국간 정기적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류 수단으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병술, 1999: 77-80 참고).

서울시와 동경도간에는 고교생 단기 유학사업과 아동서화전 스포츠 대회 참가 등의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고교생 유학사업은 1989년 10월 동경도에서 서울시로 고교생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매년 고교생 상호방문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양시에 거주하는 고교생의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상대국 문화, 역사, 관습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약2주일에 걸쳐 상대 도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 학교생활, 사저지 탐방 등을 통하여 서로의 생활과 관습에 대한 체험기회를 갖게 하는데 있다(이병술, 1999: 77).

경남 남해시와 후쿠오카현 무나카다시간의 교류는 매년 2회(1월, 9월)에 매회 21명씩 3박 4일간 교환 방문하여 학교 수업의 참여, 유적지 견학 그리고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병술, 1999: 78). 경북 포항시와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간의 교류 중 「어린이 대사」라는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부터 장래 지역을 선도할 학생들간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단체 위주로 매년 여름 방학 때 자녀 홈스테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가 이어져 오다가 1997년부터는 공식적인 방문단을 구성하여 매년 여름방학시 상대도시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하여 가정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병술, 1999: 78).

강원도 동해시와 후쿠이현 츠루가시간의 교류는 자매도시간의 우호 증진과 청소년들에게 외국의 문화, 역사, 언어, 풍습 등을 접하게 하여 장차 국제화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매년 초등학교 6학년 교류단 20명을 선발하여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이병술, 1999: 79). 이들은 교류 도시의 역사, 문화유적의 탐방, 문화예술의 연구, 학교방문, 홈스테이 등 상대도시의 풍습을 직접 체험하는 산 교육의 현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는 어린이들간의 우의 증진과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특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방법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 예로, 오사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외국청소년초청사업(JET 프로그램),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고교생 주장 콘클 오사카 대회 및 비디오 세계문화모임, 해외수학여행, 해외대학생 유치 교류 사업, 청년해외협력 파견사업, 오사카 부립 대학과 해외대학과의 교류, 오사카국제교류위원회를 통해 국제교류단체인 「관서국제교류단체협의회」지원, 국제이해 연구 및 보급제발활동을 통한 인터 커뮤니카 오사카, 국제관광에 관한 정보제공(Meet Osaka 발행), 오사카국제교류재단 운영, 오사카학생회관운영, 재 오사카 외국 청년과의 교류캠프, 국제청소년·소녀 합창제 오사카, 긴끼

청년 해상 대학 운영, 제일 한인 중학생과 일본인 중학생과의 우호 친선 축구대회, 환태평양 지역 청년 교류 사업, 총무청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지원, 오사카부 고교생 중국 파견사업, 오사카부 캘리포니아주 고교생 교류 사업, 청소년국제교류자원봉사뱅크, 위킹 홀리데이 제도 운영 등이 들어 있다(이병술, 1999: 80-84 참고). 이러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홈스테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청년초청사업, 해외대학생 유치 교류 사업, 환태평양 지역 청년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홈스테이는 핵심 프로그램이다(이병술, 1999: 84).

결국,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과의 불편한 국제 관계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의 시 또는 도와 자매 결연을 맺는 방식으로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에 대한 역사 논쟁이나 정치적 해결 대신 자라나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이들에게 일본인들의 친절성 등 좋은 점들을 일상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한국인들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하자는 전략도 들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양국간의 청소년 교류는 결국 일본은 투자적-적극적 입장이고 한국은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도 시대적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모든 비용과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면 굳이 이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외국인 초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한일 자매시간의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은 과거 한일 관계의 정치적-역사적 미묘한 관계의 차원에서 보면 구구한 해석을 더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위한 홈스테이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차원의 평가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아시아 청소년 교류 : 장학생 프로그램

1975년부터 아시아 청소년 교류를 위해 시작된 「JAL SCHOLARSHIP PROGRAM」은 그 동안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21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한국지구에서는 1981년부터 72명의 장학생에게 일본유학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1999년도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은 7월 19일(월)부터 8월 25일(수)까지 총 38일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초빙 학생은 총 36명으로 한국지구의 선발 인원은 4명이다. 선발 대상은 현재 대학 재학중인 3, 4학년생으로서 건강하고 밝으며 협조심이 강한 학생으로 하며 지원자는 소논문과 면접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프로그램의 중점 내용은, 첫째, 일본어 회화 수업, 일본이해 강좌, 문화교류, 홈스테이 활동, 과외활동 등 ‘일본견학’의 단계에서 일본이해, 상호이해로 비중을 옮겨 일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둘째, 각 지역 대학에서 실시하는 「사전학습」 합숙세미나에 참가, 일본학생과 숙식을 함께 하며 테마에 대한 공동학습과 의견교환을 통해 동 세대간의 교류 및 지방 도시 교류를 도모하며, 셋째, 일본측 참가학생들도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넷째, 심포지엄 「아시아 포럼」에서는 지식인의 기초연설과 학생들의 사전학습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며 테마에 대한 모든 제안을 인식하는 의미에서 JAL 장학생들과 일본인 학생이 주최가 되어, 테마에 대한 의견교환, 토론을 통하여 제안을 총 정리하는 형식의 「학생회의」를 목표로 한다. 여기서 동경 및 지방도시로 이동하면서 실시되는 홈스테이 활동은 일본 체험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아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본의 일반 가정에 체류하도록 하면서 일본의 일상체험에서 문화체험까지의 직접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과거 역사의 뼈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아시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배풀음이자 화해의 채스추어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아시아의 맹주로서 세계화를 추구하려는 일본의 새로운 전략일 수도 있다. 즉 장학생으로 선발된 외국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일정기간 일본 체류와 일본에

서의 모든 일정을 책임지는 한편, 초청된 외국의 장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을 보다 잘 알게 하고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는 민족간, 국가간의 화해와 용서 또는 민족간의 상호 이해 및 상호 사랑을 통한 민족애, 인류애의 실현이라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업을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요청되는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평가도 할 수 있다.

③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오늘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다른 외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제도는 일정 기간의 휴가를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체류기간 동안에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워킹 홀리데이를 위한 비자로 풍속 영업 또는 풍속 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일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직종에는 주로 휴가를 보낼 목적으로 또는 일본 체제 중에 체제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다. 주로 휴가를 보내면서 여러 방면으로 견문을 넓히고 상대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해 최장 1년간의 체제와 그 체제 기간 중에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 제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1999년 4월부터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한국과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로 최장 1년 간 일본에 체제하는 주목적이 애초부터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위한 비자가 필요하며, 오로지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워킹(취업)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워킹 홀리데이를 위한 비자와 워킹 비자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데, 즉 워

킹 홀리데이를 위한 비자로 일본에 와서 처음부터 일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허가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 요건은 대개 비슷한데 상대국과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일 예로,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허가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 요건은, (1)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일 것, (2) 주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 (3) 비자 발급 시 원칙적으로 만18세 이상 만25세 이하일 것(단, 예외적으로 만30세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음), (4)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5) 유효한 여권 및 귀국을 위한 티켓 또는 티켓을 구입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6) 건강할 것 등이다

선발 인원은 전 세계인 대상으로 매년 총 천명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으며, 제도의 운용상황을 검증해 가면서 그 인원수를 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워킹 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한 자는 호주인이 1,037명, 뉴질랜드인이 394명, 캐나다인이 858명에 달하고 있다.

3.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평가의 의미

1) 평가의 의미

평가란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리는 일종의 가치판단 행위이다. 평가의 의미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리는가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또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국제교류사업의 평가라 함은 국제교류사업을 대상으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린다는 의미이다.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평

가할 것인가? 평가의 주체는 사업수행 주체 자신, 내부자가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사업수행 주체가 아닌 외부자가 평가하는 외부평가가 있다. 본 장의 1절에서 밝힌 바 국제교류사업의 수행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하다. 이들이 수행하는 국제교류사업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누가 평가할 것인가의 평가주체 문제는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즉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어떤 점에서 제기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의 주체도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뚜렷한 정책적 지표 하에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기보다는 한정된 제원 내에서 그 업무 담당직원이 자신의 지식과 사고 범주 내에 구상되는 사업아이템에 따라 수행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어떤 것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서 타당한 것인 지, 그렇지 않은 것인 지의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자의적으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현실이 이러할 때 현실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 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평가기준, 즉 일종의 자가진단 기준이다. 국가는 국가 스스로 자체 추진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추진사업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서 가치를 지닌 것인 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가의 의미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수행주체 스스로 해당 사업의 가치를 점검하는 것이다.

2) 평가기준의 설정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 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려이다. 평가기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주체가 자신이 수행하려고 하거나 수행한 사업을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이다. 이러한 준거는 수행주체의 역할과 기능과 밀접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국가나 사회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방식이 다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2절에서 살펴본 바 유럽형 청소년교류정책은 국가주도형 복지 및 지원모형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 정부는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간 협의 하에 분명한 교류목적과 교류내용이 수반되는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한 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역할을 한다. 북미형 청소년국제교류 모형은 공신력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제교류사업을 주도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여 국제교류센터 등 국제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는 관-민 협동형 모델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사회의 정책여건과 환경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기능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언어적 환경, 지리적 요인 등 국제교류환경은 유럽, 북미지역보다는 일본과 유사하다. 유럽이나 북미지역은 언어나 지정학적 위치 자체로 국제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나 일본과 한국은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제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국가가 국제화 및 국제교류를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좀 더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실제환경과 현실여건의 고려이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청소년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전담인력과 예산은 미미

한 수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평가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현실여건을 무시한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의 적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평가기준은 현재 사업여건 하에 필요하면서도 현실의 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교류사업 수행주체별 역할과 기능

(1)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청소년국제교류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의 대외관계와 미래지향적 발전전망에 기초해서 청소년국제교류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 프로그램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청소년국제교류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법제 정비 및 정책수립이다. 청소년국제교류의 근거 법을 정비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대외관계형성을 위한 청소년국제교류의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및 협력체계 구축이다. 청소년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정비 및 관련부처나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구축이다. 청소년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담조직 뿐 아니라 정부부처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부와 민간단체 간 등 관련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국제교류재단(또는 센터), 정보망 등 청소년 국제교류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전문인력 양성·훈련 및 확보 등 국제교류기반의 조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이다.

넷째, 청소년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애로와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청소년의 국제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실현해 가도록 지방의 청소년국제교류 육성 사업을 실시한다.

다섯째, 민간단체의 현실을 파악하여 민간의 청소년국제교류를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실행 부서가 아닌 정책입안 및 집행부서로서 민간단체를 선도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청소년국제교류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민간단체의 애로와 요구를 수용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를 육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청소년국제교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주민 및 지역 청소년의 국제화와 의식 수준을 선도하고 국제화 시대에 요청되는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 청소년을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국제교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 지역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간단체를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등 청소년국제교류를 수행하는 지역단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회성 사업보다는 민간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국제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나 누가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자원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제교류사업의 개발, 모든 집단의 청소년이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균형 등이 필요하다.

Ⅲ.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 및 평가

1.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체계 분석
2.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 분석
3.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사례분석
4.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평가

III. 국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 및 평가

1.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체계 분석

1)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법제 현황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과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이 있는데, 법의 취지에 따라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국제교류의 대상으로 국내·외 교류의 진흥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기본법과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문연구 및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유학 및 연수를 주요 내용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서는 국제 이해와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와의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해외 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을,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수, 봉사 등 다양한 교류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청소년 교류 관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교류에 대해서 제9조(청소년교류의 진흥 등) ①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②항에서는 국가는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전체 청소년들의 국내·외 교류의 진흥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③항에서는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서 자비유학, 국비유학, 국비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한국과 외국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1조), 이를 위해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제6조)고 하여 국제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야 할 것과(제1조), 재외동포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사업을 행해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는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인력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 및 훈련, 전문인력 파견(전문가, 의사, 태권도 사범 등), 해외봉사단파견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공여사업, 프로젝트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제7조).

2)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부조직 및 기능, 주요 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된 정부 부처로는 외교통상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이 있다.

① 외교통상부와 관계기관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국의 홍보과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교관계를 활용하여 청소년교류약정 체결업무에 대한 협조·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서는 국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의 3개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간 우호 친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조성 및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첫째,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향상 지원사업으로 동포사회에서 주축하는 각종 행사와 차세대 단체 육성 지원, 노인회관이나 사할린동포 영구귀

국사업과 같은 동포 숙원사업 지원, 거주국 내 법적 지위 및 인권 향상 노력 지원, 거주국 주요인사 초청 등을 하고 있다. 둘째, 민족문화 및 민족정체성 유지사업으로서 재외 한글학교 운영 지원, 재외동포 초청행사 개최, 재외동포사회 방문공연 개최, 재외동포 모국유학 장학생 초청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동포간 교류장화사업으로서 한국을 빛낸 동포의 모국 방문초청, 내외동포 간 정보·통신 교류 확대 등이 이에 속하며, 넷째,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연구사업으로서 재외동포사회 실태 조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용역 의뢰 및 연구활동, 행사지원 사업 등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연수생초청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료단, 태권도사범 등 전문인력파견과 함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3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적인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일 청소년교류네트워크포럼 사업이 있다. 재외동포재단 사업으로는 재외동포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재외동포교육지원사업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

② 교육부와 관계기관

교육부에서는 국제교육협력관실 내의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재외동포교육담당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에서는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교육분야 대외개

방 총괄 및 국외 교육 관련 정보·자료 수집, 교육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 추진, 국외 한국학 연구진흥 및 한국학 보급,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운영지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등의 일을 수행하며, 재외동포교육담당관에서는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국내유학 외국인의 관리,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국내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계획의 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지원, 귀국자녀 교육지원,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지원,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 지원, 해외주재 교육관 및 공무원의 국외 파견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국제교육진흥원(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을 두어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교류 및 협력, 교원 및 대학 등의 국외연수, 국비유학생 선발 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③ 행정자치부와 관계기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연구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심사평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협력업무추진에 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협력업무추진에 관한 지도가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각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화를 이끌 인재 육성, 해외 정보 관리 및 자료 제공, 국제교류지원사업, 국제통상업무 지원, 해외사무소 및 해외명예주재원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④ 문화관광부와 관계기관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국 내의 청소년지원과에서 청소년교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협력,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교포 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등 청소년 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를 두고 있는데, 청협에서는 국제교류사업으로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의 회원국으로서 UN 등 각종 국제기구 주최의 청소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에 대표 파견, 한국에서의 국제행사 개최, 세계 각국과의 정기적, 비정기적인 청소년 및 지도자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부 부서 및 그 산하기관을 종합해 보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 업무	담당 부서	산 하 기 관
외교통상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지원 및 청소년 등 인적교류관련 업무 등	문화외교국 홍보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 등	국제교육협력관실	시, 도교육청 국제교육진흥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대외협력 업무추진지도 등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개발·운영 등	청소년지원과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3)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998년도에 마련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의 목적을 개방화·정보화로 특징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을 세계로 향하여 열린 마음의 국제 감각을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서 첫째, 국가간 교류를 다변화·다양화하여 청소년들의 시야를 확대하고 직·간접 경험을 확대하며, 둘째, 한정된 소수의 청소년에게 교류가 집중되지 않도록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산하며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며, 국가주도형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의 문제를 보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첫째,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청소년상 확립의 차원에서 국제청소년회의 등의 청소년대표 참여 확대, 취업·관광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의 추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와 해외체험 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의 확대, 다변화를 꾀하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의 발굴 및 참여, 아세안 내 국가와의 청소년 정기교류 추진, 정례적인 국제청소년행사의 내실 있는 개최,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간접체험 프로그램 개발, 추진, 다양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국내의 연수 등의 추진,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정보교류 기반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청소년단체의 청소년 교류역량 강화, 청소년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증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문화관광부, 1998:114~127).

4) 청소년 국제교류관련 예산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예산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지난 5년간 청소년사업 예산을 보면, 예산은 국고와 청소년육성기금,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는데, 1996년도에는 762억 원이던 것이 1997년도에 98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7년도에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조성공사, 국립평창수련원 건립공사, 국제청소년센터 건립공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998년도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여 2000년 현재에는 767억 원으로 1996년도와 같은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표Ⅲ-2> 참조). 2000년도 예산의 감소는 국립평창수련원 및 국제청소년센터 등 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IMF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와 민간의 시설투자 감소 등으로 공공 및 민간수련시설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Ⅲ-2> 청소년사업의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국 고	409	556	372	318	270
기 금	163	208	272	317	208
지방양여금	190	216	199	204	265
계	762	980	843	839	767
증 감 (%)		218 (28.6%)	△137 (△14.0%)	△4 (△0.5%)	△72 (△8.6%)

출처: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 내부자료(2000.12)

청소년교류 예산을 보면, 지난 4년간 예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즉, 1997년도에 1,637백만 원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0년 현재에는 933백만 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표Ⅲ-3> 참조). 전체 청소년 예산의 감소율과 비교하여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III-3> 청소년교류의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국 고	917	485	350	500
기 금	720	638	632	433
계	1,637	1,123	982	933
증 감 (%)		△514 (△31.4)	△141 (△12.6)	△49 (△5.0)

출처: 문화관광부, 주요업무추진계획, 1997,1998, 1999.

2000년 예산은 문화부 내부자료.

5) 청소년 국제교류 전담조직 및 인력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국제교류 인력은 1999년까지는 청소년교류과에서 전담하고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청소년지원과에서 청소년교류업무를 맡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 인원을 보면, 1999년도에는 청소년교류과가 8명이었으며, 2,000년 현재에는 청소년지원과가 12명으로 편성되어 있

<표III-4> 문화관광부 청소년 인력 변화

		1997	1998	1999	2000
조직		1실 1심의관 4과	1실 1심의관 4과	1국 3과	1국 3과
인원	정원	48	43	34	34
	현원	48	43	34	34
과별인원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시설수련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시설수련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기획과 11명 청소년수련지도과 14명 청소년교류과 8명	청소년정책과 12명 청소년지원과 12명 청소년수련과 10

다. 청소년 지원과는 99년도 청소년수련지도과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았다. 이 중 교류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실질적으로 4명으로 99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실정이다.

2.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 분석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유형별 실태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분류

국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란 국가 간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이나 어떤 형태이든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을 일컫는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유네스코의 사업 분류를 소개한다. 청소년백서에 나타난 문화관광부에 의한 국제교류사업의 분류는 매년 약간씩 변화해 왔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다음의 분류 틀을 따르고 있다.

- ① 국가 간 청소년정기교류이다. 이는 양국 청소년 담당부처간 협정이나 청소년관련단체·기관 등의 상호 합의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에겐 정부간 교류와 단체간 교류가 포함된다.
- ② 청소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다. 여기에는 청소년국제기구 참가나 학술회의 참가 등이 포함되어 왔다.
- ③ 청소년국제행사 개최이다.
- ④ 해외연수이다. 청소년 및 지도자의 해외파견 및 연수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가 1999년도부터는 국가 간 정기교류, 단체의 청소년교류

에 대한 지원, 청소년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가 간 정기교류에는 정부간 교류, 아세안 교류, 단체간 교류가 포함되며, 단체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지원에는 외국청소년 국내초청 교류와 한국청소년 해외파견교류가 포함되며, 청소년국제기구와의 협력에는 국제기구 참가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는 다소 전진된 형태이다. 국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국가 간 정기교류 사업과 단체지원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집중화시키면서 국가의 국제교류사업의 영역을 보다 확실히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1996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청소년국제교류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청소년교류, 청소년연수, 국제회의, 국제행사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 분류로 파견사업과 초청사업을 구분하며, 여기에 사업의 주관주체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사업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수행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국가 간 교류사업, 국가지원 교류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국가 간 교류사업에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정부간 교류사업만이 포함된다.

국가지원 교류사업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었다.

- ㉠ 정부간 협력사업: 국가 간 교류사업은 아니지만 상대국과 정부차원에서 협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 ㉡ 민간위탁사업 : 문화부 목적 사업으로서 민간에 위탁되어 수행되는 사업
- ㉢ 국제기구 협력사업 :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나 회의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 ㉣ 민간단체 지원사업 : 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 ㉠ 지도자 교류사업 :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 ㉡ 교류기반 조성사업 :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훈련, 정보망 구축 등에 지원되는 사업
-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2) 국제교류사업 유형별 실태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주요 업무추진계획 상에는 사업에 대한 어떤 유형 분류 없이 단위사업별로 명기되어 국제교류사업이 제시되고 있다.⁵⁾ 본 연구는 문화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의 사업명을 국가 국제교류사업의 기본단위로 삼았다. 정부간 교류사업은 유네스코의 청소년 교류 중 정부주관 사업을 기초 데이터로 삼았다. 국가지원 교류사업은 유네스코 자료에는 순수 민간단체 사업과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문화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명기된 사업을 기초 데이터로 삼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본 연구의 분류 틀에 따라 <부록1>과 <부록2>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업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부록1>과 <부록2>를 기초로 국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 지원 국제교류사업의 변화를 보면, 사업 수가 1996년에 25개 사업이던 것이 1999년에는 26개까지 증가했었으나, 2,000년 현재에는 17개로 축소되었다. 사업 유형을 보면 1997년까지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정부간 협력사업, 지도자교류사업, 기반조성사업, 지자체지원사업 등이 있었으나 2,000년 현재에는 국제기구협력사업(1개), 민간단체

5) 문화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1997, 1998, 1999)와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2000년도 시행계획(2000) 참조.

지원사업(14개), 정부간 협력사업(1개), 지도자교류사업(1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5> 국가지원 교류사업의 유형별·연도별 변화

단위 : 사업수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국제기구협력사업	4	4	3	3	1	15
민간단체지원사업	16	14	11	18	14	73
정부간 협력사업	1	3	1	2	1	8
지도자교류사업	2	2	1	1	1	7
기반조성사업	1	1	1	2	-	5
자자체지원사업	1	1	-	-	-	2
계	25	25	17	26	17	110

2) 국제교류사업의 지속성 분석

지난 5년 간 정부간 교류사업의 지속성을 분석해 보면, 총 13개 사업 중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5개 사업이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4개, 그리고 신규추가되어 2000년까지 지속된 사업은 2개, 중단된 사업은 2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정부간 교류사업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표 III-6> 정부간 교류사업의 지속 실태

단위: 사업수

구 분	5년 동안 지속된 사업	신규추가되어 2000년까지 지속된 사업	중단된 사 업	5년 이내 간헐적인 사업	계
계	5	2	2	4	13

그러나 국가 지원 사업을 보면, 총 41개 사업 중 5년 동안 지속된 사업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추가되어 2000년까지 지속된 사업은 9개였으며, 중단된 사업은 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국가 지원사업은 정부간 교류사업보다 지속성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7> 국가 지원 교류사업의 지속 실태

단위: 사업수

	5년 동안 지속된 사업	신규추가되어 2000년까지 지속된 사업	중단된 사업	계
정부간 협력사업	-	1	3	4
지자체 지원사업	-	-	1	1
민간단체 지원사업	6	8	14	28
지도자교류 사업	1	-	1	2
기반조성 사업	-	-	2	2
국제기구 협력사업	1	-	3	4
계	8	9	24	41

3) 수행주체 분석

(1) 국가와 민간단체의 분담실태

국제교류사업을 수행주체별로 파악해 보면, 지난 5년 간 국가에서 수

행한 사업은 43개였고, 민간에서 수행한 사업은 110개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6년에는 국가 주최 사업이 10개, 민간 주최 사업이 25개였던 것이, 계속해서 변동을 보여 2,000년 현재에는 국가 주최사업이 11개, 그리고 민간 주최사업이 17개로 국가 주최 사업은 증가하였으나 민간 주최사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주최사업은 1999년에 비해 9개 사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국제교류사업의 수행주체별 사업 수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국가	10	8	6	8	11	43
민간	25	25	17	26	17	110
계	35	33	23	34	28	153*

* 사업 총수에는 정부간 교류와 국가지원 국제교류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임.

(2) 국가지원사업의 위탁단체 실태

국가지원 교류사업을 위탁받는 단체를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YMCA, YWCA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연맹회원단체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순수 국내단체, 그리고 국내단체와 국제연맹회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로 파악해 보면, 지난 5년 간 국제연맹회원단체에서는 43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국내단체는 55개 사업을, 그리고 공동주관으로는 2개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10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6년도에는 국내단체에서 14개 사업을 수행하여 가장 많았으나 2,000년 현재에는 국내단체에서는 4개 사업만을 수행하였고, 국제연맹회원단체에서 11개 사업을 수행하여 국제연맹회원단체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국가지원 교류사업 위탁단체별 사업 수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국제연맹회원단체	8	8	4	12	11	43
국내단체	14	15	12	10	4	55
국내·국제연맹 회원단체 공동주관	-	1	1	-	-	2
기타*	3	1	-	4	2	10
계	25	25	17	26	17	110

* 위탁단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로 분류함.

4) 교류상대국 분석

교류사업의 교류상대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일본이 매년 2개 사업씩 총 1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리고 중국,

<표 III-10> 정부간 교류사업의 교류상대국별 사업 수 변화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일본	2	2	2	2	2	10
말레이시아	1	1	-	1	1	4
칠레	-	1	1	-	-	2
중국	1	1	1	1	1	5
몽고	-	-	-	-	1	1
베트남	-	-	-	1	1	2
모로코	1	-	-	1	1	3
러시아	1	-	-	-	-	1
필리핀	1	1	-	-	1	3
핀란드	1	1	1	1	1	5
헝가리	1	-	-	-	1	2
사우디아라비아	1	1	1	1	1	5
계	10	8	6	8	11	43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는 매년 1개 사업씩 각각의 국가와 총 5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4개), 모로코와 필리핀(3개), 칠레, 베트남, 헝가리에서 각각 2개 사업, 그리고 몽고와 러시아에서 각각 1개 사업씩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를 보면 칠레와 러시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교류가 이루어졌었으나 최근에는 교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과는 1999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헝가리와 필리핀과는 한동안 교류를 하지 않다가 2,000년에 다시 교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III-10> 참조).

<표III-11> 국가지원 교류사업의 교류상대국별 사업 수 변화추이

국 가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일본	4	5	4	6	4	22
말레이시아	1	1	-	-	-	2
중국	1	2	-	3	1	7
베트남	-	1	-	-	-	1
호주	-	-	1	-	-	1
태국	-	-	1	1	1	3
미국	-	1	-	1	-	2
러시아	-	-	-	1	1	2
복수국	16	12	9	11	10	58
기타	3	3	2	3	-	11
계	25	25	17	26	17	110

*기타에는 청소년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 세계 청소년 정보망 운영사업 등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됨.

또한 지난 5년 간의 국가지원 교류사업을 교류상대국별로 살펴보면, 복수국으로 수행한 경우가 58개로 가장 많았지만, 단일국가로는 일본이 2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7개), 태국(3개), 미국과 말레이시아,

러시아(2개씩), 베트남, 호주(1개씩)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복수국이 10개 내외로 가장 많았으나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꾸준히 4개 내외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태국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교류가 있어 왔다고 한다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교류는 과거에 교류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Ⅲ-11> 참조).

5) 교류사업 참여집단 분석

지난 5년 간 정부간 교류사업을 참여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청소년 중심의 교류사업이 28개로 가장 많고, 청소년과 지도자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 10개, 그리고 지도자 교류 사업은 5개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청소년 중심의 사업은 1996년에 비해 2배로 증가되어 10개 사업에 이르고 있고, 지도자 중심의 사업은 3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줄었으며, 청소년과 지도자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은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2> 참여집단별 정부간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청소년	5	6	2	5	10	28
지도자	3	-	1	-	1	5
청소년과 지도자	2	2	3	3	-	10
계	10	8	6	8	11	43

또한 지난 5년간 참여집단별 국가지원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 중심의 교류 사업이 77개로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많고, 지도자 중심의 교류사업이 9개,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참여한 사업은 5개로 나타나

고 있다. 기타에는 청소년 단체 임원이 참여한 경우와 분담금 지원 사업, 사무국 지도 활동인 경우, 기반조성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중심의 교류사업은 사업 수가 1999년에 19개로 가장 많았다가 2000년 현재에는 14개로 축소되었으며, 지도자 중심의 교류사업은 2개씩 수행되다가 1개로 축소되었고,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사업은 계속적으로 1개 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13> 참여집단별 국가지원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청소년	16	16	12	19	14	77
지도자	2	2	1	3	1	9
청소년과 지도자	1	1	1	1	1	5
기타	6	6	3	3	1	19
계	25	25	17	26	17	110

6) 재원분석

(1) 재원 성격별 정부간 교류사업 분석

지난 5년 간 정부간 교류사업을 재원 성격별로 살펴보면, 국고 사업이 2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상대국 정부 부담사업이 6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국고 사업은 1996년도에는 9개 사업이었으나 1999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축소되었고, 2000년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대국 정부에서 부담한 사업도 1996년에 1개 사업이었던 것이 2000년 현재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4> 재원성격별 정부간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한국정부 국고	9	6	4	7	-	26
국가기금	-	-	-	-	-	-
지자체	-	-	-	-	-	-
상대국 정부	1	2	2	1	-	6
없음	-	-	-	-	-	-
모름	-	-	-	-	11	11
계	10	8	6	8	11	43

* 2000년 자료는 문화관광부 내부자료를 참조로 하였으나 재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 함.

한편, 국가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수행한 경우가 9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대국 정부에서 부담한 경우가 4개, 기금사업이 3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2개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고의 경우에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996년에 23개 사업에서 2000년 현재에는 14개로 축소되었다.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 1개 사업씩을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1996년에서 1997년까지 1개씩 수행되어 왔으며 그 이후에는 수행되고 있지 않다. 상대

<표Ⅲ-15> 재원성격별 국가지원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한국정부	23	23	15	19	14	94
국가기금	-	-	1	1	1	3
지자체	1	1	-	-	-	2
상대국정부	1	-	-	2	1	4
없음	-	1	-	-	-	1
모름	-	-	1	4	1	6
계	25	25	17	26	17	110

국 정부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1999년에는 2개, 그리고 2000년에는 1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II-15>.

(2) 재원규모 분석

지난 5년간의 국제교류사업을 재원규모별로 살펴보면, 정부간 교류사업의 경우 10,000~30,000천 원 규모의 사업이 13개로 가장 많고, 10,000천 원 미만의 사업이 11개, 30,000천 원~50,000천 원의 사업이 1개, 50,000~70,000천 원의 사업이 1개로, 대부분 30,000천 원 미만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30,000천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1996년에만 실시되었으며, 1997년 이후부터는 30,000천 원 미만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재원 파악이 어려운 2000년 사업 11개와 상대국 정부부담 사업 6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III-16> 재원규모별 정부간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단위 : 천원)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0,000 미만	-	4	3	4	-	11
10,000 이상 ~ 30,000 미만	7	2	1	3	-	13
30,000 이상 ~ 50,000 미만	1	-	-	-	-	1
50,000 이상 ~ 70,000 미만	1	-	-	-	-	1
70,000 이상 ~ 90,000 미만	-	-	-	-	-	-
90,000 이상 ~ 150,000 미만	-	-	-	-	-	-
150,000 이상 ~ 200,000 이상	-	-	-	-	-	-
계	9	6	4	7	-	26

한편, 국가 지원 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5년 간 교류사업 총 94개 중 30,000천 원 미만의 교류사업이 60개나 되었지만, 30,000~50,000천 원 규모의 사업도 20개나 되었으며, 그 이상 규모를 합치면 3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50,000천 원 미만의 사업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고, 70,000~90,000천원 규모의 사업도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중단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실시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 200,000천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자원 규모별 국가지원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0,000천원미만	4	6	5	4	2	21
10,000천원이상~ 30,000천원미만	7	8	4	12	8	39
30,000천원이상~ 50,000천원미만	6	7	3	2	2	20
50,000천원이상~ 70,000천원미만	2	-	2	-		4
70,000천원이상~ 90,000천원미만	1	-	-	1	1	3
90,000천원이상~ 150,000천원미만	2	2	1			5
150,000천원이상~ 200,000천원미만	1	-	-			1
200,000천원이상					1	1
계	23	23	15	19	14	94*

* 이는 한국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 총수임.

7) 프로그램 분석

(1) 초청·파견사업 비중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중 정부간 교류사업을 초청과 파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초청·파견이 병행된 사업이 32개로 가장 많고, 파견사업이 9개, 초청사업이 2개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청사업은 1997년과 1999년에 한해서만 이루어졌으며, 파견사업은 1996년에 3개 사업에서 1997년에는 6

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다가 1998년 이후에는 1~2개 사업만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청·파견사업의 경우에는 1996년에 7개 사업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1개로 가장 적게 수행되다가 그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9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정부간 교류사업의 초청·파견 사업 비중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초청	-	1	-	1	-	2
파견	3	6	2	1	2	9
초청·파견	7	1	4	6	9	32
계	10	8	6	8	11	43

* 당해연도에 초청만 이루어진 사업은 초청으로, 파견만 이루어진 사업은 파견으로 분류했으며 당해연도에 초청과 파견이 함께 이루어진 사업은 초청·파견으로 분류함.

한편, 국가 지원 국제교류사업의 경우는 지난 5년간 총 110개의 사업 중에서 파견사업이 4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청사업이 38개, 그리고 초청·파견사업이 15개로 나타났다. 기타 사업은 11개였는데, 초청과 파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청소년 분담금지원, 세계 청소년 정보망 운영, 청소년국제교류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이 해당된다. 이를 연도별로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청사업은 1996년 이후 7~8개로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며, 파견사업의 경우에는 1996년에 11개에서 199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13개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7개로 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청·파견사업의 경우에는 1996년에 3개에서 1997년에 5개로 증가하였다가 계속 감소하여 2000년 현재에는 2개의 사업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9> 국가지원 교류사업의 초청·파견 비중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초청	8	7	7	8	8	38
파견	11	10	5	13	7	46
초청·파견	3	5	3	2	2	15
기타	3	3	2	3	-	11
계	25	25	17	26	17	110

* 당해연도에 초청만 이루어진 사업은 초청으로, 파견만 이루어진 사업은 파견으로 분류했으며 당해연도에 초청과 파견이 함께 이루어진 사업은 초청·파견으로 분류함.

(2) 활동형태별 교류사업 분석

활동형태별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문화·학습활동 중심의 사업이 4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회의(19개), 야외활동(11개), 기타(8개), 친교활동(7개), 봉사활동(6개), 지원활동(6개), 정보활동(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업은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문화·학습활동은 1996년에 14개에서 계속

<표Ⅲ-20> 활동내용별 국가지원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회의	4	5	3	5	2	19
문화·학습	14	12	9	8	5	48
야외	1	2	2	3	3	11
정보	1	1	1	2		5
친교	2	2	1	1	1	7
봉사	1	1		2	2	6
지원	2	2	1	1		6
기타				4	4	8
계	25	25	17	26	17	110

감소를 보여 2000년에는 5개의 사업만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회의 형태의 사업은 1996년에 4개에서 1999년까지 증감을 계속하다가 2000년에는 가장 적은 2개의 사업만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야외활동과 봉사활동 형태의 사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야외활동은 1996년에 1개 사업이었는데, 2000년에는 3개까지로 증가하였으며, 봉사활동 사업은 1996년에 1개의 사업에서 1999년과 2000년에는 2개의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참가인원별 교류사업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교류 참가 인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간 교류사업의 경우는 지난 5년 간 이루어진 43개 사업 중에서 10~30명 규모의 사업이 1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50명(10개), 70~90명(8개), 10명 미만과 90~150명(5개)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청은 참가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파견은 한국학생을 참여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000년에 10~30명, 그리고 30~50명 규

<표III-21> 참가인원별 정부간 교류사업

단위 : 사업 수

참 가 인 원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0명 미만	1	2	1	1	-	5
10명 이상 ~ 30명 미만	4	3	2	2	4	15
30명 이상 ~ 50명 미만	3	1	-	2	4	10
50명 이상 ~ 70명 미만	-	-	-	-	-	-
70명 이상 ~ 90명 미만	1	1	2	2	2	8
90명 이상 ~ 150명 미만	1	1	1	1	1	5
150명 이상	-	-	-	-	-	-
계	10	8	6	8	11	43

모의 사업이 각각 4개로 총 11개 중 8개 사업을 차지했으며, 1996년 이후 가장 많은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지원 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간 교류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 간 이루어진 총 110개의 사업 중에서 10~30명과 30~50명 규모의 사업이 각각 25개와 2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0~150명, 그리고 150명 이상 규모의 사업도 각각 12개, 14개로 대규모의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기타는 인원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지원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연도별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2> 참가 인원별 국가지원 교류사업

참가 인원	단위: 사업 수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0명미만	2	3	1	3	2	11
10명이상~30명미만	6	6	4	7	2	25
30명이상~50명미만	4	6	4	4	3	21
50명이상~70명미만	3	2	-	3	2	10
70명이상~90명미만	1	1	1	-	1	4
90명이상~150명미만	3	1	2	3	3	12
150명이상	2	2	3	3	4	14
기타	4	4	2	3	-	13
계	25	25	17	26	17	110

(4) 교류시기 및 기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참가시기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간에 이루어진 국가 간 교류사업 총 43개 사업 중 7~9월이 11개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며, 10~12월(5개), 4~6월(3개)의 순으로 나타나, 방학시기, 특히 여름방학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는 여러 기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하고 있다. 연도별로 사업 시기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7~9월에 매년 2~3개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12월과 4~6월은 거의 매년 1개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참가시기별 정부간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참 가 시 기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월 ~ 3월	-	-	-	-	-	-
4월 ~ 6월	1	-	1	-	1	3
7월 ~ 9월	3	2	1	2	3	11
10월 ~ 12월	2	1	-	1	1	5
기타*	4	5	4	5	6	24
계	10	8	6	8	11	43

* 기타에는 특정시기가 아닌 여러 기간에 걸쳐거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류됨.

국가지원 교류사업의 경우에는 총 110개 사업 중에서 7~9월에 42개로 가장 많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38개, 10~12월에는 18개, 그리고 4~6월에 10개로 나타났고, 이 밖에도 정부간 교류사업과는 달리 1~3월에 2개의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7~9월이 가장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그동안 등락 폭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10개 이상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10~12월에는 1996년에 4개의 사업이던 것이 1999년에 5개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2개로 가장 떨어졌다. 4~6월의 사업도 1996년에 3개, 그리고 1997년에는 4개로까지 증가되었던 것이 1998년부터는 1개의 사업만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10~12월의 사업이 감소된 것과는 달리 1~3월의 사업은 1999년부터 실시되어 2000년에도 1개 사업씩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국가지원 교류사업은 정부간 교류사업과는 달리 그 실시시기
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Ⅲ-24> 교류시기별 국가지원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1월~3월	-	-	-	1	1	2
4월~6월	3	4	1	1	1	10
7월~9월	7	10	5	11	10	42
10월~12월	4	3	4	5	2	18
기타	11	8	7	8	3	38
계	25	25	17	26	17	110

교류기간별로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실시된 정부간 교류
사업 총 43개 중에서 20일 이상의 사업이 2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10~15일(8개), 15~20일(5개), 5~10일(2개)로 나타나, 대부분 20일

<표Ⅲ-25> 교류기간별 정부간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교 류 기 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5일 미만	-	-	-	-	-	-
5일 이상~10일 미만	-	1	-	1	-	2
10일 이상~15일 미만	2	-	1	1	4	8
15일 이상~20일 미만	2	2	1	-	-	5
20일 이상	6	5	4	6	7	28
기타	-	-	-	-	-	-
계	10	8	6	8	11	43

* 당해연도에 초청과 파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교류기간을 합산하여 분
류함.

이상의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간 교류사업에는 초청과 파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아 이 기간이 합산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0~15일간의 사업이 1996년에 2개에서 2000년에는 4개로 증가하였고, 20일 이상의 사업도 1996년에 6개에서 2000년에는 7개로 증가하였으나, 그 밖의 사업은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다양한 교류기간으로 실시되다가 최근에는 10~15일과 20일 이상의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III-25> 참조).

한편, 국가지원 교류사업을 보면, 국가간 교류사업과는 달리 5~10일 미만과 10~15일간의 교류사업이 각각 37개와 22개로 지난 5년 간 이루어진 교류사업 총 110개 중 과반수 이상이 되어 국가지원교류사업이 단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사업은 항상 교류가 있는 경우와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를 연도별

<표III-26> 교류기간별 국가지원 교류사업

단위: 사업 수

교류기간*	'96	'97	'98	'99	2000	계
5일미만	2	3	1	1	-	7
5일이상~10일미만	8	7	8	8	7	37
10일이상~15일미만	4	4	2	9	3	22
15일이상~20일미만	2	4	3	2	1	12
20일이상	5	3	1	3	1	14
기타	4	4	2	3	5	18
계	25	25	17	26	17	110

* 당해연도에 초청과 파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교류기간을 합산하여 분류함.

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에도 5~10일의 단기적인 교류가 8개로 가장 많았지만 20일 이상의 중기적인 교류도 5개나 되는 등 교류가 다양한 기간별로 실시되고 있었던데 반해, 2000년도를 보면 15~20일의 사업과 20일 이상의 사업이 각각 1개씩만 실시되고 있고, 5~10일과 10~15일이 각각 7개와 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26> 참조).

3. 국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사례분석

지난 5개년간 국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1999년에 추진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사업'이다. 이전까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교류업무는 정부간 교류사업 추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다. 단체지원사업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지닌 주요 청소년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요구를 검토하여 사업결정을 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1999년에 실시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모든 청소년 단체에 개방된 국제교류사업 지원 계획이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문화부의 '99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 '99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2) 사업목적

문화부의 '99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지원계획6)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6) 문화부(2000), 내부자료.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단체의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장려이다.

둘째, 보다 많은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이다.

(3) 사업추진방식

문화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국제교류사업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에 대한 공문을 보내 이 협의회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내부 검토한 후 지원사업을 선정하였다.

2) 사업추진실태

(1) 문화부 공모사업 지원현황

총 18개 단체가 20개 사업을 지원신청하였다. 지원한 단체의 성격을 보면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국제연맹회원단체가 제안한 사업이고 14개 사업은 국내단체가 제안한 사업이다<표III-27>.

<표III-27> 문화부 단체공모사업 지원단체별 사업수

구 분	사업수
국제연맹 회원단체	6
국내단체	14
계	20

사업별 지원요청 예산규모를 보면 2-3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2천만 원 미만 사업이 4개, 3천만 원 이상 사업이 3개이다.

<표Ⅲ-28> 문화부 단체공모사업의 지원요청 예산규모별 사업수

구 분	사업수
10,000천원 미만	2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2
20,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3
30,000천원 이상 ~ 40,000천원 미만	1
40,000천원 이상	2
계	20

사업참여집단으로는 20개 사업 모두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이었다. <표Ⅲ-29>에 의하면, 사업실시 시기는 20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여름방학 중인 7-9월에 집중되고 있다. 10-12월에 3개 사업, 4-6월에 1개 사업만이 분산되었다.

<표Ⅲ-29> 문화부 단체공모사업의 실시 시기별 사업수

구 분	사업수
1월 ~ 3월	-
4월 ~ 6월	1
7월 ~ 9월	15
10월 ~ 12월	3
기타	1
계	20

문화부 단체공모 사업의 교류기간을 보면 5-10일미만 사업이 7개로 가장 많다. 15일 미만인 사업이 14개로 대부분이며 15일 이상 되는 사업이 5개 사업이다.

<표 III-30> 문화부 단체공모 지원사업의 실시기간별 사업수

구 분	사업 수
5일 미만	4
5일 이상~10일 미만	7
10일 이상~15일 미만	3
15일 이상~20일 미만	1
20일 이상	4
기타	1
계	20

참여인원규모를 보면 50명 미만의 소규모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10개로 절반이며 나머지는 50명 이상 되는 사업이다. 이 중 1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이 7개이다.

<표 III-31> 문화부 단체공모 지원사업의 참여인원 규모별 사업 수

	사업수
10명 미만	1
10명 이상 ~ 50명 미만	9
50명 이상 ~ 100명 미만	3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3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1
200명 이상 ~ 250명 미만	2
250명 이상 ~ 300명 미만	-
300명 이상	1
계	20

(2) 공모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결과

20개 공모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 내부검토의견을 분석하면 사업선정에 고려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① 선정기준

㉠ 프로그램의 기획성

프로그램 기획이 참신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사업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고 교류내용이 분명하며 의미 있는 활동인가가 중요하다.

㉡ 단체의 수행능력

국제교류사업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단체의 수행능력에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된다. 단체의 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국제경험이 많은 큰 단체를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제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국제경험이 적은 단체에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사업의 성패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기존 지원사업 유무

가능한 많은 단체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 외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가도 고려되었다.

㉣ 참가대상과 선발방법의 구체화

교류 참가 집단이 단체 소속 청소년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 개방되어 있는 가도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참가 청소년의 선발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발인원과 선발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교류 상대방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며 가능한 외국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 좋다.

㉔ 예산편성의 합리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체 자체가 부담할 예산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금액이 구분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며 국고지원요청액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산의 사용내역이 구체화되어 있고 비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야 한다.

② 선정결과

20개 사업 중 총 8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단체는 대한YWCA 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적십자 중앙본부 등 4개 단체는 국제적 단체였으며 홍사단, 천운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일암청소년육성재단 등 4개 단체는 순수국내 단체였다.

이 중 홍사단의 '제 2회 한·중 청소년교류'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제 34차 국제청년야영'은 해당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이다. 이 외 6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출된 것이다. 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2,000만원내외에서 책정되었다.

(3) 사업시행결과

8개 사업 중 실제 실시된 것은 <표III-32>의 총 6개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8개 사업 중 천운청소년 육성회의 '한·호주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의 '한·미 청소년 사이버 페스티벌' 등 2개 사업은 단체 내부사정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국제교류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국내단체가 인력부족, 교류상대단체 섭외문제 등 사업수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원된 6개 국제교류사업 중 4개 사업

은 해당단체가 신규로 추진한 것이다. 그 중 일암청소년육성재단의 한·미 청소년교류를 제외하고 3개 사업은 2000년도에도 사업이 지속되었다. 공모를 통해 개발된 사업을 지속한 기관은 YWCA, YMCA, 대한적십자사 등 국제단체이다. 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 단체의 사업수행능

<표 III-32> 1999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결과

사업명	수행단체	지원금액	시기 (기간)	활동장소 및 내용	인원	지속성
국제 자원활동 연합캠프	대한 YWCA 연합회	18,800천원	7월 (6일간)	한국	8개국 200명	계속
학업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한 한·미 청소년교류	일암 청소년 육성재단	12,455천원	7월 (10일간)	미국, 학업부적응 청소년치료 미국가족 문화체험등	17명	단절
사할린 봉사활동 및 현지 청소년과의 교류	대한 적십자사 청소년 적십자 중앙본부	11,457천원	8월 (11일간)	러시아, 사할린 한인동포 가구 방문 사회복지 시설 위문공연	27명	계속
제2회 한·중 교포청소년 문화제	홍사단	19,325천원	8월 (7일간)	중국	45명	계속
청소년 공동체 훈련캠프	한국 YMCA 전국연맹	8,661천원	1999.12 - 2000.1 (2개월간)	필리핀	20명	계속
제34차 국제 청년야영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17,286천원	7월 (10일간)	한국	20개국 115명	계속

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최초로 시도한 국제교류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단체의 경험부족, 기획력 부족 등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했던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이 소수 청소년에게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청소년의 국제감각을 함양하기 위해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는 만큼 청소년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단체들이 그러한 경험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도입한다든 지 해서 청소년단체가 겪는 사업추진 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평가

1) 추진체계 평가

2000년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업무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지원과이다. 청소년지원과는 과거 청소년교류과 업무와 청소년수련지도과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지원과는 총원 12명으로 이 중 교류업무만 전담하는 인원은 4명이다. '99년도에 청소년교류과 총원이 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청소년지원과로 통합되면서 전담인력이 상당히 축소된 셈이다. 교류사업예산은 청소년사업 총 예산의 감소율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전담인력과 예산이 감축되는 여건 속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제대로 정립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문화관광부는 1998년 8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입안하면서 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을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내실화 하기 위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청소년상 확립,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해외체험 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 자율적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기반 조성을 중점 목표로 정립했다.

그러나 정부구조조정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의 전담조직과 예산은 축소를 거듭해 왔다. 즉 명분만 제시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는 강화되지 못했다.

2)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

국가 청소년교류사업을 수행주체별로 분석했을 때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비율은 20~30% 선이다. 2000년도만큼은 단체지원사업건 수가 줄어 총 사업건 수의 40%를 국가가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정부간 교류상대국은 총 12개국이다. 2000년도에 멕시코와 교류약정이 체결되어 2001년도부터는 교류상대국이 총 13개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2000년 현재 국가 간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는 총 10개국 11개 사업이다. 1995년 6월 한·러 청소년협력계획서에 의거, 실시된 한·러 청소년교류는 1996년부터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사업으로 전환되었다. 1996년 12월 한·칠레 양국 간 청소년교류약정에 의해 추진된 한·칠레 청소년교류는 칠레 측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국가간 교류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한·일 정부간 교류사업이다.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2000년까지 14차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교류여건이 유사하고 교류참가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의 프로그램 경쟁이 지속된 결과 양국 참가자가 서로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정착되게 되었다.⁷⁾

7) 문화관광부 청소년교류업무 담당자 인터뷰내용.

국가지원 교류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다. 지원사업건 수의 60-80%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다. 이 밖에 매년 3-4건 정도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2건 정도의 지도자 교류사업이 실시되어 왔다. 교류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세계청소년정보망 운영사업과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사업이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96년과 '97년 2차례 실시한 지방공무원 연수사업이 전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전체사업 중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은 지도자 교류사업 1종, 국제기구 협력사업 1종, 민간단체지원사업 6종으로 총 8종에 불과하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총 27종인데 이 중 6종이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5년 이내 신규로 추가되어 2000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6종을 합하여 전체 27종 중 12종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13종이 중단되어 사업의 안정성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교류사업 지원단체의 성격을 보면 96-98년까지는 국내단체에 대한 지원이 더 많다가 99, 2000년도에 와서 더욱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로 지원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96-98년까지 국내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고 해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지원된 사업 건수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외 단체로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유네스코와 4H후원회, YWCA 등이 고작이었다.

국가지원사업의 교류상대국을 볼 때 특정 상대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건 수가 가장 많았으며 특정 상대국이 있는 사업 중에는 일본과의 교류사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이었다.

교류참여집단은 대부분 청소년교류이지만 지도자 교류사업도 일부분 존재하며 동일 사업 내에 청소년교류와 지도자 교류가 병행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국제교류사업의 재원규모는 대부분 1,000-3,000만원 사이로 운영되었

다. 국가지원사업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사업 수도 상당 수 있던 편이나 99년도부터는 그러한 사업 건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국가 간 교류사업은 대체로 초청과 파견이 겸하는 상호교류의 성격이 강하지만 국가지원 사업은 상호교류보다는 초청과 파견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분리된 형태가 더 강하다. 분리된 형태의 경우 국가간 교류사업이나 국가지원 교류사업 모두에 있어 초청보다는 파견사업건 수가 더 많다.

교류사업의 활동내용은 체험위주 활동보다는 견학·탐방 위주의 프로그램이 더 많다. 교류인원은 국가간 교류사업의 경우 50명 미만의 사업이 대부분이나 지원사업의 경우 150명 이상 되는 사업도 상당 수 발견되고 있다. 교류시기는 여름방학이 있는 7-9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며 교류기간은 10일 내외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

(1) 정부간 교류사업 평가

국가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수행에 있어 정부간 교류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이 비중은 2000년도에 와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간 교류가 국가 청소년 교류전담 부서의 주 업무가 되고 있다. 이것은 담당 부서가 국제교류활성화라는 정책입안과 집행기능보다는 사업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부서가 직접 사업수행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장점은 민간단체에 비해 교류상대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 국가가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협조를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교류사업은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청소년에 대한 지도력이 중요하다. 빈번한 인사로 인원교체가 잦은 정부 부서가 프로그램진행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정부 부서가 교류사업의 프로그램 실행 부서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 부서가 사업수행을 전담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관여시키는 것이 마땅하

다. 정부 부서는 정부간 교류사업이 국가적 책임 하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사업관리·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 교류사업은 민간단체 프로그램과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상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식적인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가집단을 국가가 선발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국가대표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 프로그램의 이러한 공적 성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시 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에이전시 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의 (財)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를 참조할 만 하다. 이러한 국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민 협력체계의 정립과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간 교류 프로그램의 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대등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평가하는 한·일 정부간 교류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일본측 초청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측 초청 프로그램은 지방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관-민 연계 뿐 아니라 중앙-지방 연계의 사업수행체계 정립을 통해 정부간 교류사업의 효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시키는 동시에 민간 에이전시 기구 활용을 통해 정부간 교류사업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2) 국가지원 교류사업평가

국가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수준에서 할 수 없지만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 및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국제교

류정보망 구축,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전문적 지도력 양성,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국어 인력뱅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동기부여방안, 학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협의 등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문화부 청소년지원과는 국가 청소년교류사업의 중추 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교류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의 문화부 청소년교류 사업은 상황을 선도해나가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부족하며 상황과 여건에 따른 수동적 대응 측면이 강하다. 향후 국가지원 교류사업은 국제교류기반과 여건조성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다. '99년도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체지원사업은 소수 유력 청소년단체의 사업기획안이 들어오면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한 사업이 일단 선정되어 실시되면 전년도 사업수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하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사업의 전환은 정책환경이 변화되어 시의성 있는 사업이 요청될 때, 전년도보다 나은 사업기획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이 중시되었기에 몇몇 단체의 사업기획이 선호되는 측면이 있었다. 사업 실시 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없었다.

'99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모든 단체에 개방된 기회를 부여하고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한 공식적 검토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모사업에서 적용되었던 평가기준은 향후 좀 더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평가기준

국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위한 평가기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국제교류사업을 기획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다.

국가교류사업의 자체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사업을 위한 안정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둘째, 구체적인 정책목표 하에 교류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사업이란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업이 어느 정도 정책목표의 실현에 근접하고 있는 지는 항상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교류 인프라 구축 및 동기부여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넷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선정, 관리, 평가되고 있는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표III-33>과 같다.

<표Ⅲ-33> 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 항목
프로그램	- 교류목표와 주제가 분명한가? - 참여집단과 교류상대가 구체화되어 있나? - 사업별로 교류상대국과 상대집단은 다양한가? - 교류활동내용이 참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인가? - 사업별로 활동내용이 어느 정도 특색이 있고 다양한가? - 교류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나? - 참가자간의 접촉과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 - 교류참가자를 위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가 구체화되어 있나? - 교류사업의 예상효과가 분명한가?
사업수행능력	-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전문지도를 확보하고 있나? - 국제교류사업 경험이 있는가? - 사업추진상의 애로와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 -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동원, 활용하거나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가?
참여대상	- 참여집단이 구체화되어 있나? - 특정단체 소속이 아닌 일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가? - 참여집단의 선발방법과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타당한가? - 사업별로 참여집단의 형평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 참여집단 모집홍보방법은 효율적인가?
예산편성 및 지출	-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일정부분 있는가? - 국고지원요청액과 자체예산의 구분되어 편성·사용되고 있는가? - 예산사용내역이 구체화되어 있고 비합리적인 예산계획은 없는가?

IV.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 및 평가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실태 개관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조사 결과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사례분석
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에 대한 평가

IV.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 및 평가⁸⁾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 개관

먼저 일반행정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실태를 개관한다. 본 분석은 '지방자치단체간 청소년국제교류현황 (2000.9.18)'(부록 3참조)⁹⁾에 기초한 것이다.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시 지방자치단체 수

<표IV-1>은 행정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실태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자치단체의 60.8%인 151개 자치단체이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35.9%인 89개 단체이다. 이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151개 자치단체 중 58.9%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약 1/3 정도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기초단체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건수가 한 건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8)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실태는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자료수집과 이에 대한 일차적 분석은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이 병술 사무관이 수행하였으며 본 장은 이것을 토대 재구성된 것이다.

9)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이 병술 사무관이 작성한 행정자치부 내부자료임.

<표 IV-1>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시도 별	자치단체수			국제교류 자치단체수			청소년교류 자치단체수		
	계	광역시	기초	외국자치단체수			한국자치단체수		
				계	광역시	기초	계	광역시	기초
계	248	16	232	371	113	258	143	49	94
				151	16	145	89	16	73
서울	26	1	25	57	18	39	14	9	5
				23	1	22	6	1	5
부산	17	1	16	25	14	11	5	5	-
				11	1	10	1	1	
대구	9	1	8	10	7	3	2	1	1
				4	1	3	2	1	1
인천	11	1	10	10	3	2	6	5	1
				4	1	3	2	1	1
광주	6	1	5	7	4	3	2	2	-
				4	1	3	1	1	
대전	6	1	5	11	7	4	4	4	-
				4	1	3	1	1	
울산	6	1	5	5	5	-	2	2	-
				1	1		1	1	
경기	32	1	31	66	12	54	21	5	16
				24	1	23	12	1	11
강원	19	1	18	27	5	22	19	3	16
				13	1	12	13	1	12
충북	12	1	11	11	4	7	7	2	5
				6	1	5	6	1	5
충남	16	1	15	23	4	19	14	3	11
				9	1	8	7	1	6
전북	15	1	14	18	3	15	9	2	7
				9	1	8	7	1	6
전남	23	1	22	18	3	15	9	1	8
				11	1	10	7	1	6
경북	24	1	23	32	6	26	9	1	8
				12	1	11	7	1	6
경남	21	1	20	38	10	28	14	3	11
				11	1	10	9	1	8
제주	5	1	4	13	4	9	6	1	5
				5	1	4	3	1	2

(1) 광역자치단체 청소년교류실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13개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이는 1개 광역자치단체가 평균 7개 자매도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는 49개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어 평균 3개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즉 시·도당 7개 자매도시 중 4개 자매도시와는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셈으로 청소년교류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사례는 ①부산광역시의 경우 일본 시모노세키시와의 교류(총 교류38회 중10회) ② 대전광역시의 경우 일본 시마네현 오다시(大田)와의 교류(총 교류22회 중 11회) ③경기도의 일본 카나가와현과의 교류(총214회 교류 중 14회) ④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총 교류151회 중 27회) ⑤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과의 교류(총257회 중 50회) 등을 들 수 있다.

5회이상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들면 ①서울특별시와 중국 베이징시의 대학생방문(1회)·청소년배구대회교류(4회), ②서울특별시와 멕시코시티와의 국제아동서화전참가교류(5회), ③경기도와 미국 유타주의 이원중학교친선축구경기를 비롯한 8회의 교류, ④강원도와 중국 길림성간의 청소년탁구대회(1회)·청년연합교류(4회), ⑤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과의 청소년나래교류(2회)·우정의 교류방문(1회)·어린이큰북연주단교류(2회), ⑥제주도와 하와이간의 청소년교류(6회)등 총 6개 자매도시와의 교류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류가 잘되고 있는 5개 자매도시 및 5회 이상 교류하고 있는 6개 자매도시 등 11개 자매도시를 나라별로 분류하면 일본이 6개 도시, 미국이 2개 도시, 중국 2개 도시, 멕시코가 1개 도시로 전체적인 청소년교류도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청소년교류실태

232개 시군구의 31.4%에 해당하는 73개 시군구가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고 이는 교류를 하고 있는 145개 교류단체의 50.3%에 해당하고 있어 청소년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교류를 시작해야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지는 교류패턴에서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전 주어 볼 때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교류 부서가 있더라도 기관장의 관심도 등에 의해서 아직 청소년교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3개 교류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대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94건으로 1개 시군구당 1.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도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 중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사례는 ①경기도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와의 청소년교류(18회)·초등학교미술교류(3회), ②경기도안양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부시와의 중·고등학교교환방문(14회), ③강원도 동해시와 후쿠이현 쓰루가시와의 친선축구당교류 등 각종청소년교류(13회), ④충북보은군과 일본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정과의 초등학교간 교류(16회), ⑤충남 부여군 부여읍과 일본 다자이후시·난고손과의 청소년홈스테이 운영 등 교류(59회), ⑥전남여수시와 일본 사가현가라쓰시와의 소년의 배 등 청소년교류(12회), ⑦전남순천시와 미국 콜롬비아시와의 대학생간 등 교류(15회), ⑧제주시와 일본 와카야마시와의 초등학교 친선교류 등(14회)을 들 수 있다.

또한 5회 이상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는 시군구를 들면 ①서울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치치시와의 교교교환방문 등 교류(8회), ②경기안산시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시와의 학생단 방문 등(7회), ③강원도 강릉시와 일본 지치부시와의 소년야구단 친선경기 등(7회), ④강원도 동해시와 러시아 연해주 나홋트가시와의 학생친선사절단 등(5회), ⑤강원도 횡성군과 일본 돗토리현 핫도정과의 어린이 핫도정 방문 등(6회), ⑥충북청주시와의 일본

돗토리시와의 중·고생방문 등(6회), ⑦충남 천안시와 미국 비버튼시와의 학생교류방문 등(6회), ⑧충남공주시와 일본 사가현 모라야마시와의 친선 야구경기 등(7회), 일본 아마구치시와의 어린이교류협의방문 등(8회), ⑨전남 목포시와 일본 오이타 벳부시와의 소년소녀 사절단 등(5회), ⑩경북안동시와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시와의 소년소녀 합창단교류 등(9회), ⑪경남통영시와 일본 오카야마시와의 아동미술전교류 등(6회), ⑫경남김해시와 일본 후쿠오카현 미요시시와의 초중생교류단 등(6회)의 교류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잘되고 있는 8개 자매도시 및 5회 이상 교류하고 있는 13개 자매도시를 나라별로 분류하면 일본이 15개 도시, 미국이 4개 도시, 러시아 1개 도시, 뉴질랜드 1개 도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매결연 시기 및 청소년국제교류 실시 계기

371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의 시점을 보면 최초 1960년대 9개 단체(2.4%), 1970년대 18개 단체(4.9%), 1980년대 68개 단체(18.3%), 1990년대 290개 단체(78.2%), 2000년도 들어서 4개 단체(1.1%)로 나타나고 있어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의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3) 교류상대국가

<표IV-2>에 의하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총 37개국 371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중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총 23개국 143개 지방자치단체이

<표 IV-2> 국가별 국제교류 및 청소년 교류현황

청소년교류자치단체수				국제교류자치단체수			
국 가 별	개	광역	기초	국 가 별	개	광역	기초
계	143 371	49 113	94 258				
총 국	25 108	8 17	17 91	터 어 키	2	1	1
일 본	56 72	11 13	46 59	영 국	1 2	1 1	1 1
미 국	31 70	10 20	21 50	폴 란 드	2	2	-
러시아	4 13	3 8	1 5	스 페 인	2	2	-
대 만	1 10	1 5	5	헝 가 리	1 2	1 2	1 1
멕시코	1 10	1 6	4	칠 레	2	1	1
호 주	1 9	1 4	5	파라과이	2	1	-
인도네 시아	3 8	3 6	2	남 아 공	1 2	1 2	-
베트남	2 8	1 4	1 4	스 웨 덴	1 1	1 1	-
몽 골	3 5	1 1	2 4	벨 기 에	1	-	1
캐나다	2 5	1 2	1 3	루마니아	1	-	1
브라질	5	3	2	덴 마 크	1	-	1
필리핀	1 4	1 1	3	콜롬비아	1	1	-
프랑스	4	2	2	이 집 토	1	1	-
독 일	1 3	-	1 3	파퓰아뉴기 니아	1 1	-	1 1
뉴질랜 드	2 3	1 1	1 2	오스트리 아	1 1	-	1 1
이탈리 아	1 3	1 2	1	키르기스공 화국	1	-	1 1
네덜란 드	1 3	1 1	2	파 나 마	1	1	
카자흐 스탄	1 2	1	1 1				

다. 한국과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로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중국이 108개 자치단체 중 25개 단체 (23.1%), 일본 72개 자매도시 중 56개 도시(77.8%), 미국자매도시 70개 중 31개 도시 (44.3%), 기타 자매도시 121개 도시 중 31개 도시(25.6%)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미국 자매도시의 경우 청소년교류가 보다 활발하다. 중국과 기타 자매도시의 경우는 자매교류에 비해 청소년교류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우리 자치단체 중에 중국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가장 많지만 청소년국제교류는 일본이나 미국이 더 많다. 향후 중국과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중국은 개방화 물결에 따라 가장 빨리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청소년 인적자원의 경우에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고 세계 최강국의 면모를 위해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유교 문화권 국가의 맹주국가로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전통적으로도 우리와 문화접변과 문화교류가 가장 긴밀하고 빈번했던 국가이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과 중국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중국의 세계화 도약 가능성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간의 교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중국과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새롭게 도래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통일 한반도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의 청소년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간의 교류 사업을 위한 시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도 중국과의 청소년교류는 중요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뉴질

랜드 등과의 교류가 차지고 있는데,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건수 면에서도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교류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중요한 미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에 아직도 얼마나 열악한 형편인가를 직감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브라질, 프랑스, 터키, 폴란드, 스페인, 칠레, 파라과이, 벨기에, 루마니아, 덴마크, 콜롬비아, 이집트, 파나마 등과는 1-2건 정도 국제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국제교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21세기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은 국제교류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청소년국제교류의 양과 질은 참으로 열악한 형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최근 들어 21세기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아 가까운 동남아권부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동남아권 교류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경제교류 및 문호개방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과 베트남 정부간에는 새로운 문호개방과 함께 청소년 분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청소년교류 약정이 체결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하노이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베트남청소년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Youth of Vietnam)와 청소년교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5년 간 매년 20여 명 규모의 청소년 대표단 상호교환 방문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양국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계 전문가들의 상호교류와 정보 교환사업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필리핀과는 1994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1981년부터, 중국과는 1992년부터, 핀란드와는 1996년부터 매년 정기

적으로 10-20명씩 선발하여 10-20일간의 기간으로 국가 차원의 청소년교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못지 않게 이러한 지역과의 교류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교류활동 내용

<부록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와 외국의 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진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내용은 전수로 모든 내용으로 보면 매우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일 예로, 서울특별시 1968년 대만의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00년 9월 18일 현재까지 총 27건의 국제교류를 하였지만, 청소년국제교류는 단 2회로 시립어린이합창단의 왕래교류가 있었을 뿐이며, 아울러 1973년 미국의 호놀룰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총 23회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국제교류는 보이스카우트 야영 훈련을 위한 교류 2건이 전부로 2건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의 수준은 양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단조롭기 그지없다.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 등을 살펴보면, 우선 시도, 시군구 공히 교류프로그램운영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스포츠교류, 청소년대표단 상호교류, 유학생 상호교류 등 학생선발 등 여러 부분에서 관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행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파급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교류가 일반 타 교류와 갖는 관련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청소년교류가 잘 추진되고 있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일본측 상대인 야마나시현 및 가고시마현과의 교류에서 보듯이 일본측의 여러 레벨의 청소년교류제의를 대응해가면서 청소년교류가 일반교류와 함께 추진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양태는 질적인 교류 즉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교류에 치중하기보다는 아직은 양적인 교류에 치중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매교류도시 대상국별로 볼 때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과 기타 여러 나라와의 교류는 몇몇 교류도시를 제외하면 문화, 스포츠, 경제, 행정교류에 비해 청소년 교류가 아직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경제교류를 선호하고 있는 경향과 상대자매도시의 교류선호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비용부담, 상호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상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경우 충청북도와 중국과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비용부담 때문에 상대측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경우는 원거리간의 교류로 항공료부담의 문제가 참가대상자에게 짐이 될 수 있고 우리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하는 메리트가 약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조사 결과

최근 들어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 지방자치단체들과 국제교류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 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역시 보다 확산될 조짐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 조사는 현재 우리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잠정적인 분석하고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평가의 기준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본 조사는 우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기관 차원에서 임의적인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를 내리고, 동시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국정 지표가 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립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및 청소년교류 실태

본 조사결과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83개 단체로 전체의 63.8%가 현재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표Ⅳ-3> 외국지방자치와의 국제교류 활동 유·무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하고 있다	83	63.8
하고 있지 않다	47	36.2
합 계	130	100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제교류 분야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Ⅳ-4>와 같다. <표Ⅳ-4>에 의하면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2개 단체이다. 현재 국제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청소년국제교

류분야가 가장 높은 21.8%로 나타났으며, 문화교류(16.3%), 행정교류(16.3%) 그리고 스포츠교류(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현행 국제교류 활동분야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청소년교류	52	21.8
문화교류	39	16.3
행정교류	39	16.3
경제교류	18	7.5
의원교류	18	7.5
학술교류	7	2.9
스포츠교류	25	10.5
교육교류	11	4.6
시민상호교류	22	9.3
기 타	8	3.3
합 계	239	

2) 청소년교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교류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교류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응답을 분석한다.

(1) 청소년교류 계기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상대국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학교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대답한 자치단체가 76개중 31개로 전체의 40.2%

를 차지함으로써 우리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아직도 수동적인 차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은 점차 개선되고 있어 우리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고 있기는 하다. 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외국 자치단체들과의 결연 사업을 필미로 청소년국제교류는 거의 대부분 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 등 중요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방침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는 보이고 있다. 일 예로 최근 들어 우리 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28.6%)이 늘고 있다.

<표 IV-5>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계기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상대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학교포함)의 신청	31	40.2
우리자치단체의 방침	22	28.6
국가나 시도의 소개	4	6.5
주민의 소개	3	3.9
협회등 민간단체의 추천	9	11.7
기 타	7	9.1
합 계	76	100

(2) 교류활동 추진주체

교류사업의 추진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가 47.5%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학교 등 교육기관(23.8%), 민간단체(21.2%)에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전문성,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교체 등이 잦은 행정기관이 이를 담당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청소년지도와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 기관이 이

를 수행해 나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V-6> 청소년교류활동의 추진주체는?(해당항목 모두선택)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민간단체	17	21.2
일반자치단체	38	47.5
교육기관	19	23.8
국제교류단체	2	2.5
일반청소년 단체	2	2.5
기 타	2	2.5
합 계	80	100

(3) 재정부담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경비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28.8%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보조와 자비부담이 그 다음(22.7%)이었고, 자기부담(15.2%),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단체보조(7.6%), 민간단체보조(7.6%), 기타(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 재정지원 및 경비 부담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자치단체	19	28.8
자치단체보조+민간단체	5	7.6
자치단체보조+자비	15	22.7
자기부담	19	15.2
민간단체	5	7.6
기 타	3	4.5
합 계	66	100

(4) 교류참여집단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는 주로 초·중학생(65.3%)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생, 22.2%, 대학(원)생 9.7%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대학입시제도로 인하여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갑자기 줄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대학생이 된 후에는 아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과 폭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려주고 있다. 보다 심각한 사실은 근로청소년에 대한 국제교류사업이 극히 미미하다. 또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이들과 함께 청소년의 세계를 꾸며가야 할 청소년지도자(응답자 중 학교교사는 제외)들을 위한 국제 청소년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IV-8> 청소년 국제 교류 참가자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초·중학생	47	65.3
고교생	16	22.2
대학생·원생	7	9.7
근로청년(30세 미만)	2	2.8
청소년 지도자	-	-
기 타	-	-
합 계	72	100

(5) 교류활동 내용

현행 청소년국제교류의 프로그램은 상대국을 견학하고 시찰하는 방문 교류가 가장 많은 37.6%로 나타났고, 스포츠 캠프 21.4%, 문화활동 16.2%, 작품교류전 10.3%, 강의 및 토의 5.1%, 실기 및 실습 3.4% 그리고 조사활동 1.7%, 기타 4.3%로 집계되어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우선도를 나타내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아직 청소년국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들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점은 앞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점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가 4.3%를 차지함으로써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영역이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아직은 소수의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9> 주된 참가 프로그램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견학·시찰	44	37.6
작품교류전	12	10.3
스포츠·캠프	25	21.4
강의·토의	6	5.1
실기·실습	4	3.4
문화활동	19	16.2
조사활동	2	1.7
기 타	5	4.3
합 계	117	100

(6) 교류활동 회수

현재 우리의 자치단체의 반수 정도(42.1%)가 청소년국제교류를 년1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거의 연중행사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시 수시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35.6%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국제교류는 년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상당수가 청소년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중행사 성의 사업과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일

지라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중 행사성의 사업과 필요성의 사업이라도 보다 조직화·체계화되어 교류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10> 청소년교류활동의 횟수

특성 및 구분	빈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년 2회	13	17.1
년 1회	32	42.1
2년 1회	3	3.9
3년 1회	0	0.0
필요시	27	35.6
기 타	1	1.3
합 계	76	100

(7) 숙박시설 이용

실제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상대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관건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서 홈스테이(40.4%)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숙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홈스테이가 청소년국제교류를 위하여 가장 선호되는 숙박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홈스테이는 단순한 숙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의 온상인 그 나라의 가정에서 외국 문화를 직접 취득하고 아울러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언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가정을 통한 문화이해 및 세계이해의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거 다득의 효과를 가진 가장 바람직한 청소년국제교류의 활동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IV-11> 상대국에서의 이용 숙박시설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공공숙박시설	4	7.7
청소년시설이용	5	9.6
유스호스텔	0	0.0
홈스테이	21	40.4
호텔·여관	19	36.5
기 타	3	5.8
합 계	52	100

(8) 애로사항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정부담(38.9%)을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언어문제(21.3%), 지원체제부족(17.6%), 아이디어부족(8.3%), 상대측의 열의 부족(6.5%), 시민의 인식부족(4.6), 추진주체의 열의 부족(2.8%)을

<표 IV-12> 청소년교류 추진의 애로사항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재정부담	42	38.9
추진주체의 열의부족	3	2.8
시민의 인식부족	5	4.6
아이디어 부족	9	8.3
상대측의 열의 부족	7	6.5
지원체제부족(인재·재원등)	19	17.6
언어문제	23	21.3
합 계	108	100

뽑았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상대측의 열의 부족이 6.5%로 지적된 사실인데, 이는 종전에 비하여 우리 자치단체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고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래 청소년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교적 고무적인 자치단체의 인식변화에서 기인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교류 미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분석

(1) 국제교류 및 청소년 교류 추진계획

조사는 현재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47개 자치단체의 경우에 83%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계획과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IV-13> 장래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있 다	39	83.0
없 다	8	17.0
합 계	47	100

아울러 이들이 희망하는 국제교류사업의 영역 중에서 청소년국제교류는 전체 응답자의 20.6%로서 문화교류(24.4%)를 가장 희망하는 영역으로 꼽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두 번째 사업 영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표 IV-14> 장래 희망하는 국제교류분야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청소년교류	27	20.6
문화교류	32	24.4
행정교류	23	17.6
경제교류	20	15.3
의원교류	5	3.8
학술교류	2	1.5
스포츠교류	6	4.6
교육교류	2	1.5
시민상호교류	11	8.4
기 타	3	2.3
합 계	131	100

(2) 희망하는 교류상대국

장래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상대국의 경우에는 일본(40.4%)과 중국(18.6%) 순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와의 교류부터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IV-15> 장래 국제교류의 희망 상대국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중 국	13	18.6
일 본	23	40.4
미 국	5	8.8
영 국	1	1.7
독 일	1	1.7
호 주	1	1.7
뉴질랜드	2	3.5
캐 나 다	1	1.7
이스라엘	1	1.7
대 만	1	1.7
미 응 답	8	14.0
합 계	57	100

(3) 희망하는 교류활동 내용

구체적으로 이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청소년국제교류의 분야는 상대방 국가의 전학 및 시찰이 가장 높은 32.7%, 그 다음이 문화활동 23.0%, 스포츠·캠프 활동(15.0%), 작품교류(12.4%)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강의 및 토의(5.5%), 조사활동(4.4%) 그리고 실기 및 실습(3.5%)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이 중요한 청소년교류사업의 분야로 꼽혔다.

<표 IV-16> 장래 희망하는 청소년국제교류 분야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전학·시찰	37	32.7
작품교류전	14	12.4
스포츠·캠프	17	15.0
강의·토의	6	5.5
실기·실습	4	3.5
문화활동	26	23.0
조사활동	5	4.4
기 타	4	3.5
합 계	113	100

(4) 선결과제

그러나 아직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실적인 장애요인 때문에 사업 실시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장래에 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로서 재정적 부담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30.0%), 지원체제 구축의 문제(26.4%), 외국어 등 전문성 확보 문제(21.8%), 기관장의 관심도 부족(11.8%), 아이디어개발(9.1%)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7> 장래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선결 과제(문제점)

특성 및 구분	빈 도 (자치단체수)	구성비(%)
기관장관심도	13	11.8
지원체제구축	29	26.4
재정부담	33	30.0
언어등 전문성 확보	24	21.8
아이디어 개발	10	9.1
기 타	1	0.9
합 계	110	100

4) 청소년교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분석

본 연구 조사는 상기 설문 조사에서 사용한 양적 조사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질적 접근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목표로서 이미 언급한대로 미래 국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조사만으로 그 기대치를 얻을 수는 없었다. 즉 행정정책가 및 전문가들의 눈도 중요하지만, 일선 담당자들의 입을 통하여 얻는 지식과 경험 역시 미래의 국정 및 국가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해 똑같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나 사안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무자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알아보면서, 이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다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목표 즉 미래 국가 차원의 평가를 위한 기준 지표의 마련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청소년국제교류사업 포함)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자유기술식 문항을 제시하였다.

자유기술식 설문문항은 향후 청소년교류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은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다음은 그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1) 단체장의 관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자치단체 장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가에 좌우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하다.

(2) 예산지원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애로가 많다.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 청소년 교류를 위한 국고 보조 실시가 필요하다.

(3) 수행방식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어떤 자치단체는 자매도시 내의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환 방문이 주가 되고 있으며 어떤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 학생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대체적인 견해는 자치단체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학교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는 학교나 민간단체가 국제교류를 하도록 여건 조성 및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학교나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의견으로는 교육기관에서는 학교기관 간 자매결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예술, 체육교류는 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간 교류 외에 자치단체 내 여러 분야의 대표적인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사회, 문화, 전통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공통적인 견해는 행정기관 위주의 교류를 벗어나서 교육기관이나 민

간단체가 수행주체가 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청소년교류의 목적 및 방향

청소년교류의 목적은 청소년의 세계관 확대, 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의 증진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교류는 문화, 예술, 체육,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선행요건으로 어학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활동내용

교류활동 내용은 단순한 견학·탐방 수준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을 통한 토론문화나 테마 있는 문화활동, 조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스포츠 교류 등에서 출발하여 교류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있다.

(6) 사업 운영상의 개선점

사업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등 관련기관·단체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청소년교류사업이 청소년교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시발점으로 민간단체교류나 행정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회성 교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시작된 교류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교류사업 예산 편성시 교류상대측과 협의하여 양측의 상호교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협조와 지원

초·중등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교류에 대한 관심 및 의지 부족으로 자치단체 국제교류 범위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청의 관심 부족, 학교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예정되었던 교류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행정기관 위주의 교류는 교육기관의 참여의지와 열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기관이 주도적이 될 때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중·고등학생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방학중에만 가능하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수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 상대학교 학생의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실시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원화, 재정부담 때문에 일본으로의 수학여행이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8) 정책제언

첫째, 청소년국제교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 권장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다.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는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국제교류 패키지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주최로 하되 재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참여자 개인의 부담으로 실행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행사가 국내자치단체간에 연계·협력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사업 기획 시 아이디어가 빈곤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교류 모범사례집 등의 자료를 보급하는 것과 교류 담당 직원에 대한 연수 등이 필요하다.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사례분석

본 절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현황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국제교류사업개요를 토대로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또한 특색 있게 추진해온 13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13개 사례의 사업개요는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내용은 13개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목적

추진주체의 입장에서 교류사업의 목적을 세분하면 1) 국제관계조성·촉진, 2) 인재의 육성, 3) 지역 가꾸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은 이문화의 자극을 통해서 개인간, 지역간관계를 조성하고 촉진해나가며 인격형성에의 동기부여 등을 주는 외에 지역사회의 활성화, 지역사회담당자의 육성,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이 있으나 인재육성이 되어 해외네트워킹이 넓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무형재산이 증가하는 것 뿐 아니라 단체, 지역, 기업 더 나아가서는 관계 국가의 공유재산이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인재,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재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로 간의 이해를 깊게 하여 오해나 마찰을 해소시킴으로써 상호공생, 평화스

런 국제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며 무용의 분쟁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보다 원대한 기대도 섞여 있다하겠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13개 자치단체청소년교류사례의 목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Ⅳ-18>과 같다. 13개 사례 모두 국제관계의 촉진과 인재육성이라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가꾸기, 즉 지역발전의 목적까지 발전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Ⅳ-18>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의 목적분류

사 례	해당항목		
	1	2	3
한국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청소년교류	○	○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간 청소년교류	○	○	
안양시와 미국 가든그로브시간 청소년교류	○	○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간 청소년교류	○	○	
전라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간 청소년교류	○	○	
경기도와 일본 가나카와현간 청소년교류	○	○	
광주광역시와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청소년교류	○	○	
부산광역시와 일본 시모노세끼간 청소년교류	○	○	
과천시와 미국 에어드리시와 중고생 영어학습교류	○	○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간 청소년교류	○	○	
파주시와 중국 금주시와의 청소년교류	○	○	
천안시와 미국 오레곤주 비버튼시와 청소년교류	○	○	
부여읍과 일본 타자후시·난고손과 청소년교류	○	○	

2)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활동내용

국제교류의 활동내용은 1) 친선교류, 2) 이문화 체험, 3) 이문화 이해, 4) 외국어 학습, 5) 지구적 과제학습, 6) 국제협력체험, 7) 국내외국인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친선교류나 이문화체험활동 같은 직접교류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것, 간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 협력과 지원 활동을 통해서 교류하는 것, 상호이해나 교류를 위해서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의 분류인 것이다. 13개 지방자치단체교류사례를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것이 <표Ⅳ-19>와 같다. <표Ⅳ-19>에 의하면 13개 사례 모두 친선교류, 이문화체험, 이문화 이해를 위한 활동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천시와 천안시, 부여읍의 청소년교류는 외국어 학습의 내용이 강한 사례이다.

<표Ⅳ-19>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의 활동내용분류

사 례	해당항목						
	1	2	3	4	5	6	7
한국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청소년교류	○	○	○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간 청소년교류	○	○	○				
안양시와 미국 가든그로브시간 청소년교류	○	○	○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간 청소년교류	○	○	○				
전라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간 청소년교류	○	○	○				
경기도와 일본 가나카와현간 청소년교류	○	○	○				
광주광역시와 인도네시아 매단시와 청소년교류	○	○	○				
부산광역시와 일본 시모노세끼간 청소년교류	○	○	○				
과천시와 미국 에어드리시와 중고생 영어학습교류	○	○	○	○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간 청소년교류	○	○	○				
과주시와 중국 금주시와의 청소년교류	○	○	○				
천안시와 미국 오래곶주 비버튼시와 청소년교류	○	○	○	○			
부여읍과 일본 타자후시·난고손과 청소년교류	○	○	○	○			

3) 활동형태

국제교류의 활동방법, 즉 활동형태는 다양하다. 즉 1) 공동체험교류(스포츠, 야외활동이나 스터디·투어 등의 활동) 2) 의견교류(토론회, 회의, 세미나, 자유간담) 3) 가정교류(홈스테이, 홈페이지트) 4) 협력교류(워-크캠프, 국제 브란티어 활동), 5) 문화교류(작품·예술의 제작·소개·지도, 기타문화예술교류), 6) 시찰교류(문화·사적시찰이나 현대기업문화·생활문화 등의 시찰이 중심활동) 7) 교환교류(서신 왕래, 인터넷 통신, 작품교환) 등이다. 이를 13개 자치단체 청소년교류사례에 적용하면 <표 IV-20>과 같다. 많은 사례가 의견교류와 문화교류, 시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험, 가정교류를 겸하고 있는 사례도 소수 발견된다.

<표 IV-20>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의 활동형태분류

사 예	해당항목						
	1	2	3	4	5	6	7
한국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청소년교류		○	○			○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간 청소년교류	○	○	○		○	○	
안양시와 미국 가든그로브시간 청소년교류		○	○		○	○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간 청소년교류	○	○			○	○	
전라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간 청소년교류	○	○	○		○	○	
경기도와 일본 가나카와현간 청소년교류		○			○	○	
광주광역시와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청소년교류		○			○	○	
부산광역시와 일본 시모노세끼간 청소년교류		○			○	○	
과천시와 미국 에어드리시와 중고생 영어학습교류		○	○		○	○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시간 청소년교류	○	○			○	○	
파주시와 중국 금주시와의 청소년교류		○			○	○	
천안시와 미국 오레곤주 비버튼시와 청소년교류		○	○		○	○	
부여읍과 일본 타자후시·난고손과 청소년교류		○			○	○	

4) 수행주체

국제교류사업의 수행주체는 1)민간단체 2)국가, 3)지방자치단체, 4)교육기관, 5)국제교류단체, 6)일반 청소년단체, 7)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13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사례에 적용하면 <표Ⅳ-21>과 같다. 13개 사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고 있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2개이다. 이외 11개 학교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4개 사업은 학교, 민간단체, 자치단체가 3자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Ⅳ-21>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의 수행주체분류

사 례	해당항목						
	1	2	3	4	5	6	7
한국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청소년교류	○		○	○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간 청소년교류	○		○	○			
안양시와 미국 가든그로브시간 청소년교류			○	○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간 청소년교류	○		○	○			
전라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간 청소년교류			○	○			
경기도와 일본 가나카와현간 청소년교류			○	○			
광주광역시와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청소년교류			○				
부산광역시와 일본 시모노세끼간 청소년교류			○				
과천시와 미국 에어드리시와 중고생 영어학습교류			○	○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시간 청소년교류			○	○			
파주시와 중국 금주시와의 청소년교류			○	○			
천안시와 미국 오레곤주 비버튼시와 청소년교류			○	○			
부여읍과 일본 타자후시·난고손과 청소년교류	○		○	○			

5) 참여집단

참여집단은 1) 일반청년, 2) 초·중·고등학생, 3) 대학생, 4) 단체 회원, 5) 특기 관심사항을 공유한 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13개 지방자치 단체청소년교류사례를 적용하면 <표IV-22>와 같다. 13개 사례가 모두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사업의 목표집단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초, 중, 고생 외에도 일반청년이나 대학생을 참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단체회원까지 포함한 사업도 3개정도 발견되었다. 즉 참여집단이 어떤 특정집단에 국한되기 보다는 다양한 청소년층에 개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반청년이라 함은 학생 이외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13개 사례 중 5개 사업은 일반청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집단에 국한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IV-22> 지방자치단체 교류사례의 참여집단분류

사 례	해당항목						
	1	2	3	4	5	6	7
한국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청소년교류		○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간 청소년교류	○	○	○				
안양시와 미국 가든그로브시간 청소년교류		○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간 청소년교류	○	○	○				
전라북도와 일본가고시마현간 청소년교류	○	○	○				
경기도와 일본 가나카와현간 청소년교류	○	○	○				
광주광역시와 인도네시아 매단시와 청소년교류	○	○	○				
부산광역시와 일본 시모노세끼간 청소년교류	○	○	○				
과천시와 미국 에어드리시와 중고생 영어 학습교류		○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간 청소년교류		○		○			
파주시와 중국 금주시와의 청소년교류	○	○	○	○			
천안시와 미국 오레곤주 비버튼시와 청소년교류		○					
부여읍과 일본 타자후시·난고손과 청소년교류	○	○	○	○			

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1)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평가¹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248개 자치단체 중 89개 단체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중 약 1/3 정도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숫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여 그리 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우리의 경우에는 몇 십년 동안이라도 단 1건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으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실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례화 된 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그래도 현재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청소년교류 사업의 비율(21.8%)이 다른 사업 영역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실시할 의향이 있는 단체가 미실시 단체 중 약 8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어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의 상대국은 일본, 중국, 미국의 순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으며, 앞으로 희망국도 역시 이들 3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국제경제교류 및 교역 관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들의 지적처럼 경제교류에 편승하여 마지못해 소위 “구색 맞추기” 식

10) 이 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개관 및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으로 실시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국제교류의 내용 역시 상대국의 견학과 시찰에 대한 비중(37.6%)이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교류의 범위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업전략을 제외하고는 대략 비슷한 비중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 상대국에 대한 단순한 시찰과 견학 이외에도 문화탐방교류, 스포츠활동 교류, 교육훈련을 위한 교류, 국제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교류, 조사 및 실습을 위한 교류, 외국어 활동 교류, 작품교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지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영역이 보다 비중 있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라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부각되는 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21세기 지구촌시대를 맞아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생존해야 할 국제 무대에서 국제적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맞는 국제화 세계화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 세계관, 자아관의 정립을 통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보다 다양해지고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치단체가 현재 청소년교류사업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현재 우리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연히 우리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창의적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상대국의

요청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서(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실시하고 있음) 소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종전보다 적극적·능동적·창의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는 곳도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먼저 다른 외국(특히 중국)에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실시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별정사업으로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곳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전환도 실지로는 단체장 한사람의 소신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되는 경우도 많다. 즉 우리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정부의 법적·행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에 대한 어떤 강제조항도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치단체장들이 보여주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의식전환과 적극적·능동적·창의적인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추진 성향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임에 분명하다.

현재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대상 선발의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초·중등학생(65.3%)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외국 나들이하는 일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생들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태부족인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할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대학생 국제교류를 본격화하는 일부 자치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 예로, 부산시의 경우 2000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방문지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였으며 부산시 대학생 중 5명을 선발 파견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홈스테이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발 대상자는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부산 시내 대학교의 1-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러시아어 및 영어 회화가 가능해야 한다. 선발 조건은 TOEIC 성적 우수자 순이며 대학 총장과 학부모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내년도 러시아 대학생 교류단이 답방할 때 홈스테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경비는 부산시가 왕복항공료와 현지활동비를 부담하고 하바로프스크시가 현지 체재비를 부담하였으며, 여권 및 비자 발급의 수수료와 여행자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연간 정규 대학생 국제교류사업으로 자리 매김 할 예정이다. 하여간 대학생 국제교류사업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주역인 우리의 미래 지도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 영역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뒤지는 영역이 또 있다. 즉 근로청소년 및 농어촌지역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직업교육 차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제고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구미 선진국에서 이러한 근로청소년 및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직업교육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국가전략화하고 있는 중요한 청소년투자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 영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주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청소년 대상의 『취업관광사증 협정(워킹 홀리데이)』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양국 청소년 문화교류의 증진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는 양국 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양국 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하여간 이번 조약의 체결에 따라 양국의 18-25세 청소년에게 여행도 하고 보조 경비도 벌 수 있는 취업관광사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처음 발급되는 시기는 내년 4월 1일부터이고 연간 1천여 명이 이 비자의 혜택을 입게 된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양국 간의 우호 증대를 높이고 상호 문화교류의 기회를 갖음으로써 상호 이해와 상호 협력을 토대로 하는 양국 간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부의 사업 취지에 준하여 이러한 사업의 취약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 조사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연 1회 정도가 보편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들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추세도 집계되고 있다. 즉 연간 1회로 소위 “연중행사” 성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치루는 것에는 대부분인데, 이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업이 보다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보다 명백한 법이나 규정이 필요하다. “필요시 시행”하는 사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위 특별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도 없이 그때그때 소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 보면 사업 운영의 조직성이나 체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의 차원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대부분 1회성, 행사성, 전시성으로 끝나버려서 결국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답변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장애물과 난점이 있으며, 실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행 상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둘째, 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官)에서 주도하기보다는, 협회, 동아리, 조합, 연대, 자원봉사단체, 청소년수련관 등 민(民)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즉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관(官)은 행·재정적으로 지원만을 하고, 사업 실시의 주체는 민간에게 이양하여야 한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관-민 협력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체계화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인 듯하다. 또한 군소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적은 관계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군소 지역 단위보다는 광역시 단위로 실시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민 협동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로 우리는 이를 매우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실시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관계 정립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가장 문제시되어온 재정적 차원에서 가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종합된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 의무·법적 규정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업의 지속성이나 효율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끝이 나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판단들이다.

또한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업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담당자들의 의견도 있다. 비록 소수였지만 시대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업으로 규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이 사업을 주관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각 지역의 교육청, 학교,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긴급 과제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 청소년들이며 학교 청소년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현재 교육청 별로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학교청소년들의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는 곳도 많다. 또한 현재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로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잘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러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협력관계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수행 방법으로서의 우리 청소년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동계 및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자는 의견 역시 비중 있게 검토될 사안이다. 즉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청소년들이며 이들에게 주어진 교육 여건은 방학 기간 이외에는 자유로운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1세기 평생학습사회를 외치면서도 아직도 장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즉 학교출석률과 학교교육(내신성적)에 목을 매달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정작 이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따라서 참가 대상들에게 시간적 여유의 문제는 청소년교류사업의 주최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주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방학을 이용한 외국어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지적 역시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홈스테이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 실시의 방법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담당자들의 경험

과 지식에서 얻어진 선진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담당자 및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는 의견도 중요한 대목임에 분명하다.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사업의 항구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래 우리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하드웨어 작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아이디어화하는 사업 주체 세력 - 그것이 관이든 민간이든 - 의 소프트웨어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가 요구하는 21세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틀을 새로이 짜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사례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13개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은 국제관계의 조성·촉진과 지방 인재의 육성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13개 모델사례는 직접교류·체험위주의 교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3개 사례는 외국어 학습형태를 띠고 이루어졌다. 활동내용은 13개 사례 모두 청소년간 접촉에 의한 의견교류와 견학·탐방이 이루어졌고 문화교류활동이 이루어졌다. 홈스테이가 이루어진 경우가 6개 사례였으며 공동체험활동은 4개 사례였다. 13개 사례는 대체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류사업의 수행주체를 보면 13개 사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을 했으며 그 중 2개 사례만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했고 11개 사례는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교육기관 3자의 협조로 수행된 사업은 4개 사례였다. 참가

집단은 초·중·고등학생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한 사업은 4개 사업이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일반청년이나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사업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제대로의 성과를 기하도록 잘 실시된 것인 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 병술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기준을 참가자측 평가기준과 주체자측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참가자측 평가기준으로는 ①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류상대를 가졌는가? ②참가자도, 교류상대도 서로 배움이 있었는가? ③즐거움이 있었는가?(인간적 사귀, 의기투합, 경탄이나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④일정, 치안, 교통, 숙박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가? ⑤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는가? ⑥계속하여 참가하고 싶은 사업이었는가? 가 제시되었다.

주체자측 평가기준으로는 ①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②지속성 있는 사업인가? ③상호이익·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 ④점적인 교류에서 면적인 교류로 확산되고 있는가? ⑤표면적인 교류가 아닌 보다 깊은 이해가 수반되는 교류가 고려되고 있는가? ⑥이 외에 언어적인 장애는 없었는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참석 희망자가 제외되는 사례는 없었는가? 추진 상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13개 사례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의 13개 사례는 모두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에 의해서(12개 사례), 또는 양국 자치단체간 협의(사례1)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3개 사례 모두 분명한 교류상대를 갖고 추진되었으며 일정은 안전하게 관리되었고 사업마다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되었다. 다만 『사례9』 경기도 과천시와 미국 앨버타주 에어드러시와의 청소년교류의 경우 과천시가

상대자치단체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상대측의 방문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사례11』의 경기도 파주시와 중국 요녕성 금주시의 청소년교류의 경우 역시 중국측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교류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에서 상호교류와 교류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었다. 두 사례의 경우 쌍방적 교류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평가되며 기타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교류사업 목적은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에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사례 9』는 한국측의 일방적 방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상호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사례11』역시 상호이익이 전제되지만 상대측의 관심부족(경비부담으로 인한 수동적 경향)으로 쌍방교류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인데 이를 해소시켜 쌍방교류로 발전시킨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사례4』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와의 청소년스포츠교류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담당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조총련세가 강한 니가다현 시바타시가 조총련 중심에서 민단중심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불가피하게 안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과 과거사에 기인한 문제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적 교류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깊이 있는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군·구 단위에서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광역자치단체교류프로그램보다 더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례13』충청남도 부여읍과 일본 타자이후시·나고손과의 청소년교류는 역사적 교류관계를 조명해보는 사적지 탐방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사례12』충남천안시와 미국 오레곤주 비버턴시와의 청소년교류나 『사례3』안양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부시의 청소년교류의 민박교류 그리고 『사례10』서울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어린이 미술작품교류 전시회 등은 상

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교류사례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은 깊이 있는 교류가 되기 위한 전제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단위교류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운영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교류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를 보면 대상자 선발, 홈스테이 가정의 선정 등에 있어서 교육기관, 체육단체의 협력을 얻어 추진하고 있는 등 전 13개 단체 청소년교류사례 모두 참가자의 호응도가 좋았다고 판단된다.

교류효과의 확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사례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면에서 판단할 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1』 한국·일본광역자치단체간 청소년교류, 『사례2』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간의 교류, 『사례5』 전라북도와 일본가고시마현의 청소년교류 및 『사례6』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간의 청소년교류의 경우는 대상학생의 선발이나 시도 프로그램에 시군구가 참여하는 형태 등을 통해서 이를 학습하고 자체 개발해 가는 측면에서 확산효과가 컸다고 판단되며 『사례4』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간의 청소년스포츠경기교류경우는 청소년대상으로 한 교류에서 출발하여 금년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교류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교류가 자치단체가 직접주관하고 있어 민간단체가 위주의 교류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류의 면적확대를 위해서 해결해 나아갈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외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지만 국제교류는 참가자들이 언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숙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통역을 비롯한 의사소통문제는 교류사업 운영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공통의 과제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로써 교류에 있어서 일본측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사전협의나 답사가 있고 나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지

방자치단체도 이런 면에서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로는 『사례4』의 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와의 청소년스포츠교류 경기 교류사업에서는 경기종목과전인원에 비해 임원규모가 많아 과다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자체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스포츠교류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교류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지지만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네번째로 미국측과의 교류에 있어서 상대편 자매도시의 실제 교류추진주체는 자매도시가 아니라 자매도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라는 점이며 일본의 경우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교류협회를 조직하여 민·관이 함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추진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기준을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을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고려할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결과를 평가할 기준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하겠다. 자치단체는 독자적인 관심과 아이디어에 따라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국제교류사업의 모형과 기준이 무엇인 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한 평가기준을 갖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와 사례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할 때 사업결과에 대해 <표IV-23>과 같은 평가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표 IV-23>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결과 평가기준

평 가 영 역	평 가 항 목
프로그램 내용	-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나? - 분명한 교류상대가 있었나? - 피상적이 아닌 심도 있는 이해를 수반한 교류였나? - 상호이익, 이해를 도모하는 교류였나? - 언어적 장애를 해결했나? - 일정, 치안, 교통, 숙박 등이 안전했나?
참가자 참여도 및 만족도	-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나? - 참가자들이 새로운 배움이나 교류를 경험했나? - 참가자가 계속해서 참가하고 싶어하는가?
사업 효과	- 점적인 교류에서 면적인 교류로 확산되고 있는가? -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가?

다음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본다.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내용들과 담당자들의 견해를 보면 국가 차원의 평가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동시에 평가를 통한 지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의 결과 우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체계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추진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째, 관-민 협력 체제 구축

둘째, 자치단체-교육청-학교간의 연계 체제 구축

셋째, 모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중앙정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 및 관리(또는 국책연구기관이나 협회 등에 평가 관리를 위임)하는 체제 구축

어떠한 경우든 국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재정지원은 얼마나 되는가?

둘째, 프로그램 수행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프로그램의 양과 질은 어떠한가?

넷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다섯째, 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가?

여섯째, 교류 상대국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일곱째, 참여 대상은 얼마나 다양하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여덟째, 교류사업의 결과가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아홉째,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의 형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째, 사업(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여기에다 만약에 관-민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실시되는 국가 정책이 채택될 경우에는 바람직한 평가의 기준 항목으로서 다음 세 가지 정도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관에서 얼마나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가?

둘째, 관과 민이 얼마나 어떻게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관은 민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민은 관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아울러 만약에 자치단체-교육청-학교간의 연계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실시되는 국가 정책이 채택될 경우에는 바람직한 평가의 기준의 항목으로서 다음 세 가지 정도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행·재정적인 자원과 협력의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자치단체-교육청-학교간에 어떻게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는 각각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만약 모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만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수립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평가-제재”의 일차원적 통제관리 체제를 가능한 지양하고, 우수 모델 케이스 또는 실험 단체를 선발하여 이들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단체들도 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능동적·창의적으로 청소년국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의 다차원적 국가지원 관리체제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정보화, 지구촌 사회로의 변화는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청소년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회적, 산발적 사업 운영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집적,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현실에 비추어 국제교류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수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영리, 비영리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국가마다 자국의 사회적 사정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추진체계가 다르다.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투자모형이다. 국가는 정책과 사업기획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이에 참여하는 개인과 학교,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민간차원의 비영리단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여 국제교류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을 적극 육성·참여시키는 관-민 협동형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국제교류환경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일본에 유사하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을 육성, 참여시키는 형태가 적합하다. 국가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총체적 기획 속에 국제교류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지역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지역 국제교류자원개발, 모든 청소년에 공평한 개방된 기회 부여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되는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를 분석, 평가하였다.

1) 국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평가

2000년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업무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제교류지원과이다. 청소년교류 전담인력은 99년 8명에서 현재 4명으로 축소되었다. 청소년교류사업 예산은 청소년 총 예산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문화관광부는 1998년 8월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입안하면서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을 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지만 청소년 국제교류 전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되는 여건 속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사업 지원·육성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1) 정부간 교류사업 평가

국가의 청소년교류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비율은 20-30%선이며 2000년도에는 단체지원 사업의 감소로 이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정부간 교류사업이다. 청소년교류 전담 부서의 주 업무가 정부간 교류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 부서가 정책기능보다는 사업부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서가 직접 사업수행을 함으로써 교류상대국에 대한 국가적 책임, 공공부문의 원활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지만 빈번한 인사와 인원교체 등으로 프로그램 및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교류사업의 수행체

계를 공적 지원을 받는 에이전시 기구의 사업수행과 정부의 관리·감독의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청소년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를 별정직으로 두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보완한다.

정부의 직접 사업수행은 정부간 교류효과를 지방이나 민간에 확산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정부간 교류사업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는 사업수행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정부간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민 협력, 중앙-지방 연계의 정부간 교류사업 수행체계를 정립하여 정부간 교류사업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한다.

(2) 국가 지원사업 평가

국가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뿐 아니라 민간이나 자치단체의 애로를 해소하는 국제교류 기반조성사업이 필요하다. 국제교류정보망 구축,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전문지도력 양성,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국어 인력뱅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동기부여방안, 학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방안 등 기반조성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의 문화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상황을 선도해나가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부족하며 상황과 여건에 따른 수동적 대응 측면이 강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지원하는 국제교류기반과 여건조성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다. '99년도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체지원사업은 소수 유력 청소년단체의 사업 기획 안이 들어오면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한 사업이 일단 선정되어 실시되면 전년도 사업수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하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사업의 전환은 정책환경이 변화되어 시의성 있는 사업이 요청될 때, 전년도보다 나은 사업기획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이 중시되었기에 몇몇 단체의 사업기획이 선호되는 측면이 있었고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없었다.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약 1/3이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 뒤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성과 지속성 등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사업을 경제·통상교류 등의 부차적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교류사업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상대국의 요청을 계기로, ‘구색 맞추기’식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측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식전환이 필요로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절반정도이며 이 외에는 민간단체나 교육기관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30% 가량이며 자치단체의 보조에 민간단체나 참여자 부담이 합쳐지는 경우가 30% 가량으로 청소년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치단체의 60%만이 지방비에서 청소년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었다.

국제교류사업 참여집단은 초·중학생이 중심이 되고 있다. 참여집단의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청소년 및 농어촌지역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로청소년 및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사

회복지 및 직업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국가전략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내용으로는 견학·시찰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의 스포츠·캠프나 문화활동, 작품교류 활동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여 활동내용이 직접 체험위주의 활동으로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교류사업 실시 횟수는 연 1회가 보편적이다.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운영의 조직성이나 체계성, 지속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추진상의 애로점으로는 재정부담, 언어문제, 인력 등 지원체제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청소년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 이 외에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3) 평가기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현실을 고려해 향후 최소한 고려되어야 할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기획에 대한 자체평가 기준

첫째, 교류사업을 위한 안정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둘째, 구체적인 정책목표 하에 교류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교류 인프라 구축 및 동기부여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넷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선정, 관리, 평가되고 있는가?

(2)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기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재정지원은 얼마나 되는가?

둘째, 프로그램 수행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프로그램의 양과 질은 어떠한가?

넷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다섯째, 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가?

여섯째, 교류 상대국은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가?

일곱째, 참여 대상은 얼마나 다양하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여덟째, 교류사업의 결과가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아홉째,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의 형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째, 사업(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열한번째, 외부기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는가?

- 관에서 얼마나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가?

- 관과 민이 얼마나 어떻게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 평가하고 있는가?

- 관은 민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민은 관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3)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기준

<표 V-1>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 항목
프로그램	-교류목표와 주제가 분명한가? -참여집단과 교류상대가 구체화되어 있나? -사업별로 교류상대국과 상대집단은 다양한가? -교류활동내용이 참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인가? -사업별로 활동내용이 어느 정도 특색이 있고 다양한가? -교류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나? -참가자간의 접촉과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 -교류참가자를 위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가 구체화되어 있나? -교류사업의 예상효과가 분명한가?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전문지도를 확보하고 있나? -국제교류사업 경험이 있는가? -사업추진상의 애로와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동원, 활용하거나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가?
참여대상	-참여집단이 구체화되어 있나? -특정단체 소속이 아닌 일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가? -참여집단의 선발방법과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타당한가? -사업별로 참여집단의 형평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참여집단 모집 홍보방법은 효율적인가?
예산편성 및 지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일정부분 있는가? -국고지원요청액과 자체예산의 구분되어 편성·사용되고 있는가? -예산사용내역이 구체화되어 있고 비합리적인 예산 계획은 없는가?

2. 정책제언

(1) 청소년국제교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간 교류사업의 수행보다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한 여건조성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선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전담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청소년의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정책목표 설정, 재원조성, 전문인력 훈련 및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정보망 구축 등 국제교류기반조성사업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수행방식을 전문성과 지속성, 교류효과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청소년국제교류센터와 국제교류전문기관을 정부간 교류사업의 에이전시로 두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교류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방안이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단기적 처방으로서 빈번한 인원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청소년국제교류를 담당자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확보한다.

정부담당부서만이 수행하는 교류사업 수행방식에서 교류효과의 확대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관-민 연계협력과 중앙-지방 연계협력 체계로 전환한다. 즉,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官)에서 수행하기보다는 협회, 동아리, 조합, 연대, 자원봉사단체, 청소년수련관 등 민(民)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官)은 행·재정적 지원만

을 하고, 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는 관-민 협력·청소년국제교류 사업수행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정부간 교류사업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부간 교류사업의 효과를 지역에까지 확산시킨다.

(3) 외교통상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부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 관련 교류 기능의 총괄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국제교류재단을 설치·운영한다. 교육교류, 재외동포청소년지원 및 교류, 학교간 자매결연, 청소년단체 교류, 직업훈련을 위한 연수, 학교수학여행 등 청소년 국제교류관련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조정할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 각 부처가 관련예산을 확보하되 청소년 국제교류전문기관인 ‘청소년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재원부족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심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기관·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킨다.

(5) 범정부 차원의 전국 규모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개발한다. 재원이나 인력자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의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재원 및 인력의 부족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교류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실

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취약한 역량을 보강한다.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 청소년 국제교류담당자에 대한 연수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학교, 수련시설 등의 청소년국제교류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이나 연수를 실시한다.

(7)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체험학습에 포함시켜 방학기간 외에도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 청소년들이다. 학교 청소년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가 없을 때 국제교류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학생 청소년대상 국제교류프로그램이 대부분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학기 중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학기 중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교육당국과의 정책협의를 이루어져야 한다.

(8)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홈스테이를 권장하고 이를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홈스테이는 그 사회의 고유한 생활방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국제교류활동이다.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 선발하여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프로그램 자원으로 활용한다. 홈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스테이 가정에 보조금이나 면세 혜택을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학생청소년의 경우 홈스테이 참여를 외국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참고문헌

- 김병관(1997). 해외봉사활동의 원칙과 실제. 한국국제협력단
- 김상태·유지운(1997). 한국여행업 발전방안. 서울 : 한국관광연구원.
- 국제문화교류원(2000).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 김경준(1995).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 청소년개발원.
- 김현덕(1996).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서울.
- 노화준·정정길(1984). 정책평가론.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문화체육부(1997). 주요업무추진계획. 서울 :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1998). 주요업무추진계획. 서울 :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1999). 주요업무추진계획.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1997). 청소년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1999). 청소년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2000년도 시행계획. 서울 : 문화관광부.
- 양기용·김상묵·김보경·이창현(1996). 경기도정 평가자료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 양기용·임재현·하혜영·김선경(1998). 광역자치단체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제1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평가를 중심으로-.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 윤철경·김안나·김성희(1999). 한·일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 윤철경 · 김안나(1999).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모형 개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병술(1999). 21세기 한 · 일 지방자치단체간의 청소년교류 활성화 전략. 21세기 새로운 한 · 일 관계와 청소년교류 발전전략 워크숍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오(1999). 청소년 국제 교류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 김영한 · 서정아(1999). 청소년 정책 · 사업 종합평가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영승(1997). 청소년학 총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영승 · 이민희 · 이선재 · 조수경 · 서정은(1999).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문화관광부.
- 홍문식 · 장영식 · 오영희(1995). 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 · 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Billis, David & Harris, Margaret (Ed.) (1996). *Voluntary Agencies: Challenges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London : Macmillan Press.
- Central Bureau for Educational Visits & Exchanges (1997). *Working Holidays 1997*. London : Page Bros.
- Dey, Krishno and Westendorff, David (Ed.) (1996). *Their Choice or Yours : Global Forces or Local Voices?* Geneva :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 SAGE Publications.

United Nations University (1996). *Volunteers Against Conflict*.
United Nations.

NGO情報局 (1993). 国際ボランティア NGOガイドブック. 東京: 三省堂.

Paxton, Midori (1996). 国際ボランティアガイド. 東京: The Japan
Times.

原田種雄 (1992). 国際理解教育のキーワード. 東京: 有斐閣.

毎日新聞社 (1997). 国際ボランティア講座. 東京: エピック.

齊藤千宏 (1997). NGO国際ボランティアレポート. 東京: 明石書店.

五月女光弘(1997). 日本の国際ボランティア. 東京: 丸善.

NGO活動推進センター(JANIC). あなたもできる国際ボランティア. 東京:
ジャパンタイム.

<http://www.youthforunderstanding.org/index.htm>

<http://www.oneworld-jobs.org>

<http://europa.eu.int/en/comm/dg22/socrates.html>

<http://www.bbj.de/potsdam/news3.htm>

<http://chi.co.kr/homeindex.htm>

<http://chi.co.kr/exchinde.htm>

<http://www.jica.go.jp/english/activities/schemes/01tec.html>

<http://www.jica.go.jp/english/activities/schemes/02tec.html>

부 록

1. 정부간 교류사업현황(1996-2000)
2. 국가지원 교류사업현황(1996-2000)
3. 지방자치단체간 청소년 국제교류현황
4.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모델사례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조사서

<부록 1> 정부간 교류사업현황(1996-2000)

		'96	'97	'98	'99	2000
일본	한·일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¹⁾ 제원 : 49,682천원 ²⁾ 기간 : 9.4~9.18(15) ³⁾ 인원 : 40/40 ³⁾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기간 : 8.27~9.10(15) /10.22~11.5(15) 인원 : 39/40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9.1~9.15(15) /10.14~10.28(15) 인원 : 38/40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제원 : 6,849천원 기간 : 9.23~10.13(15) /11.3~11.17(15) 인원 : 39/40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9.27~10.11(15) /11.1~11.15(15) 인원 : 40/40
	21세기 우정의 계획	주관 : 문화체육부 (파견) 기간 : 7.3~8.1(30) 인원 : 청소년 50 지도자 50	주관 : 문화체육부 (파견) 기간 : 7.~8.(30) 인원 : 청소년 50 지도자 50	주관 : 문화관광부 (파견) 기간 : 7.1~7.28(28) 인원 : 청소년 50 지도자 49	주관 : 문화관광부 (파견) 기간 : 7.7~8.3(28) 인원 : 청소년 50 지도자 50	주관 : 문화관광부 기간 : 7.5~8.1(28) 인원 : 청소년 50 지도자 50
말레이시아	한·마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제원 : 22,350천원 기간 : 8.21~8.30(10) /7.5~7.16(12) 인원 : 지도자 15 /지도자 15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제원 : 6,883천원 기간 : 8.6~8.15(10) /6.17~6.27(11) 인원 : 16 /지도자 13		주관 : 문화관광부 제원 : 8,121천원 기간 : 9.12~9.22(11) /5.11~5.21(11) 인원 : 지도자 15 /청소년 9 지도자 6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11.15~11.24(10) /11.8~11.17(10) 인원 : 지도자 15 /15

- 1) 1년 이내에 초청과 파견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초청/파견'으로 표시하였음.
 2) 초청사업은 한국정부부담, 파견사업은 상대국 정부부담이므로 본 재원은 한국정부부담분을 의미함.
 3) 초청/파견이 병행되는 사업의 기간과 인원은 '초청기간/파견기간', '초청인원/파견인원'으로 표시하였음.

		'96	'97	'98	'99	2000
중국	한·중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20,465천원 기간 : 5.21~5.30(10) /5.25~7.4(10) 인원 : 지도자 20 /20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20,789천원 기간 : 5.21~5.30(10) /6.24~7.4(11) 인원 : 20/20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재원 : 1차 7,341천원 2차 6,879천원 기간 : 1차 5.25~5.30(5) 7.27~8.5(10) 2차 12.15~12.24(5) /11.16~11.25(10) 인원 : 1차 지도자 20 /21 2차 지도자 20 /지도자 19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재원 : 12,965천원 기간 : 1차 5.19~5.28(10) /6.30~7.9(10) 2차 11.10~11.19(10) /9.8~9.17(10) 인원 : 1차 지도자 19 /20 2차 지도자 20 /20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1차 5.18~5.27(10) /6.21~6.30(10) 2차 11.1~11.10(10) /9.19~9.28(10) 인원 : 1차 지도자 20 /지도자 20 2차 20/20
모로코	한·모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20,615천원 기간 : 10.1~10.11(11) /11.18~11.23(12) 인원 : 지도자 10 /11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 재원 : 13,362천원 기간 : 8.17~8.24(8) 인원 : 청소년 5 지도자 2	주관 : 문화관광부 (파견) 기간 : 8.30~9.9(11) 인원 : 10
러시아	한·러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파견) 재원 : 53,556천원 기간 : 5.6~5.20(15) 인원 : 지도자 2				

		'96	'97	'98	'99	2000
필리핀	한·필리핀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19,860천원 기간 : 4.21~4.28(8) 인원 : 20/24 /12.2~12.11(10)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3,953천원 기간 : 10.21~10.28(8) 인원 : 청소년 9 /지도자 8 /16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11.15~11.24(10) /12.11~12.20(10) 인원 : 10/10
핀란드	한·핀란드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20,000천원 기간 : 4.15~4.27(7) 인원 : 9.2~9.8(7) /지도자 5 /지도자 5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11,924천원 기간 : 6.2~6.8(7) /8.31~9.9(10) 인원 : 지도자 5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재원 : 8,239천원 기간 : 11.2~11.7(6) /5.12~5.21(10) 인원 : 지도자 5 /청소년 4 지도자 3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재원 : 9,30~106(7) /5.16~5.22(7) 인원 : 6 /지도자 5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10.25~10.30(6) /5.16~5.21(6) 인원 : 지도자 3 /7
헝가리	한·헝가리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파견) 재원 : 25,727천원 기간 : 8.21~9.1(12) 인원 : 15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9.19~9.25(7) /8.22~8.28(7) 인원 : 5/5
사우디아라비아	한·사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17,659천원 기간 : 10.19~10.28(10) /11.16~11.25(10) 인원 : 10/10	주관 : 문화체육부 (초청/파견) 재원 : 9,21~10.1(11) /11.24~12.3(10) 인원 : 10/11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재원 : 6,325천원 기간 : 7.1~7.9(9) /11.17~11.28(12) 인원 : 10/10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재원 : 9,951천원 기간 : 6.23~7.2(5) /10.16~10.25(10) 인원 : 10/10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파견) 기간 : 7.19~7.29(11) /5.23~6.1(10) 인원 : 10/10

	'96	'97	'98	'99	2000
칠레	한·칠레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관광부 (조정) 재원 : 2,380천원 기간 : 7.20~27(8) 인원 : 1	주관 : 문화관광부 (파견) 재원 : 8,658천원 기간 : 5.28~6.6(10) 인원 : 지도자 5		
베트남	한·베트남 정부간 교류			주관 : 문화관광부 (조정/파견) 재원 : 11,409천원 기간 : 10.25~11.3(10) 인원 : 20/19	주관 : 문화관광부 (조정/파견) 기간 : 6.7~6.16(10) /9.28~10.5(10) 인원 : 20/20
몽고	몽고 파견·조정				주관 : 문화관광부 (조정/파견) 기간 : 8.31~9.7(8) /7.24~7.31(8) 인원 : 지도자 14 /15

〈부록 2〉 국가지원 교류사업현황(1996-2000)

정부간협력사업	'96	'97	'98	'99	2000
한·일 청소년교류 베트워킹포럼		주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 재원 : 2,545천원 기간 : 5.4~11(8) 인원 : 청소년 18 지도자 7		주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 재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간 : 10.29~11.3(6) 인원 : 50	
한·말레이시아 청소년 친선교류	주관 : 청협(초청·파견) 재원 : 34,528천원 기간 : 6.17~7.1(15) 7.16~7.30(15) 인원 : 30/20	주관 : 청협(초청·파견) 재원 : 28,816천원 기간 : 8.29~9.12(15) /8.8~8.22(15) 인원 : 20/19			
한·아세안 청소년 교류			주관 : 청협(초청·파견) 재원 : 아세안협력기금 기간 : 8.25~9.2(9) 인원 : 150	주관 : 문화관광부(파견) 재원 : 아세안협력기금 기간 : 99.2.1~13(13) 인원 : 24	주관 : YMCA(초청·파견) 재원 : 한·아세안협력기금 기간 : 2.19~2.28(10)/12월 인원 : 135/24
한·베트남 청협간 청소년교류		주관 : 청협(초청·파견) 재원 : 14,503천원 기간 : 11.5~13(9) /6.10~19(10) 인원 : 지도자 9 /청소년 9 지도자 3 내용 : 탐방, 견학, 민박			

국제기구 협력사업	'96	'97	'98	'99	2000
청소년 국제기구 (WAY, AYC) 분담금 지원	주관 : 청협 재원 : \$2,000	주관 : 청협 재원 : \$2,000	주관 : 청협 재원 : \$2,000	제원 : \$2,000	
아시아 청소년 회의 (AYC) 사무국 지도활동	주관 : (파견) 재원 : 50,000천원	주관 : 청협(초청·파견) 재원 : \$20,000+23,125천원 내용 : AYC 이사회 기간 : 7.6~9(4) /5.12~12.31 인원 : 지도자 1			
국제기구 회의(파견) 및 초청	주관 : 청협(파견) 내용 : WAY 재원 : 3,000천원 기간 : 11.21~24(4) 인원 : 1	주관 : 청협(초청) 내용 : AYC 기간 : 7.6~7.9(4) 인원 : 16	주관 : 청협(파견) 내용 : AYC 재원 : 4,238천원 기간 : 10.9~14(6) 인원 : 12	주관 : 청협(파견) 내용 : WAY 기간 : 11.20~25(6) /12월 중(4) 인원 : 지도자 2 /지도자 2	주관 : 문화관광부 (파견) 내용 : WAY, AYC 재원 : 2,160천원 인원 : 4
청소년 국제학술회의 참가	주관 : 청협(파견) 재원 : 4,435천원 내용 : 세계청소년포럼 /세계청소년포럼 기간 : 노르웨이 7.2~7.5(4) /오스트리아 11.25~11.29(5) 인원 : 2 /지도자 1,	주관 : 청협(파견) 재원 : 3,837천원 내용 : 아시아청소년포럼 기간 : 말레이시아 5.12~15(4) 인원 : 3	주관 : 청협(초청) 내용 : 세계기독교학생 중 연맹대학원회 재원 : 4,450천원 기간 : 6.28~7.7(10) 인원 : 40	주관 : (파견) 내용 : 아시아태평양 청소년포럼 재원 : 일본 기간 : 9.9~13(15) 인원 : 5	

민간단체 지원사업	'96	'97	'98	'99	2000
사할린 봉사활동 및 청소년과의 현지 청소년과의 교류				주 관 : 대한적십자사 / 청소년적십자사(파견) 재원 : 11,457천원 인원 : 27 내용 : 봉사	주 관 : 대한적십자사 / 청소년적십자사(파견) 재원 : 20,000천원 기간 : 8월(10) 인원 : 30
한·중국 교포 청소년 문화제				주 관 : 홍사단(파견) 재원 : 19,325천원 기간 : 7.31~8.10(11) 인원 : 45	주 관 : 홍사단(파견) 기간 : 7월(7) 인원 : 70
청소년 공동체 훈련 캠프				주 관 : 한국YMCA 진국연맹(파견) 재원 : 8,661천원 기간 : 11.1~1.25(60) 인원 : 20	주 관 : 한국YWCA 진국연맹(파견) 재원 : 10,000천원 기간 : 12(15) 인원 : 20(청소년)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캠프			주 관 : 한국청소년연맹 (파견) 기간 : 호주 8.7~14(8) 인원 : 33 내용 : 체험·강화		

	'96	'97	'98	'99	2000
민간단체 지원사업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주관 : 한국유스호스텔 연합회(초청) 재원 : 일본 기간 : 8.27-28(2) 인원 : 419 내용 : 견학·탐방				
한·일 청학간 (청소년) 교류	주관 : 청학(초청·파견) 재원 : 16,225천원 기간 : 11.20-11.29(10) 인원 : 717-726(1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학(초청·파견) 재원 : 18,653천원 기간 : 11.17-25(10) 인원 : 731-89(1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학(초청·파견) 재원 : 13,779천원 기간 : 11.16-25(10) 8.17-26(10) /11.30-12.3(4) 10.31-11.3(4) 인원 : 청소년10/지도자 5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학(초청·파견) 재원 : 13,292천원 기간 : 11.9-11.28(10) 7.30-8.8(10) /11.28-12.1(4) 10.5-10.8(4) 인원 : 청소년10/지도자5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학(초청·파견) 재원 : 18,000천원 기간 : 11월-12월 8월-10월 11-12월(4) 10월(4) 인원 : 청소년10/지도자5 내용 : 견학·탐방
한·일 단체간 청소년 교류	주관 : 청소년교류진흥 협회(초청·파견) 재원 : 10,000천원 기간 : 10.8-14(7) 인원 : 712-711(1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소년교류진흥 협회(초청·파견) 재원 : 9,700천원 기간 : 10.14-20(7) 인원 : 725-83(1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소년교류진흥 협회(초청·파견) 재원 : 8,260천원 기간 : 10.13-19(7) /7.26-8.3(9) 인원 : 12/12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소년교류진흥 협회(초청·파견) 재원 : 8,310천원 기간 : 11.2-8(7) /7.29-8.4(7) 인원 : 12/12 내용 : 견학·탐방	
국제자원 (봉사)활동 연합캠프				주관 : 대한YWCA연합회 (초청) 재원 : 18,800천원 기간 : 7.5-10(6) 인원 : 200 내용 : 봉사	주관 : 대한YWCA연합회 (초청) 재원 : 20,000천원 기간 : 7월(6) 인원 : 200 내용 : 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96	'97	'98	'99	2000
한·미 청소년 교류				주관 : 일암청소년육성 재단 (파견) 기간 : 7.26~8.5(10) 인원 : 17(청소년)	
대 스카우트 해외 봉사활동	주관 :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파견) 재원 : 25,094천원 기간 : 중국 7.24~8.3(11) 스리랑카 12.19~12.15 인원 : 14/14 내용 : 봉사	주관 :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파견) 재원 : 11,270천원 기간 : 중국 7.19~29(11) 인원 : 14 내용 : 봉사			
국제 청소년 광장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141,161천원 기간 : 7.8~15(8) 인원 : 181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118,912천원 기간 : 7.7~14(8) 인원 : 153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105,170천원 기간 : 7.7~14(8) 인원 : 157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88,011천원 기간 : 7.6~13(8) 인원 : 12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86,632천원 기간 : 8.8~15(8) 인원 : 60 내용 : 견학·탐방
동계 국제 청소년 캠프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38,873천원 기간 : 12.15~21(7) 인원 : 5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35,304천원 기간 : 12.10~16(7) 인원 : 64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청첩(초청) 재원 : 54,766천원 기간 : 12.15~22(8) 인원 : 99 내용 : 견학·탐방		

	'96	'97	'98	'99	2000
민간단체 지원사업		주관 : 서울 YWCA(초청) 제원 : 40,708천원 기간 : 미국 8.11 ~ 21(11) 인원 : 36 내용 : 진학·탐방			
교포청소년 교국연수		주관 :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파견) 제원 : 37,195천원 기간 : 중국 7.25 ~ 8.2(9) 말레이시아 9.3 ~ 12(10) 인원 : 23/26 내용 : 야영	주관 : 한국청소년연맹 (파견) 제원 : 14,089천원 기간 : 태국 10.26 ~ 11.2(8) 인원 : 20 내용 : 야영	주관 : 한국청소년연맹 (파견) 제원 : 19,024천원 기간 : 태국 11.30 ~ 12.12(13) 인원 : 20 내용 : 야영	주관 : 청소년 연맹 제원 : 28,000천원 기간 : 태국 11.6 ~ 11.14(9) 인원 : 30 내용 : 야영
청소년 국제 야영활동					
한·일 스키우트 교류				주관 :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파견) 제원 : 일본 기간 : 7.23 ~ 8.4(13) /8.3 ~ 18(16) 인원 : 140/34	주관 : 보이스카우트 /청소년연맹(파견) 제원 : 일본 기간 : 7 ~ 8월 인원 : 174
국제 청소년 해양축제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초청) 제원 : 39,064천원 기간 : 7.23 ~ 29(7) 인원 : 145 내용 : 해양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초청) 제원 : 34,507천원 기간 : 7.23 ~ 29(7) 인원 : 160 내용 : 해양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초청) 제원 : 24,300천원 기간 : 7.23 ~ 29(7) 인원 : 120 내용 : 해양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초청) 제원 : 26,444천원 기간 : 7.26 ~ 8.4(10) 인원 : 120 내용 : 해양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초청) 제원 : 30,000천원 기간 : 7월(10) 인원 : 120 내용 : 해양

민간단체 지원사업	'96	'97	'98	'99	2000
유스호스텔 아시아 개발회의				주관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조정) 기간 : 101~5(5) 인원 : 지도자 49 내용 : 회의	
세계한민족 (국외입양) 청소년 만남의 광장	주관 : 서울 YWCA(조정) 재원 : 31,300천원 기간 : 6.24~7.6(13) 인원 : 50 내용 : 만남	주관 : 서울 YWCA(조정) 재원 : 38,816천원 기간 : 6.23~7.11(19) 인원 : 30 내용 : 만남	주관 : 서울 YWCA(조정) 재원 : 35,163천원 기간 : 6.22~7.10(19) 인원 : 33 내용 : 만남	주관 : 대한YWCA연합회 (조정) 재원 : 31,626천원 기간 : 6.21~7.9(19) 인원 : 60 내용 : 만남	주관 : 대한YWCA연합회 (조정) 재원 : 39,000천원 기간 : 6~7월(3주) 인원 : 62 내용 : 만남
포럼 청소년 해외연수	주관 : 청첩(파견) 재원 : 52,906천원 기간 : 호주, 뉴질랜드 11.5~15(11) 인원 : 24 내용 : 견학·탐방				
청소년 유리얼 해외탐방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파견) 재원 : 109,100천원 기간 : 중국 7.3~14(12) /일본 8.8~15(8) 인원 : 50/5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파견) 재원 : 98,589천원 기간 : 중국 7.5~14(10) /일본 8.14~19(6) 인원 : 49/79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파견) 재원 : 50,650천원 기간 : 중국 8.1~10(10) /일본 8.13~18(6) 인원 : 35/4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파견) 재원 : 26,894천원 기간 : 중국 8.6~15(10) 인원 : 40 내용 : 견학·탐방	

민간단체 지원사업	'96	'97	'98	'99	2000
한미족 유족자 청소년 캠프	주관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파견) 재원 : 25,532천원 기간 : 중국 7.22~8.7(17) 인원 : 72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파견) 재원 : 13,959천원 기간 : 중국 8.5~13(9) 인원 : 85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파견) 재원 : 19,594천원 기간 : 중국 8.2~10(9) 인원 : 50 내용 : 견학·탐방	
아시아 청소년 축제	주관 : 아시아청소년회의 (조청) 재원 : 181,039천원 기간 : 8.5~12(8) 인원 : 113 내용 : 공연				
농촌 청소년 국제 연수	주관 : (파견) 재원 : 87,410천원 기간 : 일본 6.23~7.4(12) /독일·스위스 9.11~22(12) 인원 : 20/20 내용 : 견학·탐방				
주한 외국인 청소년과 교류 (아리랑 청소년 캠프)	주관 : 유네스코(조청) 재원 : 9,432천원 기간 : 8.12~16(5) 인원 : 46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유네스코(조청) 재원 : 8,396천원 기간 : 8.11~16(6) 인원 : 66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유네스코한국청소년연맹 /한국다보(조청) 재원 : 34,879천원 기간 : 8.10~15(6) /12.21~23(3)/11.28~30(3) 인원 : 88/69/10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청) 재원 : 16,377천원 기간 : 8.9~14(6)/8.7~14(8) 인원 : 81/2046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청) 재원 : 20,000천원 기간 : 8월(6) 인원 : 100 내용 : 견학·탐방

민간단체 지원사업	'96	'97	'98	'99	2000
아시아· 태평양 젠더리 대회					주관 : 한국여성개발원 (초청) 재원 : 450,000천원 기간 : 8.7~14(8) 인원 : 18,000
국제 청년 아영				주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초청) 재원 : 17,286천원 기간 : 7.15~24(10) 인원 : 115 내용 : 아영	주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초청) 재원 : 25,000천원 기간 : 7월(10) 인원 : 130 내용 : 아영
늦어준 청소년 지도자 (선진국) 연수(일본)	주관 : 4-H 후원회(파견) 재원 : 13,092천원 기간 : 10.16~22(7) 인원 : 1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4-H 후원회(파견) 재원 : 16,150천원 기간 : 10.21~27(7) 인원 : 1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4-H 후원회(파견) 재원 : 14,840천원 기간 : 10.25~31(7) 인원 : 10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4-H 후원회(파견) 재원 : 21,049천원 기간 : 11.16~22(7) 인원 : 14 내용 : 견학·탐방	주관 : 4-H 후원회(파견) 재원 : 22,000천원 기간 : 10월(7) 인원 : 14 내용 : 견학·탐방
청소년 교류 사후평가 및 관리	주관 : 청소년교류 진흥협회 재원 : 18,890천원	주관 : 청소년교류 진흥협회 재원 : 17,684천원 내용 : 교류현황 전산 관리, 민박지침서 등 발간			

	'96	'97	'98	'99	2000
지도자 교류사업	한·(중) ·일 청소년 지도자 회의	주관 : 청협(초청) 재원 : 10,324천원 기간 : 일본·중국 57~12(6) 인원 : 지도자 20 내용 : 회의	주관 : 청협(파견) 재원 : 1,458천원 기간 : 일본 6.3~5(3) 인원 : 지도자 4 내용 : 회의	주관 : 청협(파견) 재원 : 2,991천원 기간 : 일본 6.16~18(3) 인원 : 지도자 5 내용 : 회의	주관 : 문화관광부 (초청) 재원 : 3,870천원 기간 : 일본 4월 인원 : 지도자 5 내용 : 회의
	청소년 지도자 선진국 연수	주관 : 청협(파견) 재원 : 34,440천원 기간 : 미국·캐나다 5.30~6.12(14) 인원 : 지도자 15 내용 : 전학·탐방	주관 : 청협(파견) 재원 : 27,055천원 기간 : 미국·캐나다 11.18~21(12) 인원 : 지도자 14 내용 : 전학·탐방		
기반 조정사업	워킹홀리데이 지원센터			주관 : 한국관광공사 내용 : 정보망운영	
	세계 청소년 정보망 운영	주관 : 유네스코 재원 : 39,400천원 내용 : 정보망운영	주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재원 : 33,915천원 내용 : 정보망운영	주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재원 : 32,700천원 내용 : 정보망운영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주관 : 문화체육부 (파견) 재원 : 지자체 기간 :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6.11~23(19) 인원 : 공무원 14 내용 : 전학	주관 : 문화체육부 (파견) 재원 : 지자체 기간 : 독일, 프랑스 6.9~19(11) 인원 : 공무원 15 내용 : 전학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제교류 현황(2000.9.18 현재)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형 태(교류횟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68	서울특별시	대만 타이베이시	27	2	1			24	시립어린이합창단교류(2)
71	서울특별시	터키키안카라	14		1			13	
73	서울특별시	하와이 호놀룰루	23	2	3			18	한미합동보이스카웃야영대회(2)
76	서울특별시	샌프란시스코	45	3	1			41	소년합창단방한·망미공연(2)
77	서울특별시	브라질 상파울로	25		3			22	
82	서울특별시	콜롬비아 보고타	9		1			8	
84	서울특별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1	2	1	4	2	32	청소년매드민턴(1), 축구(2)
88	서울특별시	일본도쿄도	34		1		1	32	
91	서울특별시	소련모스크바	27		2		2	23	
91	서울특별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36	4	1	3		28	대학간교류(1),대학축구팀(3)
91	서울특별시	프랑스파리	12		1			11	
92	서울특별시	멕시코시티	33	5	2			26	국제아동서화전참가(5)
93	서울특별시	중국베이징시	43	5	1		1	36	대학생방문(1),청소년배구대회(4)
95	서울특별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14	1	1			12	대학생초청(1)
96	서울특별시	베트남하노이	14	1			1	12	대학생초청(1)
96	서울특별시	폴란드 바르샤바	8				2	6	
97	서울특별시	이집트카이로	6		1			5	
2000	서울특별시	이태리로마	3		2			1	
95	중 로 구	중국 북경동성구	5		1		1	3	
96	중 로 구	몽골 울란바토르시수 흐바타르구	4					4	
99	중 로 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시티	1					1	
95	용 산 구	중국 북경시천무구	1		1				
97	용 산 구	베트남퀴논시	2				1	1	
97	용 산 구	미국 세크라멘토시	2				1	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체 제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6	성 동 구	중국북경회유현	1					1	
96	광 진 구	중국북경방산구	11				7	4	
97	동대문구	중국북경연경현	3				1	2	
94	중 랑 구	중국북경승문구	7					7	
96	성 북 구	중국북경순의현	1					1	
98	성 북 구	소련 모스크바동북 구청	1					1	
97	성 북 구	중국상해가정구	2					2	
99	강 북 구	중국심양대동구	2					2	
96	도 봉 구	중국북경창평구	6					6	
94	노 원 구	중국심양화평구	1					1	
88	은 평 구	호주켄터베리시	7					7	
95	서대문구	중국북경해전구	7					7	
96	마 포 구	중국 북경석경산구	12					12	
95	마 포 구	중국장춘조양구	10	2			2	6	초등학교간교류(2)
94	강 서 구	호주 펜리스시	3		1		1	1	
98	강 서 구	산둥성 초원시	5				4	1	
96	금 천 구	상해시보신구	5					5	
95	영등포구	북경시문두구구	6				1	5	
95	동 작 구	북경시 평곡현	6					6	
97	동 작 구	몽골 비안주르호구	5	1				4	99년이후교류두절
97	동 작 구	길림성돈화시	4					4	
95	관 악 구	북경시 대흥현	16		6	1	2	7	
91	서 초 구	일본스기나미구	14	4		1		9	어린이그림전시(1),초등생축구(2)
92	서 초 구	모스크바유고 자빠드니구	7					7	
98	서 초 구	산둥성청도시 노산구	6					6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활 동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4	송 파 구	파라과이 아순시온	8		1			7	
94	송 파 구	키자흐스탄 키리킨다	7	1				6	대학생1명단기교육접수(3개월)
95	송 파 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20	8	6			6	어린이미술작품교류(2), 고교교환방문(4),청소년축구(2)
96	송 파 구	길림성통화	6				4	2	
95	강 동 구	북경시풍대구	7				2	5	
96	강 동 구	위싱톤주켄트시	4				1	3	
99	강 동 구	몽골울란바트로 사승가노호르힌구	3				1	2	
95	구 로 구	중국청도시평루	14				7	7	
66	부산광역시	대만카오슝	19		7			12	
67	부산광역시	로스앤젤레스	14		4			10	
76	부산광역시	일본시모노세키	26	10	2	1	1	12	청소년교류(7),중학생연수(2), 초중고 교육시찰단(1)
83	부산광역시	스페인바르셀로나	9			1	1	7	
85	부산광역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4					4	
92	부산광역시	소련블라디보스톡	19	2	3			14	초등학생수업참관(1),어린이합창단파 견(1)
93	부산광역시	중국상하이	24		1	1	5	17	
94	부산광역시	인니 수라바야	8	1	2			6	고교간자매결연(1)
94	부산광역시	호주빅토리아주	13				1	12	
95	부산광역시	멕시코티후아나	6					6	
95	부산광역시	베트남호치민시	12				6	6	
96	부산광역시	뉴질랜드오클랜드	8	1	3			4	오클랜드대학생방문(1회7명)
99	부산광역시	칠레발파라이소	2				1	1	
89	부산광역시	일본후쿠오카	25	1	3	1	3	17	청소년교류(1)
95	서 구	중국장하시	4				4		
96	동 구	산둥성 연태시지부구	4				4		
96	영 동 구	상해시노만구	12					12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황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7	동 래 구	상해시홍구구	10		1	1	1	7	청소년예술단초청(1), 동래고축구단방문(1)
94	북 구	산둥성 청도시[교주시]	8				3	5	
94	해운대구	호주멜리	1					1	
94	사하구	천진시동려구	1					1	
98	연제구	일본사카현사카시	1					1	
96	수영구	중국금주구	5				5		
97	수영구	인도네시아바당시	1					1	
96	사상구	중국감정자구	6				5	1	
81	대구광역시	미국아틀란타시	11		2		5	4	
90	대구광역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10		3		3	4	
93	대구광역시	중국청도시	25		6	2	2	15	
94	대구광역시	브라질 미나세라이스주	7		3			4	
97	대구광역시	일본 히로시마시	17		9	2		6	
97	대구광역시	러시아 상트페테르 부르크시	8		3		4	1	
98	대구광역시	이태리밀라노시	23	2	6		2	13	섬유패션분야장학생과전(2)
91	달서구	미국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	6	2				4	중학교자매결연(2)
94	서구	천진시허서구	6		1		1	4	
94	수성구	호주뉴사우스웨 일스주블랙티운 시티	2					2	
61	인천광역시	미국버뱅크시	12	1		1		10	초중고생미술품전시(1)
83	인천광역시	미국캘리포니아시	12	3	2		1	6	초중고생미술품출품(2), 청소년방한(1)
86	인천광역시	미국 앵커리지	10	1	3			6	소년야구단방한(1)
88	인천광역시	일본 가타큐슈시	24	2	2	1	5	14	청소년교양악단(1), 고교생친선방한(1)
93	인천광역시	중국천진시	12	1			3	8	국제아동예술제참가(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칫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7	인천광역시	베트남 하이퐁시	8				1	7	
2000	인천광역시	파나마시	3				1	2	
98	서 구	요녕성동향시	4				2	2	
98	부 평 구	요녕성호로도시	13		1		5	7	
96	남 구	북경시밀운현	4	1				3	학생탁구대회(1)
82	광주광역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26	3	4		3	16	양시학생민박교류(1), 초등학교간자매 결연(1), 어린이축구경기(1)
96	광주광역시	광둥성평저우시	19		3		5	11	
68	광주광역시	대만타이난시	14					14	
97	광주광역시	인도네시아메단시	11	4			2	5	학생민박교류(2), 학생교류사업협의(1), 메단시대학생장학금전달(1)
97	등 구	충주광역시동산구	12		2	1	3	6	
95	서 구	청도시시북구	10		2		8	0	
97	광 산 구	천진시진남구	14				10	4	
87	대전광역시	사마테현오다시	22	11	1		1	9	청소년친선국악연구단방문(6), 청소년 국악연수실시(3), 대덕중학교대표단 오다시방문(2)
89	대전광역시	위싱턴주 시애틀시	23	1	4		2	16	시애틀컴국제청소년축구대회(1)
94	대전광역시	헝가리부다페스트	15	1	1		6	7	대학생간상호교류(1)
94	대전광역시	강소성남경	37		10	5	6	16	
96	대전광역시	캐나다 알버타주캘거리시	9		1		2	6	
96	대전광역시	멕시코 할리스코주과달라하라시	9		3	1	2	3	
99	대전광역시	스웨덴웁살라시	6	1	2			3	대학교류(1)
95	서 구	중국심양심학구	5		1		3	1	
97	중 구	필리핀메트로마닐라라본시	14		3		2	9	
97	중 구	칭혜성서령시	7				3	4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7	유 성 구	대련시서장구	3		1		1	1	
68	울산광역시	아마구제현하기시	69	4	1	7	1	55	청소년스포츠대회(4)
81	울산광역시	데만화런시	20					20	※대만과국교단절후교류중단
87	울산광역시	오래곤주 포틀랜드시	46	4	5		1	36	청소년친선교류단방문(1), 청소년오케스 트라내한공연(1), 고등학교자매결연(2)
94	울산광역시	길림성장춘시	30		5	1	2	22	
87	울산광역시	아이오아주 드래피드시	13				1	12	※95년시군통합이후교류단절
97	경 기 도	가나가와현	214	14	9	1	8	182	여교교핸드볼친선경기(2), 고교배구경 기(1),가나가와국제장학금지급(6), 경기 도청소년교류단(1), 기술연수생연수(2), 한일청소년지도자교류(1), 오다와라시 소년단방문(1)
93	경 기 도	중국 요녕성	131		5	1	15	110	
83	경 기 도	미국 유타주	87	8	10		12	47	이천중학교친선축구경기(1), 부천 소년소녀합창단방문(1), 유타주립대 유학(1), 브리검영대학무용단방한공연 (2), 브리검영대학춘기한국연수단방문 (1), 대학원생유타주립대연수방문(1), 유타대학교합창단공연(1)
97	경 기 도	미국 버지니아주	10				4	6	
96	경 기 도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10	1	1			8	청소년해외연수단북홀란드방문(1)
96	경 기 도	영국 북잉글랜드자 치단체연합	14	2	3		1	8	청소년대표단북잉글랜드방문(1), 뉴캐 슬대학사과정대학원생Hermanns인터 쉽연수
97	경 기 도	러시아 모스크바주	7		1		2	4	
99	경 기 도	스페인 카탈루냐주							
96	경 기 도	멕시코 멕시코주	5				1	4	
97	경 기 도	파라과이 알토파라니주	2					2	
95	경 기 도	남아공하우텡즈	27	1	1		6	19	자매국민학교에386컴퓨터(중고)30기증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 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횡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개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7	경 기 도	호주퀸스랜드주	26		3		6	17	
89	수 원 시	북해도 아사히가와	18	4	4			10	한일친선소년축구단교환경기(1), 초·중 등부축구친선경기교환(2년마다)(1), 중학생방문단수원방문(1), 보이스타웃 교류(1)
93	수 원 시	산둥성쑤난시	16		1		7	8	
97	수 원 시	호주퀸즐랜드 주타운즈빌시	13	2	3		3	7	청소년친선축구교환경기(2)
97	수 원 시	인도네시아서 자바주반둥시	6		3		2	1	
99	수 원 시	타이키알로바시	5		1		1	3	
99	수 원 시	루마니아크루 즈나포카시	6		2		1	3	
99	수 원 시	멕시코틀루카시	5		2		1	2	
86	성 남 시	브라질 베라시카바시	6					6	
92	성 남 시	미국콜로라도 오로라시	11				1	10	
98	성 남 시	요녕성심양시	20	3				17	중학교축구교환경기(3)
89	의 정 부 시	니가타현 시바타시	42	3	11	18		10	초등학교미술교류(3)
95	의 정 부 시	미국리치몬드시	3				1	2	
96	의 정 부 시	요녕성단둥시	3					3	
89	안 양 시	바지나이주헨트시	11		1		1	9	
89	안 양 시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	28	14	1		1	12	고교생교환방문(13), 안양시중학생방문(1)
95	안 양 시	산둥성웨이팡시	19		5	1	2	11	
97	안 양 시	러시아연방브 리아티아공화 국울란우테시	4				1	3	
97	안 양 시	멕시코나우칼판시	4				1	3	
97	안 양 시	브라질 소로까바시	4				1	3	
98	안 양 시	도쿄로자와시	19	4	2	1	1	11	청소년교류상호파견(1), 소년축구단방 한(1), 고교생교류방문(2)
94	부 천 시	텍사스 주파사테나시	8	1	1		1	5	중학교자매결연교류(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활 동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개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5	부 천 시	파푸아뉴기 니 포트몰스 비시	17	1	5		2	9	여고자매결연체결(1)
95	부 천 시	흑룡강성하얼빈 시	22	1	5	1	4	11	농악학교무용예술단학생방문(1)
96	부 천 시	가와사키시	38	1	5	2	3	27	중학생홈스테이(1)-14명
97	광 명 시	오스나부키 시	4		1			2	
89	평 택 시	알라바미주 모빌시	1					1	
78	평 택 시	필리핀 엔젤레스시	1					1	
81	동 두 천 시	캘리포니아 주 마리나시	1					1	97년이후 서신연락만 유지
87	안 산 시	라스베가스 시	21	7			2	12	학생단방문(6), 학교자매결연(1)
97	안 산 시	중국안산시	15				2	13	
97	고 양 시	네덜란드 헤르호고버르드 시	6		1		2	3	
98	고 양 시	중국 흑룡강성치 치하얼시	8		2		3	3	
97	파 천 시	캐나다 에어드리시	4	4				0	초중고생 어학연수(4)
94	구 리 시	길림성임강 시	1					1	
96	남 양 주 시	영국켄트주 다트포드시	12		1			11	
99	남 양 주 시	강소성상주 시	17	1		2	4	10	청소년간담회방문(1)
98	남 양 주 시	몽골울란바토르 시	29	3	5		5	16	장학사업추진(2), 대학생방문(1)
96	오 산 시	사이다미현 하다카시	3		1			2	
97	오 산 시	텍사스주퀵린 시	2					2	
92	하 남 시	미국리틀록 시	7				1	6	

차별 연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횡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8	군 포 시	태네시주 클락스빌시	15		3	1	1	10	
97	군 포 시	캐나다밴빌시	20		2	3	1	14	
95	파 주 시	요녕성금주시	14		2		5	7	
97	이 천 시	강서성경덕진시	4	1	1			2	대학생이천시방문(1)
99	이 천 시	자카현 갑가군선택정	2		1			1	
88	안 성 시	뉴햄프셔주 내슈아시	11	1			1	9	리미어대학내 유치원설치 ※교류단절고려
97	안 성 시	심양시요중현	6					6	
2000	안 성 시	대만성 대북현영화시	2				1	1	
97	김 포 시	요녕성신민시	5				2	3	
97	김 포 시	조오지아주 리버티카운티	2				2		
97	양 주 군	베트남칸토시	4				1	3	
85	화 성 군	위성튼주 씨애틀시 캉군	7				1	6	
98	화 성 군	강소성오장시	9				1	8	
2000	의 왕 시	이칸소주 노쓰윌락	2					2	
74	강 원 도	캐나다 알버타주	90	1	5	14	24	46	고교축구선수단방문(1)
91	강 원 도	미국콜로라도주	14				3	11	
98	강 원 도	러시아 연해주	5			1	1	3	
94	강 원 도	중국 길림성	67	5	11	3	15	33	청소년탁구대회(1), 청년연합회교류(4)
94	강 원 도	일본 돗토리현	63	5	19		16	23	청소년나래교류(2), 우정의교류방문(1), 어린이큰북연주단(2)
91	춘 천 시	미시간주 호호시	58	2	4	9	2		학생산악협회회(1), 대학생초청홈스테이교류(1)
84	춘 천 시	나가노현 하카시즈쿠마군	25	1			6	21	축산연수생파견(1)
98	춘 천 시	미국애너하임시	5	1				4	고교생홈스테이주진(1)
65	원 주 시	미국 로아노크시	24	4	1			19	원주농고학생장학금전달(1), 대학차별 결연(2), 고등학교차별결연(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정 재	행 정
98	원 주 시	미국 에드먼튼시	3					3
99	강 룡 시	중국 자싱시	5		2			3
83	강 룡 시	일본 자치부시	45	7	9	6	2	21 축구부친선경기개최(1), 소년야구단친선 경기(2), 여고교전무용단(1), 초등축구 부친선경기(1), 청소년민박체험(1), 청 소년교류지원(펜팔사업)(1)
81	동 해 시	후쿠이현쓰루가시	37	13	9	6	2	7 친선축구단방문(6), 아동친절사절단(4), 친선야구대회(북평고교)(1), 교교생방문(1), 청소년교류원칙합의(1)
91	동 해 시	러시아연해주 나호트카	24	5	5	1	10	3 축구대표단방문(1), 학생친선사절단 (3), 태권도연수생방문(1)
95	동 해 시	길림성도문시	31	3	3		4	24 청소년대표단방문(1), 양시간학교교류 및장학금협의(1), 청소년상호연수(1)
95	대 백 시	중국 길림성화룡시	2		1			1
85	속 초 시	미국오래곶주 그레삼시	16	1	2			13 그레삼시학생방문(1)
95	속 초 시	독토리현외교사	23	2	1	3	1	16 속초여중대표단방문(2)
92	속 초 시	대만대동현	1					1
97	삼 척 시	일본 아끼비라시	3	1				2 청소년교류협의(1)
99	삼 척 시	중국 산둥성동영시	4					4
91	홍 천 군	프랑스싸나리시	3		1		1	1 98년이후중단
97	횡 성 군	독토리현 하도정	48	8	6		1	33 어린이하도정방문(5), 어린이횡성방문 (6), 한일이린이교류(1)
98	횡 성 군	길림성 반석시	6	3				3 소학교장학금전달(1), 어린이교류협의 (1), 초등학교자매결연(1)
99	양 구 군	일본 독토리현치즈정	8	2	1			6 청소년교류(1), 장학금전달(1)
97	인 제 군	일본독토리현 동백정	38	3	5		4	26 초등학교어린이사물놀이공연(1), 학생방 문점도친선경기(1), 소년스포츠교류(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합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정 제	행 정	
96	고 성 군	일본돗토리현 요도에정	13	3	2	1		7	중학교수학여행단고성군방한(2), 고성중학교학생건강중학교방문(1)
86	충 청 북 도	미국 아이다호주	14		1			13	현재교류중단상태임
99	충 청 북 도	일본 아마나시현	151	27	14	12	3	95	청소년야구교류(2), 청소년축구(3), 어학연수(1), 청소년연수단(1), 유학생파견(8), 수학여행(1), 청소년방문(5), 청소년교류단(6)
96	충 청 북 도	중국 헤이룽장성	48	6	3	6	5		청소년교류단(6)
99	충 청 북 도	멕시코 콜리마주	7				1	6	
90	청 주 시	일본 돗토리시	78	6	14		2	56	중고생방문(3), 초등학교교류(1), 근로청소년연수단(1)
69	충 주 시	대만성 대중시	77		3		1	73	
94	충 주 시	일본 가나가와현 유기와라정	32	3	5		3	21	청소년스포츠교류(3)
99	재 천 시	위성턴스포텐시	9	2	2			5	아동미술교류전(2)
83	보 은 군	중국 대만현	5					5	
93	보 은 군	일본미야시키현 다카오카정	41	16	3			22	초등학교교류(14), 초등학교품물놀이 대군(1), 초등학교사절단(1)
97	옥 천 군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케	18	3	4		1	10	초중생그림서예작품전(1), 학생교류(2)
83	충 청 남 도	일본구마모토현	21	1	3	4	2	11	수학여행단충남유적지답사(1)
94	충 청 남 도	중국허베이성	16	1	4		2	9	충청남도주최4개국청소년체육대회 참가(1)
95	충 청 남 도	러시아이무르주	11	1	4	1	4	1	청소년체육대회참가(1)
99	충 청 남 도	호주남호주	2					2	
93	천 안 시	미국버버턴시	14	6	2		4		교사·학생교류방문단비버턴방문(3), 청소년교류방문단천안방문(1), 충남 예술교무용공연(1), 미국버버턴시와 의학생교류(1)
93	천 안 시	중국쓰촨성	6	1		1	2	2	청소년탁구경기위한쓰촨성방문(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79	공 주 시	구마모토현기 꾸쑤이정	50		4		1	45	
91	공 주 시	시가현 모리야마시	12	7				5	친선야구경기(1), 학생교류(1), 소년야구 교류협의체결(2), 야구교류(1), 고등학교 친선방문(1), 소년야구단친선경기(1)
93	공 주 시	야마구치시	38	8	6	2		22	공주어린이교류협의방문(1), 공주교야 구단초청경기일정협의(1), 국제어린이 교류데방문(1), JC간어린이교류(4), 청 소년축구교류추진(1)
92	공 주 시	미국켄홀군	6					6	
97	아 산 시	중국보란점시	4					4	
91	서 산 시	일본천리시	21	3	3		1	14	중학생친선경기개최협의실시(2), 초중 학생서화전시회개최(1)
99	서 산 시	미국뉴저지주 클립턴시	4	3				1	학생간상호교류(1), 초중학생서화전시 회교환개최(1), 학교간자매결연추진(1)
84	서 산 시	벨기에 후어시	12					12	※교류중단
93	서 산 시	독일 네하임슈타인시	1					1	교류실적없음
95	금 산 군	중국길림성안도현	7				6	1	
72	부 여 군	일본아스카무라	39		38			1	
78	부 여 읍	일본 다자이후시	36	34	2				청소년홈스테이운영(34)
90	은 산 면	시가현 히노정	29		29				
91	부 여 읍	미야자키현안고촌	27	25	1			1	중학교간학생상호교류(25)
92	부 여 군	시가현가모우정	28	1	27				초등학교간상호교류(1)
97	테 안 군	산동성 태안시	9	1	4			4	고등학교간교류협의(1)
89	당 진 군	미국스노호미쉬군	5	1			2	2	고등학교간자매결연협의(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89	전 라 북 도	가고시마현	257	50	26	7	20	154	대학생교류(3), 청소년단체교류(6), 청소년사절단(2), 꼬마대사교류(6), 국제유스축구팀(1), 순창군가와나메초청소년교류(3), 정읍시레지메초청소년교류(1), 고구마소년교류(1), 중교생방문(2), 수학여행방문단(4), 초등학교학생방문단(1), 청소년교류및교류협의(20)
94	전 라 북 도	중국강소성	91	1	14	7	17	52	대학간의자매결연협의(1)
96	전 라 북 도	위싱턴주	11				3	8	
96	전 주 시	중국 소주시	8		4			4	
83	전 주 시	미국 샌디에고	9	2	2			5	학생교류(2)
79	군 산 시	미국 타코마시	27	3	5		5	13	초등교자매결연(1),대학간자매결연(1), 자매도시간학생교류(1)
94	군 산 시	중국연대시	32		10		8	14	
83	익 산 시	미국캘리포니아캘버시	7	1				6	고교생홈스테이(1)
84	익 산 시	덴마크오덴세시	4					4	
98	익 산 시	중국 강소성 진강시	1	1				0	고교생홈스테이(1)
83	정 읍 시	미국 핏츠필드시	20					20	1988년이후 교류두절
96	남 원 시	중국강소성 염성시	19	4	2		3	10	중학생홈스테이(3), 대학생어학연수단(1)
96	남 원 시	캘리포니아주 콤포시	1					1	
85	김 제 시	구마모토현사수정	9		1	5	2	1	
97	김 제 시	강소성 남통시	3				2	1	
99	김 제 시	강소성 회음시	11	2			2	7	중고생홈스테이(2)-10명7일간
97	완 주 군	캘리포니아주 칼슨시	5	1				4	중고생홈스테이(1-7명15일간)
99	임 실 군	미국와세카시	3				2	1	
86	전 라 남 도	미국미주리주	14		2			12	
96	전 라 남 도	미국오리건주	9		1			8	
98	전 라 남 도	중국절강성	18	1	1		4	12	청소년교류(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활 동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재	행 정	
92	목 포 시	중국 강소성영운항시	30		2		1	27	
84	목 포 시	오이타현벤후시	35	5	6			24	소년소녀사절단(1), 소년축구전(1), 학생자매결연(1), 아동그림 및 편지 전시(1), 보이스카웃교류(1)
82	여 수 시	사카현기라즈시	107	12	35	8	3	47	소년의배(3), 중학교자매결연(1), 수산대원양실습(2), 소년소녀합창단 공연(1), 중학교야구선수단(2), 중학생민박(3)
88	여 수 시	미조리주 싸익스톤시	5	2				3	고등학교교류(2)~3명, 어학연수등
94	여 수 시	경강성항저우시	17		4	4		9	
95	여 수 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16	2	2	1	1	10	여구농구단교류(2)~12~16명
96	여 수 시	필리핀시부시	7		3			4	
91	순 천 시	미주리주 콜롬비아시	24	15	5			4	단기유학생파견(3), 대학간교류(7), 학생 어학연수(5)
93	나 주 시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19	5	2		1	11	중학생교류(4), 초등생축구교류(1)
94	나 주 시	미국워싱턴주 웨네시	4		1		1	2	
91	광 양 시	오스트리아 린츠시	11	1	3			7	소년합창단공연(1)
97	고 흥 군	사카현가시마시	8	2		2		4	중학생교류(2)
98	강 진 군	네덜란드 호르름시	13		1		1	11	
99	해 남 군	광둥성소관시 웅원현	1					1	
96	완 도 군	산둥성 영성시	8		4		2	2	
84	경 상 북 도	미국오하이오주	5		1			4	
89	경 상 북 도	일본사네마현	34	2	6	3	2	21	한일친선소년의 배(1), 대학생파견(1)
95	경 상 북 도	중국하남성	22		3		3	16	
96	경 상 북 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5		1		1	3	
98	경 상 북 도	남아프리카노 스웨스주	2		1			1	
99	경 상 북 도	프랑스알자스주	9		2		1	6	
79	포 향 시	히르시마현 후쿠야마시	29	3	6			20	중학생친선축구(1), 청소년교류(1), 초등학생친선축구(1)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85	포 함 시	미국롱비쿼시	7					7	
87	포 함 시	미국피츠버그시	16	2	7			7	청소년교류(2)-9명~11명
84	포 함 시	대만마오리현	3					3	
95	포 함 시	중국홍춘시	20	1	1	1	4	13	중학생전선축구(1)-19명
70	경 주 시	일본나라시	29	3	3	3		20	고교수학여행단(2), 결스카웃교류(1)
77	경 주 시	후쿠이현 오바마시	1		1				
94	경 주 시	중국 서안시	3		2			1	
90	경 주 시	미국 잉글리우드시	1					1	교류실적자료없음
87	경 주 시	프랑스 베르사이유	1					1	교류실적자료없음
85	경 주 시	이탈리아 폼페이시	1					1	
75	김 천 시	일본나나오시	61	2	7	2		50	청소년교류(2)
74	안 동 시	야마가타현사 가에시	59	9	6	3		41	소년소녀합창단교류(2), 초중고그림교류(3), 홈스테이(1), 고교축구교류(3)
83	안 동 시	미국뉴헤이븐시	3					3	
89	구 미 시	대만 중리시	3					3	
90	구 미 시	시가현 오쑤시	45		15		4	26	
91	구 미 시	키토키스공화 국비쉬케프시	6					6	
98	구 미 시	중국 장사시	3					3	
98	구 미 시	멕시코 멕시코칼리시	1					1	
98	영 주 시	중국오현시	5		2			3	
84	영 천 시	아오모리현루 로이시시	16	3				13	중학생탁구교류시합(2), 학예작품교류전(1)
91	경 산 시	일본조요시	32	4	7	3		18	어린이그림교류전(3), 청소년문화시설견학(1)
96	경 산 시	중국교남시	13				4	9	
94	영 덕 군	미국 지치연방시어판	1					1	
99	청 도 군	흑룡강성능강현	5				3	2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7	봉 화 군	중국동천시	13		1	2		10	
87	경 상 남 도	일본아마구치현	11		1		4	6	
91	경 상 남 도	미국메릴랜드주	13		1	1		11	
93	경 상 남 도	중국산둥성	10	1		2	3	4	청소년교류(1)
96	경 상 남 도	인도네시아동 부자바주	8		1	4	1	2	
96	경 상 남 도	베트남동나이성	6		1	1		4	
96	경 상 남 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9	1	2	1		5	청소년교류(1)-22명방문
97	경 상 남 도	멕시코 할리스코주	3					3	
97	경 상 남 도	필리핀라구나주	6	1	1			4	대학생어학연수(1)
97	경 상 남 도	폴란드 포메라니아주	2					2	
97	경 상 남 도	헝가리페이크주	3		1			2	
86	창 원 시	미국저지시티시	7					7	
94	창 원 시	중국마안산시	16	1				15	청소년문화교류단체방(1)-9명
83	마 산 시	미국잭슨빌시	13	3	1			8	학생간상호방문교류(3)
87	마 산 시	멕시코시몬레온시	17		3	1		13	
97	마 산 시	베트남다낭시	10	2				8	청소년기술연수(2)-각29명
97	마 산 시	중국서관시	7					7	
99	마 산 시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8					8	
2000	마 산 시	효고현 히메지시	11					11	
61	진 주 시	오레건주유진시	18		2			16	
85	진 주 시	홍카이도 키타미시	23		1		1	21	
92	진 주 시	캐나다 위니펙시	2					2	※93년부터 교류두절
83	진 해 시	칠레알파이소주 비냐델마르시	1					1	
93	진 해 시	매릴랜드주아 나폴리스	2					2	※97년부터 교류두절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9	진 해 시	히로시마현 구례시	5	1	2		1	1	청소년그림교환전시회(1)
81	통 영 시	오카야마현 다마노시	29	6	2			21	아동미술교류전(4),아동친선축구(2)
73	통 영 시	사이타마현 사야마시	49	3	5	4		37	청소년교류(1),중학생미술교류전(2)
92	사 천 시	히로시마현 미요시시	11					11	
92	김 해 시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29	6	5	3		15	초중생교류단(5),한일청소년교류(1)
96	김 해 시	베트남 비엔호아시	2					2	
97	김 해 시	오레곤주 셀렙시	5		1			4	
90	밀 양 시	시마네현 야스키시	23	2	4	1	2	14	국제환경어린이토론회(1), 고교여학연수(1)
94	밀 양 시	사가현 오미하찌만시	12		3	2		7	
73	거 제 시	미국광도	1					1	※교류두절
94	거 제 시	하북성진황도 시인민정부	4				1	3	
96	거 제 시	충질림성용정 시인민정부	13		1		1	11	
98	양 산 시	아키타현 혼조시	5	2	1			2	청소년사절단(1),한일교환학생대회(1)
91	남 해 군	가고시마현오 구치시	26	7	4	1		14	학생문예작품교류(4), 중학생상호민박교류(3)
97	남 해 군	독일노드프리 슬란트주	21	7	4	3	1	6	학생문예작품교류(4), 중학생상호민박교류(3)
86	제 주 도	하와이주	21	6	6		2	7	청소년교류(6)
89	제 주 도	인도네시아 발리주	24		8		2	14	
92	제 주 도	광둥성 사할린주	9		3		2	4	
95	제 주 도	중국 해남성	18		4		4	10	
87	제 주 도	일본 와카야마시	45	14	2	3	6	20	초등학교친선축구(8), 중학생간 문화학습교류(2)
97	제 주 도	중국 쑤이런시	11				3	8	
94	서 귀 포 시	사가현 가라츠시	18	2		2		14	청소년교류(2)

자매 결연 년도	우리자치체명	상대국 자치체명	교 류 횟 수						청 소 년 교 류 활 동 사 항
			계	청 소 년	문 화	스 포 츠	경 제	행 정	
95	북 제 주 군	산둥성래주시	31	3	2	1	7	19	학생교환연수(2),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1)
96	북 제 주 군	캘리포니아주 샌타로사시	12	3	1			8	학생연수단상호방문(2), 청소년오케스트라연주(1)
97	북 제 주 군	효교현산다시	16	2	4	3		7	청소년축구단교환경기(2)
87	남 제 주 군	와카야마현 나가군	14				5	9	
96	남 제 주 군	요녕성 홍청시	4					4	
97	남 제 주 군	뉴질랜드 파파루라시	3					3	

<부록 4>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사업 모델사례

《사례1》 한국·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청소년국제교류

① 교류경위

1992. 한·일 해협 연안 7개 시도현 지사회의시 청소년교류사업 채택. 한국측 부산·경남·전남·제주시 참가, 일본측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현 참가

1999. 일본측의 야마구치현 참가.

※ 위 자치단체들의 경우, 1993년부터 격년제로 상호교환 방문협의 후 사업 추진.

② 사업목적

첫째, 청소년교류사업을 통한 양국 청소년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및 친선 도모

둘째, 국제적 견문을 증대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함

③ 교류내용

- '93.8.20~8.26 (6박7일) 한국 4개시도 48명 ⇒ 일본방문
- '94.7.26~8.1 (6박7일) 일본 3개현 38명 ⇒ 한국방문
- '95.7.28~8.2 (5박6일) 한국 4개시도 56명 ⇒ 일본방문
- '96.7.26~8.1 (6박7일) 일본 3개현 56명 ⇒ 한국방문
- '97.8.8~8.14 (6박7일) 한국 4개시도 56명 ⇒ 일본방문
- '98.8.6~8.12 (6박7일) 일본 3개현 56명 ⇒ 한국방문
- '99.7.30~8.5 (6박7일) 한국 4개시도 56명 ⇒ 일본방문
- 2000.7.28~8.3 (6박7일) 일본 4개현 57명 ⇒ 한국방문

《사례2》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1989. 야마나시현 측 자매결연 제의

1992.3 교류 시작

1999.3 정식 자매결연 체결

② 교류개요

총 151회 교류(청소년교류 27회, 문화교류 14회, 스포츠교류 12회, 경제교류 3회, 행정교류 95회)

③ 교류내용

- '92.10.30~11.3 야마나시현 청년해외연수단 충청북도 방문(40명)
- '93.3.19~20 야마나시현 고교축구단 24명 충청북도 방문(한일 친선충청북도협의회초청)
- '93.3.27~31 야마나시현 고후시 로타리 클럽 회원 자녀 대학생 6명 충청북도 방문
- '93.7.7~11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연수단 10명 야마나시현 방문
- '93.7.26~29 야마나시현 山中湖중학요트선수단20명 충청북도 방문(요트협회초청)
- '93.8.23~27 야마나시현 교교 선발 야구단 20명 충청북도 방문(세광고와 친선경기)
- '93.11.2~5 야마나시현 청년 해외 연수단 39명 충청북도 방문(교육, 문화, 산업시찰)
- '94.3.10~13 충청북도 북청주 로타리 클럽 회원 자녀 대학생 4명 야마나시현 방문
- '94.3.20~21 야마나시현 고교축구단 24명 충청북도 방문(충북 고교축구팀과 2회 경기, 한일친선협회초청)

- '94.7.25~30 충북중고 탁구선수단 20명 야마나시현 방문(합동훈련 및 친선경기개최)
- '94.7.26~30 충청북도 모범청소년 연수단 20명 야마나시현 방문(청소년 친선교류)
- '94.9.1~4 야마나시현 청년 연수단 26명 충청북도 방문(청소년 친선교류)
- '95.3.28~29 야마나시현 로타리 클럽 회원 대학생 자녀 충청북도 방문(도정소개, 견학)
- '95.8.26~29 야마나시현 청소년 교류단 23명 충청북도 방문(학교·단체 방문, 문화탐방)
- '95.10.5~9 충청북도 청소년 교류단 20명 야마나시현 방문(과학산업시설견학 및 문화탐방, 홈스테이)
- '96.3.30~4.1 야마나시현 고후공고 우호 친선 축구단40명 방문(친선경기 및 청주공고와 자매결연협의)
- '96.8.3~8 충청북도 청소년교류단 23명 야마나시현 방문(교류회, 문화탐방, 가정방문)
- '96.8.22~26 야마나시현 청소년 교류단 23명 충청북도 방문(교류회, 문화탐방, 가정방문)
- '97.5~'98.3 유학생상호파견 대학생1명씩 상대 자치단체대학 파견연수
- '97.8.21~26 야마나시현 청소년20명 충청북도 방문(홈스테이, 문화산업 시설 견학)
- '97.9.2 야마나시 현립 여자 단기대학 연수단 26명 충청북도 방문(청주대학생과 교류)
- '98.4.1~'99.3 유학생 상호 파견 연수 각 1명(청주대 및 현립 여자 단기 대학)
- '98.4~8 충청북도청소년17명 야마나시현 방문(홈스테이, 학교·기업견학)

- '98.4.17~8.21 야마나시현 생명의 숲 소년사절단 20명 충청북도 방문 (홈스테이 및 친선 교류회)
- '98.8.27~31 야마나시현 청소년 교류단 20명 충청북도 방문 (홈스테이, 친선교류회)
- '99.4~2000.3 유학생상호파견 연수 각1명(청주대 및 현립 여자 단기대학)
- '99.10.5 야마나시현 수학 여행단 350명 충청북도 방문 (청주 외고 학생과 친선교류)
- '99.8.9~13 충청북도청소년25명 야마나시 방문(문화체험, 홈스테이)
- '99.8.26~29 야마나시 청소년 21명 충청북도방문(문화체험, 홈스테이)
- 2000.4~2001.3 유학생 상호 파견 연수 각1명(청주대, 현립여자 단기대학)

《사례3》 안양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 간의 청소년 교류

① 교류경위

1985.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안양 상공회의소 간의 자매결연, 조기축구회 등 민간교류시작
- 1989.2 안양시장 가든구로브시 방문, 자매결연 체결

② 교류개요

총 28회 교류(청소년교류16회, 문화교류1회, 경제교류1회, 행정교류10회)

③ 교류내용

- 안양 고교생 대표단 가든그로브시 방미

- 1차 : '89.10.8~16(16명) · 2차 : '90.12.13~21(15명)
- 3차 : '93.1.17~24(8명) · 4차 : '95.1.27~2.3(10명)
- 5차 : '96.1.19~26(11명) · 6차 : '97.1.17~25(11명)
- 7차 : '99.1.7~16(11명) · 8차 : 2000.1.7~15(11명)
- ※ '94.1.8~16 중학생 방미(11명)

-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대표단 안양시 방문

- 1차 : '90.6.23~30(12명) · 2차 : '93.6.25~7.6(8명)
- 3차 : '95.7.26~8.2(7명) · 4차 : '97.3.29~4.4(8명)
- 5차 : '98.4.11~18(12명) · 6차 : '99.4.3~10(9명)
- 7차 : 2000.4.16~23(13명)

《사례4》 경기도 의정부시와 일본 시바타시 간의 청소년 스포츠경기 교류

① 교류경위

- 1980.8.30 한일 의원연맹의 권유로 체육교류협정 체결, 소년소녀
스포츠 교환경기 개최
- 1989.11.2 우호 도시 협정 체결

② 교류개요

총 42회 교류(청소년스포츠 18회, 초등학교 미술교류 3회, 문화교
류 11회, 행정교류 10회)

③ 교류내용

- 청소년 스포츠교류

- '81.8.21~24 의정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검도
- '82.8.6~9 시바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 '83.8.20~22 의정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 '84.8.3~6 시바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정구 등
- '86.8.1~4 의정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정구 등
- '87.8.7~10 시바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 '89.8.19~21 의정부시 축구, 태권도, 공수도
- '90.8.3 ~6 시바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 '91.8.6~9 의정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 '92.8.7~10 시바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 '93.8.20~22 의정부시 육상, 축구, 태권도, 공수도 등
- '94.8.4~7 시바타시 육상, 축구, 테니스, 태권도 등
- '95.10.9~13 의정부시 줄다리기, 테니스, 게이트볼
- '96.8.1~4 시바타시 육상, 탁구, 축구, 검도, 테니스
- '97.8.1~4 의정부시 축구, 검도, 유도, 태권도, 공수도
- '98.8.1~4 시바타시 육상, 축구, 유도
- '99.8.6~9 의정부시 유도, 탁구, 축구, 검도
- 2000.8.4~7 시바타시 육상, 유도, 탁구, 축구, 검도

- 초등학교 미술교류

- 1990. 8.3~8.6 시바타시
- 1991. 7.16~8.10 의정부시
- 1992. 8.1~8.27 시바타시

《사례5》 전라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1988.10.31 전라북도 부지사 등 3명 가고시마현 방문, 공무원 연수 합의 각서 교환
- 1989.4.27 가고시마현 부지사 등 7명 전라북도 방문, 양 지역 상호교류 확대 협의
- 1989.10.30 양 자치단체장 간의 「우호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선언」 조인

② 교류개요

총 259회 교류(청소년 49회, 문화교류 26회, 스포츠교류 7회, 경제교류 20회, 행정교류 155회)

③ 교류내용

- 전라북도⇒가고시마현(12회)
 - '90.7.24~8.7 고구마교류사업참가(대학생교류)
 - '91.11.12~11.8 청소년단체상호교류(청소년단체)
 - '92.7.28~8.4 중고생가정교류(청소년사절단)
 - '93.7.27~8.3 청소년사절단 鶴田町파견(청소년사절단)
 - '95.8.7~8.14 청소년사절단파견(청소년사절단)
 - '96.10.11~8 청소년간교류(청소년단체)
 - '98.11.20~24 국제 유스 축구팀(전주공고)(청소년교류)
 - '99.7.14~7.19 군산간호대학과 가고시마 대학간교류 사전협의(대학간교류)
 - '99.8.3~8.5 순창군과 가와나베초 청소년교류 사전협의(청소년교류)
 - '99.11.10~15 순창군과 가와나베초 청소년교류(청소년교류)

- '99.12.24~29 정읍시와 레지메초 청소년교류(청소년교류)
- 2000.1.21~29 순창군과 오구치시 청소년교류(청소년교류)
- 가고시마⇒전라북도(37회)
 - '90.7.31~8.7 중흥스테이 가정교류(꼬마대사방문)
 - '90.8.1~8.8 청소년과의 교류(고구마소년교류)
 - '91.8.5~8.10 하계방학이용교류(중고생방문)
 - '91.12.31~1.5 대학생교류(원광대학교)(대학생배낭여행)
 - '99.8.2~8.6 가와나베초 청소년교류(청소년교류)

《사례6》 경기도와 일본 가나카와현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1988.12.1 경기도 선진국 지방자치 연수단(내무국장 일행)의 가나카와현 방문시 현지사의 자매결연 제의 후 접수
- 1989.5.9 외무부로부터 가나가와현과의 자매결연 검토 의뢰서 접수
- 1989.8.1 경기대표단 가나카와현 방문, 자매결연 협의
- 1990.4.24 자매결연 체결

② 교류개요

총 214회 교류(청소년교류 16회, 문화교류 9회, 스포츠교류 1회, 경제교류 8회, 행정교류 180회)

③ 교류내용

- 경기도⇒가나가와현(6회)
 - '93.3.8 일본어전공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120만엔)

- '93.8.18 일본어전공대학생장학금120만엔 지급
- '95.3.23 도내 일어전공대학생장학금지급
- '95.11.3 경기도 청소년 교류단 22명 방문
- '96.7.23~8.1 한일청소년지도자 교류(1명)
- '98.12 가나카와 국제 장학금 유학생 결정

- 가나카와현⇒경기도(10회)

- '90.8.10~16 여고생 핸드볼 경기 친선 경기차 방문
- '92.8.21~24 가나카와현 오다와라시 소년단 25명 방문
- '95.3.30 가나카와현 고등학교교사 일행 5명 방문
- '95.8.22~29 가나카와현 청소년지도자 일행 5명 방문
- '96.8.21~28 청년지도자 일행 9명 방문
- '96.11.5~6 사가미하라시 교원연수단 청신중학교 교직원 일행 4명 방문
- '98.2.18 가나카와 해외장학금 지급(5개대 12명 18,756천원)
- '98.2.28 가나카와유, 장학생 인정서 수여(유학생1명, 장학생5명)
- '98.9.9 가나카와 해외 장학금 지급(5개대 11명, 12,331천원)
- '99.9.2 가나카와 해외장학금 지급(6개대 17,238천원)

《사례7》 광주광역시와 인도네시아 매단시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1996.7 주인도네시아 대사 민형기씨, 명예무역 주재관 이호덕씨 자매결연 제의
- 1997.1.7 인도네시아 매단시와의 자매결연추진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
- 1997.2.1 인도네시아 매단시장 동의 서한 회신

- 1997.4.20~27 광주광역시 실무협의단 메단시 방문
- 1997.7.27~30 메단시 실무협의단 답방으로 광주 방문
- 1997.9.20~27 광주시장 일행 메단시 방문, 자매결연체결

② 교류개요

총 11회 교류(청소년교류 4회, 경제교류 1회, 행정교류 5회)

③ 교류내용

- '99.6.22 메단시 기업인회 부회장 광주시방문 학생교류협의
- '98.10.10 메단시 대학생에 장학금지급(국제라이온스클럽)
- '99.8.2~10 광주서강 고등학생 7명 메단시 방문
- 2000.3.12~19 메단시 중고등학생 9명 광주방문

《사례8》 부산광역시와 일본 시모노세끼시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1966.6.8 시모노세끼 시장 일행 부산시 방문, 상호교류생
친선교환 방문 제의
- 1976.8.26 시모노세끼 부시장 일행 부산시 방문, 자매결연
요청
- 1976.10.11 양 도시간 자매결연 조인

② 교류개요

총 38회 교류(청소년 8회, 문화교류 6회 스포츠교류 5회, 경제교류 1회, 행정교류 18회)

③ 교류내용

- '92~'95 매년 교육 시찰단, 중학생 연수단 방문(5회)
- '97.7.25 청소년 일행 10명 방문
- '99.6.15 초, 중, 고교 교육시찰단방문
- '99.8.20 중학생 연수단 11명 방문

《사례9》 경기도 과천시와 미국 앨버타주 에어드리시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도시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대상 도시를 물색하던 중 캘거리시 한인회부회장을 통하여 캘거리시위성도시인 에어드리시 시장의 교류의사 확인
- 1996.11.8~23 과천시방문단 에어드리시 방문
- 1997.6.11 자매결연 체결(에어드리시청 회의실).

② 교류개요

총 4회 교류(청소년교류 4회)

③ 교류내용

- 과천시 ⇒ 에어드리시
- '97.7.24~8.8, '99.7.23~8.14, '99.12.28~2000.1.18, 2000.7.~
유사한 연령 자녀를 둔 가정에 민박과 관광을 통한 교육(어학연수)
- ※비용부담 : 학생전액부담, 과천시는 일정 협의등 지원

《사례10》 서울 광역시 송파구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1993.11.5 클라이드석슨 뉴질랜드 명예 한국영사 송파구 방문, 크라이스트처치시와의 자매결연 제의
- 1995.2.10 송파구청장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 자매결연 체결

② 교류개요

총 20회 교류(청소년교류 8회, 문화교류 6회, 행정교류 6회)

③ 교류내용

- '97.9.25~10.5 아라누이교교 대표 13명 송파 오금고교방문
- '97.10.15~21 어린이미술작품교류전시회(송파미술관)
- '98.8.9~20 오금고교 대표12명 아라누이교교 방문
- '98.9.29~10.2 자매도시청소년축구대회(송파구주최)
- 2000.2.13~24 오금고교대표16명 아라누이교교 방문
- 2000.2.18~3.17 어린이 미술작품전시회(크라이스트처치시 현대미술관)
- 2000.8.13~19 자매도시청소년축구대회(크라이스트시 주최)
- 2000.9.28~10.8 아라누이교교 대표 12명 오금고교방문)

《사례11》 충남 천안시와 미국 오레곤주 비버턴시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1987.12 비버턴시 시장 일행 내무부(행정자치부) 방문,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희망 의사 밝혀 천안시 추천

- 1989.5 비버틴 시장 천안시 방문, 자매결연 조인

② 교류개요

총 14회 교류(청소년교류 6회, 문화교류 2회, 경제교류 4회)

③ 교류내용

- '93.1.17~9.5 교사 학생교류 방문단 비버틴시 방문(교사1명, 학생6명)
- '96.8.18~9.18 청소년교류 방문단 비버틴시 방문(공무원1명, 학생6명 : 차터오크 영어캠프 및 학교수업-민박)
- '97.8.21~9.11 청소년교류 방문단 비버틴 방문(중학생4명, 고교생4명 : 차터오크 영어캠프 및 하교수업-민박)
- '98.9.26~9.11 청소년교류 방문단 천안시 방문(인솔2명, 고교생4명 : 천안경영정보 및 충남예술과 수업-민박)
- 2001.1월.3월 청소년교류단 상호방문추진 방문

《사례12》 충청남도 부여읍과 난고손(南郷村) 간의 청소년교류

① 교류경위

- 1991.3.14 난고손 국제교류 담당 일행 교류 협의차 부여읍 방문 후 3회에 걸친 협정서한 왕래 후 양 도시간 자매 도시제휴 협의서 확정
- 1991.9.2 부여읍장 일행 난고손 방문, 자매도시 제휴

② 교류개요

총 30회 교류(청소년교류 25회, 문화교류 1회, 행정교류 4회)

③ 교류내용

1991.~ 난고손 중학교와 부여 임천 중학교 학생간의 상호교류 및 야영캠프, 사적전학 등 총25회 교류

《사례13》 충청남도 부여읍과 일본 다자이후(太宰府)시 간의 청소년 교류

① 교류경위

- 1977.1.16 백제 외교문화교류지이며 부여 사비성과 다자이후시 大野城과의 축조형태가 비슷한 점을 들어 다자이후시 시장 일행 부여읍 방문, 자매결연 제의
- 1978.4.21 자매결연 체결

② 교류개요

총 36회 교류(청소년교류 34회, 문화교류 2회)

③ 교류내용

1978.~ 부여 청소년들과 다자이후시 청소년들의 상호 민박 형식으로 문화를 체험하는 등 홈스테이 운영(34회)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실태 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사무관 이병술입니다.

지난 95년6월부터 97년8월까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동경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함께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몇가지 설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 (또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심껏 작성하여 8월20일까지 아래 FAX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금년 11월중 여러분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0년 7월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번지 정부종합청사1415호실

☎ 02) 3703-4336, FAX 02) 3703-5506

e-mail : L11B53@mogaha.go.kr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이 병술 드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앙케이트

◆ 다음 설문 중 해당항목에 V표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설문1. 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

-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설문6으로 가십시오) (⇒설문2로 가십시오)

◆ 교류하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의 경우⇒설문2~설문5까지 작성

설문2. 장래 교류에 대한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설문3. 장래 교류를 희망하는 상대국·자치단체·교류분야는?

상대국	자치단체명	교류분야(아래보기번호기입)

〈보 기〉

- ① 청소년교류 ② 문화교류 ③ 행정교류 ④ 경제교류 ⑤ 의원교류
⑥ 학술교류 ⑦ 스포츠교류 ⑧ 교육교류 ⑨ 시민상호교류 ⑩ 기타

설문4. 장래 희망하는 청소년교류분야는? (해당항목모두선택)

- ① 견학·시찰() ② 작품교류전() ③스포츠·캠프()
④ 강의·토의() ⑤실기·실습() ⑥문화활동()
⑦ 조사활동() ⑧기타()

설문5. 장래 교류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해당항목 모두선택)

- ① 기관장관심도() ② 지원체제구축()
 ③ 재정부담() ④ 언어등 전문성 확보()
 ⑤ 아이디어 개발() ⑥ 기타()

◆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설문6~설문15까지 작성

설문6. (교류하고 있는 경우)교류활동분야는?(해당항목 모두선택)

- ① 청소년교류() ② 문화교류() ③ 행정교류()
 ④ 경제교류() ⑤ 의원교류() ⑥ 학술교류()
 ⑦ 스포츠교류() ⑧ 교육교류() ⑨ 시민상호교류()
 ⑩ 기타()

설문7. (청소년교류의 경우) 교류상대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계기는?(해당항목 모두선택)

- ① 상대국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학교포함)의 신청()
 ② 우리자치단체의 방침() ③ 국가나 시도의 소개()
 ④ 주민의 소개() ⑤협회등 민간단체의 추천() ⑥기타()

설문8. 주된 청소년 교류대상은?(해당항목 모두선택)

- ① 초·중학생() ② 고교생() ③ 대학(원)생()
 ④ 근로청년(30세 미만) ⑤청소년 지도자() ⑥기타()

설문9. 주된 참가 프로그램은?(해당항목 모두 선택)

- ① 견학·시찰() ② 작품교류전() ③스포츠·캠 프() ④ 강의·토의()
 ⑤실기·실습() ⑥문화활동()
 ⑦ 조사활동() ⑧기타()

설문10. 교류시 상대국에서의 숙박시설이용은?(해당항목 모두 선택)

- ① 공공숙박시설() ② 청소년시설이용() ③ 유스호스텔()
④ 홈스테이() ⑤ 호텔·여관() ⑥ 기타()

설문11. 청소년교류활동의 회수는?(해당항목 모두선택)

- ① 년2회() ② 년1회() ③ 2년1회()
④ 3년1회() ⑤ 필요시() ⑥ 기타()

설문12. 청소년교류활동의 추진주체는?(해당항목 모두선택)

- ① 민간단체() ② 일반자치단체() ③ 교육기관()
④ 국제교류단체() ⑤ 일반청소년 단체() ⑥ 기타()

설문13. 청소년 교류활동시의 경비부담은?

- ① 자치단체() ② 자치단체보조+민간단체()
③ 자치단체보조+자비() ④ 자기부담()
⑤ 민간단체() ⑥ 기타()

설문14. 청소년교류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해당항목 모두선택)

- ① 재정부담() ② 추진주체의 열의부족()
③ 시민의 인식부족() ④ 아이디어 부족()
⑤ 상대측의 열의 부족()
⑥ 지원체제부족(인재·재원 등)() ⑦ 언어의 차이()

◆ 교류하고 있는 경우 및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작성해 주십시오.

설문15. 향후 청소년교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 작성자치단체 및 작성자의 인적사항 ♣

자치단체명	소 속	성 명	연락전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소개

◆ 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다음 구분에 의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단체명 :

2. 국제교류사업추진 개요(추진시기 · 자매결연등 교류사업내용등)

3. 청소년국제교류활동(상대국 자치단체, 교류사업명, 교류주체, 교류의 계기, 최초 실시시기, 인원 등 세부추진내용, 지금까지의 추진성과, 향후 발전전망 등)

* 상기 지면에 다 소개하지 못할 경우 붙임 자료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연구집필 · 협력진

◇ 연구집필진 ◇

- 이병술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이선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 연구협력진 ◇

- 김상태 한국관광연구원
김정훈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
김창수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
박호남 국제교육진흥원
장치영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
정현태 국제문화교류원

